

제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한국아동패널 자료 분석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 모색

- 일시 : 2012년 8월 31일 (금) 13시 00분 ~ 17시 40분
- 장소 :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여러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육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부터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시작하였고, 2012년 현재 5차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패널은 각 시기 아동의 발달특성과 양육실태,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그리고 사회 및 국가정책의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하고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 연구 및 육아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를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아동패널은 2010년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작년에는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Heckmen 교수를 모시고 제2회 학술대회 및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구 논문을 공모하여 대규모로 진행하였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육아정책수립을 위한 중심 주제 영역 4가지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께 연구를 의뢰함으로써 소규모 세미나 형식의 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규모는 작아졌더라도 3차년도까지의 패널 데이터에서 도출된 정책적 아이디어들이 빛나는 내실 있는 논문 발표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웠던 여름 동안 연구실에서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를 준비해 주신 8분의 연구자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기꺼이 토론을 허락해주신 토론자분들과 좌장을 맡아주신 연구소의 두 실장님, 그리고 학술대회 개최를 책임지고 준비해 준 한국아동패널 연구팀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아동패널 제1회 학술대회에 좌장과 발표자로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께서 한국아동패널에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아동패널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아동발달과 육아지원에 관한 종단연구의 모범 틀을 제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한 성장과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학술대회가 뜻 깊은 토론과 발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영



프로그램

사회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3:00~13:20 ◆ 등록

13:20~13:30 ◆ 개회 및 인사말 이영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좌장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동향분석연구실장

13:30~14:30 ◆ 제1주제: 어머니 취업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14:30~15:30 ◆ 제2주제: 저소득가정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15:30~15:40 ◆ 휴식

좌장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15:40~16:40 ◆ 제3주제: 후속출산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16:40~17:40 ◆ 제4주제: 육아지원기관 이용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17:40~ ◆ 폐회 및 마무리

목 차

1부

제1주제: 어머니 취업

- ① 아동의 기질 및 환경적 지원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간접효과
 :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비교를 중심으로 3
 발표: 이미리(한국체육대 스포츠청소년학과 교수), 신유림(가톨릭대 아동학전공 교수)
 토론: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② 영아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탐색 25
 발표: 김진경(한국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 교수)
 토론: 김혜금(동남보건대 보육학과 교수)

제2주제: 저소득가정

- ① 저소득가정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 연구 .. 49
 발표: 강한나(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박사과정), 박혜원(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토론: 조성연(호서대 유아교육과 교수)
- ② 저소득 가정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환경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67
 발표: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2부

제3주 제: 후속출산

① 첫자녀를 둔 가구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93

발표: 정미라(가천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박수경(원광대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홍소영(춘천교대 교육학과 시간강사)

토론: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② 어머니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종단관계 연구: 후속출산 의도 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 집단 간의 비교 117

발표: 이영환(전북대 아동학과 교수)

토론: 정현숙(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제4주 제: 육아지원기관 이용

①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어머니의 특성 비교 137

발표: 이경옥(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토론: 김은영(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②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계획과 실제 이용간의 관계 165

발표: 안재진(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토론: 문혁준(가톨릭대 아동학전공 교수)



제 1 주제 어머니 취업

1. 아동의 기질 및 환경적 지원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간접효과: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이미리(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신유림(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토론: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영아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탐색

발표: 김진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토론: 김혜금(동남보건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아동의 기질 및 환경적 지원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간접효과 :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비교를 중심으로

Indirect Effects of Mother' Roles on the Relationships of Child Temperament and Environmental Supports with Child Development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이미리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신유림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관련 변인과 자녀의 발달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취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집단 간 비교 분석과 집단 내 양육관련 변인간의 직, 간접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표본 중 초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취업모 583명과 비취업모 1179명이다. 가구 월 소득과 부모의 학력 변인을 통제한 후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취업모의 남편 양육지원이 더 높고 양육 스트레스는 낮았다. 그러나 아동의 기질, 발달 수준,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양육행동 수준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었으며 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기질이나 남편의 양육지원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의사소통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매개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양육행동 질을 향상시켜서 아동 발달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를 아동발달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I. 문제제기

취업모가 수행하는 다중역할 중에서 취업모 자신이 가장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다(이수미, 이숙현, 2010). 취업모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대표적으로 수행하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취업모의 심리적 긴장이나 부적응과 관련된 주된 역할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며(이수미, 이숙현, 2010; 조경욱, 2004; Epstein, 1971), 이와 동시에 역할 수행에서 얻는 보상을 가장 많이 받는 역할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이었다(이수미, 이숙현, 2010). 특히 집중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 역할 수행은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Bornstein, 2002).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급증하여 1975년 44%에서 2009년 현재 53%에 달한다(통계청, 2009; 이수미, 이숙현, 2010, 재인용). 취업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모 가정과 비취업모 가정을 비교함으로써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자녀 양육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사회적, 정책적 지지가 요구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민정, 2006; 도미향, 2006; 문혁준, 2009; 방경숙, 2004; 이수미, 이숙현, 2010).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은 어머니와의 애착이나 신뢰감 형성이 중요한 발달 초기에 자녀와 분리 경험을 자주하게 되고 자녀와 상호작용의 기회를 적게 갖게 함으로써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관련 변인이나 자녀들의 발달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어머니의 취업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많은데 연구결과들 간 일관성이 적다.

양육관련 변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을 다루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데서 오는 어려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 또한 자녀의 행동특성상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Abidin, 1992; 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 2010, 재인용).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취업모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오는 역할 갈등과 과부하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비취업모에 비해 높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가하면(백영숙, 2007; Park & Liao, 2000),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자녀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모보다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손수민, 2012; 채선미, 강희선, 이한주, 신현숙, 1999). 또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결과들도 있다(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 2010; 방경숙, 2004).

양육행동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행동방식이나 보편적인 태도로 온정이나 애정, 통제, 방임 등의 차원에서 평가된다(김정희, 문혁준, 2006).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을

비교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중역할의 수행에서 오는 피로와 부담감으로 인해 취업모의 양육방법이 비취업모보다 더 지배적이고 거부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는가 하면(한종혜, 홍계옥, 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보다 더 긍정적이었다고 보고된 결과도 있다(방경숙, 2004). 또한 2세에서 7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자녀를 더 통제하고 동시에 더 관대하게 대한다고 하였다(정태연, 노현정, 2005). 양육행동의 전반적인 특성에 있어서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결과들도 있다(김정희, 문혁준, 2006).

아동의 발달이나 적응에 있어서 취업모와 비취업모 가정을 비교한 연구결과들도 일관성이 부족하다. 연구마다 선정된 아동발달 변인이 다양하다. 먼저, 만 5세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취업모의 아동이 비취업모 아동에 비해서 또래유능감 수준이 더 높았다(문혁준, 2009).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취업모 가정 자녀들의 정서적 안녕감은 척도의 평균점 이상으로 비교적 자신의 가정환경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한다(김민정, 2006). 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취업모 가정의 아동들은 정서적 안녕감 수준이 척도의 평균에 못 미친다고 보고하였다(도미향, 2006). 또한 유아의 기질에 있어서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비교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방경숙, 2004).

이와 같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을 비교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아동발달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들 간에 일관성이 부족한 이유로는 각 연구에서 선정된 변인들의 구성개념의 차이, 측정도구의 차이, 연구들 간 취업모와 비취업모 표본의 차이를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이나 아동발달에 대한 취업 여부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다른 주요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하거나 독립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취업모라도 취업모의 근무시간에 따라서 양육행동이 달랐는데, 주당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어머니들이 그 이상 일하는 어머니들 보다 영유아기 자녀들에게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이현정, 2009). 또한 취업모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 수준이 달랐는데 직업에 만족하는 어머니들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의 자녀 보다 운동, 사회, 인지 발달수준이 더 높았다(이현정, 2009). 이는 어머니 역할 수행의 수준이나 아동 발달수준의 차이가 단순히 취업여부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어머니 역할 수행과 자녀의 발달을 비교함으로써 어머니 취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변인에 영향을 주는 다른 주요 변인들의 효과를 고려하거나 통제해서 비교해야 하며 집단 비교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집단 내에서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이해해야 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어머니 취업

의 효과가 민감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변인들로는 앞에서 말한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행동, 아동의 발달 및 적응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과 의미 있게 관련된 변인들로는 아동의 기질과 배우자의 지지 혹은 사회적지지 변인들을 들 수 있다.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 뿐 아니라 아동발달 수준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또한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간 부조화가 클수록 어머니의 부모역할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다(김기현, 조복희, 2000; 임연신, 현온강, 2002; 한세영, 박성연, 1997). 또한 기질과 아동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4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 기질의 적응성, 활동성, 정서성 순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천희영, 1996). 또한 3-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질적으로 접근성, 적응성, 기분, 강도 등의 범주에서 분류된 양육 완만형과 곤란형 아동 중 곤란형 아동이 운동발달속도, 신체건강상태, 그리고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더욱 부정적이었다(홍성도, 1997). 유아가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융통성이 없고 주의집중을 못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갈등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임희수, 박성연, 2001). 또한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융통성 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 아동이 문제해결력 수준이 높았다(김현옥, 우남희, 2004).

배우자의 지지 및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 뿐 아니라 아동발달 수준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다. 남편의 지지는 어머니의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을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는데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경우 모두 그러하였다(김기원 외, 2010; 김기현, 조복희, 2000; 김정, 이지현, 2005; 전춘애, 박성연, 1996; 조경숙, 2004). 남편의 지지 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지지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했다(문혁준, 2004). 사회적 지지와 아동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나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수준이 높은 아동이 심리적, 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다(김경은, 2012; 이현송, 200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로 측정된 어머니의 역할수행은 아동의 기질이나 어머니가 받고 있는 배우자의 지지 및 사회적 지지 뿐 아니라 아동발달과 의미 있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아동의 기질이나 사회적 지지는 아동발달과 의미 있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해 볼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기질이나 사회적 지지가 아동발달과 갖는 관계에 대해 간접효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의 기질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간접효과를 보고한 연구를 예로 들면, 불안장애를 가진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 능력

의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어머니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양육행동을 하거나 통제적이며 침해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경우, 유아의 부정적인 기질이 역기능적인 정서조절을 유발하는 경향을 더 강화하였다(박진아, 정문자,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관련 변인과 자녀의 발달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취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집단 간 비교분석과 집단 내 이들 변인간의 직간접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인구학적 특성, 아동의 기질, 남편의 양육지원,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발달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2.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아동의 기질, 남편의 양육지원,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중 아동의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은 무엇인가?
3.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아동의 기질, 남편의 양육지원, 사회적 지지의 아동의 발달에 대한 영향을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가 매개 혹은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표본 중 초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1802명의 어머니들과 그들의 아동들이다. 전체 아동 중 남아는 917명(50.9%), 여아는 885명(49.1%)이었으며, 아동의 평균 연령은 25.75개월($SD=1.36$)이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5.26세($SD=3.98$),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2.78세($SD=3.66$)이었다. 취업모가 583명(32.35%), 비취업모가 1179명(67.65%)이다.

2. 측정방법

1) 아동발달

아동발달은 허계형, Squires, 이소영과 이준식(2006)의 K-ASQ에서 의사소통과 개인-사회성 발달의 2개 하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ASQ는 어머니가 보고하며 각 영역별 문항 수는 6개이고 각 문항에 ‘예’(10점), ‘가끔’(5점), ‘아니오’(0점)으로 점수화한다. 내적 합치도를 계산한 결과 의사소통의 Cronbach α 값은 .692, 개인사회성은 .644였다.

2) 기질

아동의 기질은 Buss와 Plomin(1984)가 개발한 EAS 기질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 보고용으로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의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성과 사회성의 2개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EAS는 5점 척도로 문항 수는 부정적 정서성 5개, 사회성 10개이다. 부정적 정서성의 Cronbach α 값은 .662, 사회성은 .644였다.

3)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행동 측정도구는 어머니의 온정성과 반응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에서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Bornstein, Tamis-LeMonda 외(1996)의 PSQ(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SQ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값은 .810이었다.

4)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 관련된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값은 .744이었다.

5) 남편의 양육지원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강희경(1998)과 홍성례(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기초로 제작하였다. 이 도구는 어머니 보고용이며 총 4문항으로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값은 .829이었다.

6)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와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과 정현숙(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제작되었다. 이 척도는 어머니 보고용이며 12개 문항의 5점 척도이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값은 .894이었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취업모 아동들의 경우 의사소통 발달은 사회성 기질, 아버지 양육지원, 양육행동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양육스트레스와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개인-사회성 발달은 사회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비취업모 아동의 분석결과를 보면 의사소통 발달은 사회성 기질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양육행동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개인-사회성 발달은 부정적 정서성 기질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성 기질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1. 의사소통발달		.293***	-.080**	.087**	.056	.023	.089**	-.055
2. 개인-사회성발달	.391***		-.080**	.103***	.015	.042	.076	-.051
3. 부정 정서성 기질	-.050	-.021		-.284***	-.069*	-.110***	-.225***	.331***
4. 사회성기질	.102*	.146***	-.232***		.089**	.193***	.222***	-.190***
5. 남편의 양육지원	.110**	.041	-.075	.041		.279***	.251***	-.199***
6. 사회적지지	.077	.065	-.157***	.065	.234***		.360***	-.252***
7. 양육행동	.189***	.040	-.161***	.040	.262***	.325***		-.455***
8. 양육스트레스	-.095*	-.043	.330***	-.043	-.237***	-.272***	-.446***	

주: 취업모의 상관관계계수는 대각선 아래, 비취업모는 대각선 위에 제시하였음.

* $p<.05$ ** $p<.01$ *** $p<.001$

2. 연구문제1: 취업모 및 비취업모의 아동발달 수준과 양육관련 변인의 차이

취업모 및 비취업모 간 월 평균 가구소득을 비교한 결과, 취업모 가정은 4,470,000 원, 비취업모 가정은 3,140,000원으로 취업모 가정의 수입이 더 많았으며 t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9.82$, $p<.001$).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취업모의 경우 고졸 이하는 23.0%, 전문대졸은 24.7%, 대졸 이상은 52.3%였다. 비취업모의 경우 고졸 이하는 33.1%, 전문대졸은 24.8%, 4년 대졸 이상은 42.1% 이었다. 카이 검증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0.66$, $p<.001$). 아버지의 최종 학력을 보면, 취업모의 경우 고졸 이하는 20.3%, 전문대졸은 18.8%, 대졸 이상은

60.9%였다. 취업모의 경우 고졸 이하는 25.7%, 전문대졸은 18.1%, 대졸 이상은 53.5%였다. 카이 검증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2.88$, $p<.01$).

취업모 및 비취업모의 아동발달 수준과 양육관련 변인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취업모 및 비취업모의 아동발달 수준과 양육관련 변인의 차이

측정변인	취업모($n = 583$)		비취업모($n = 1179$)		t
	M	SD	M	SD	
1. 의사소통 발달	8.78	2.37	8.53	2.51	2.05*
3. 개인-사회성 발달	7.89	3.70	8.09	3.56	-1.05
4. 부정정서성 기질	2.80	.60	2.86	.62	-1.97*
5. 사회성 기질	3.62	.52	3.57	.56	1.93
6. 남편의 양육지원	3.81	.84	3.67	.83	3.04**
7. 사회적 지지	3.88	.64	3.85	.62	1.13
8. 양육행동	3.74	.51	3.75	.51	-4.83
9. 양육스트레스	2.71	.60	2.83	.63	-3.80***

* $p<.05$ ** $p<.01$ *** $p<.001$

<표 2>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비취업모와 비교하여 취업모의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 수준이 더 높았으며, 남편의 양육지원의 정도가 더 높고 양육스트레스의 정도는 낮았다. 반면에 취업모 아동에 비교하여 비취업모 아동의 기질 중에서 부정적 정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COVA를 사용하여 가족의 월 평균 가구수입과 부모의 학력 변인을 통제한 후,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아동의 의사소통과 부정적 정서성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아버지 양육지원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t 검증 결과와 동일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연구문제2: 취업모 및 비취업모의 아동발달을 설명하는 주요변인

취업모 및 비취업모 집단별로 실시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3>과 <표 4>와 같다. SES 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월 평균 가구 소득과 부모의 학력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는 부정정서성 기질과 사회성 기질, 남편의 양육지원,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양육 스타일과 양육스트레스를 2단계에 투입하였다.

<표 3> 취업모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과 개인-사회성 발달에 대한 위계적회귀분석

종속변인	step	독립변인	β	ΔR^2	R^2
의사소통 발달	step1	월 평균 가구소득	.025		
		어머니 학력	.062	.003	.003
		아버지 학력	-.071		
	step2	부정정서성 기질	.030		
		사회성 기질	.045		
		남편의 양육지원	.041	.031**	.034**
		사회적 지지	.018		
		양육스트레스	-.036		
개인-사회성 발달	step1	양육행동	.169**		
		월 평균 가구소득	-.025		
		어머니 학력	.003	.011	.011
	step2	아버지 학력	.102		
		부정정서성 기질	.037		
		사회성 기질	.111*		
		남편의 양육지원	.022	.024*	.035*
		사회적 지지	.093		
	step1	양육스트레스	-.021		
		양육행동	-.083		

주: 위계적회귀분석의 최종 step에서 산출된 β 를 제시하였음.

* $p<.05$ ** $p<.01$ *** $p<.001$

<표 4> 비취업모 아동의 의사소통발달과 개인-사회성발달에 대한 위계적회귀분석

종속변인	step	독립변인	β	ΔR^2	R^2
의사소통 발달	step1	월 평균 가구소득	.020		
		어머니 학력	.023	.001	.001
		아버지 학력	-.007		
	step2	부정정서성 기질	.022		
		사회성 기질	.093**		
		남편의 양육지원	.033	.028***	.029***
		사회적 지지	-.014		
		양육스트레스	-.046		
개인-사회성 발달	step1	양육행동	.094**		
		월 평균 가구소득	.000		
		어머니 학력	.025	.001	.001
	step2	아버지 학력	-.044		
		부정정서성 기질	-.073*		
		사회성 기질	.033		
		남편의 양육지원	.035	.012	.013
		사회적 지지	-.028		
	step1	양육스트레스	-.021		
		양육행동	-.020		

주: 위계적회귀분석의 최종 step에서 산출된 β 를 제시하였음.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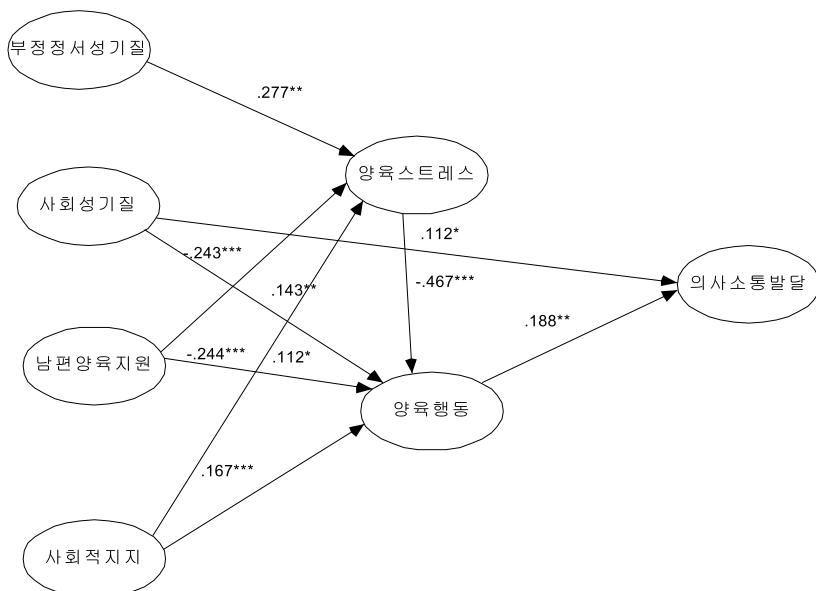
4. 연구문제3: 취업모 및 비취업모 아동발달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매개효과

취업모 및 비취업모의 아동발달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취업모 집단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발견되었다. 취업모 아동의 기질이나 남편의 양육지원 그리고 어머니가 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매개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의 아동발달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조절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비취업모 집단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과 개인-사회성 발달, 취업모 집단 아동의 개인-사회성 발달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취업모 아동의 기질, 남편의 양육지원, 사회적 지지의 아동 의사소통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매개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5>에 제시하였으며 매개모형의 분석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표 5> 취업모 모형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225.9	131	.000	.971	.978	.035



* $p<.05$ ** $p<.01$ *** $p<.001$

<그림 1> 취업모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매개효과 모형

모형 적합도 지수를 보면 $\chi^2 = 225.924$ ($df = 131$, $p < .001$), TLI = .971, CFI = .978, RMSEA = .035로 산출되어 모형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유의한 경로를 보면, 아동의 부정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아동의 사회성 기질이 의사소통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남편의 양육지원과 사회적 지지는 양육행동을 매개로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아동의 부정정서성 기질, 남편의 양육지원,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만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관련 변인과 자녀의 발달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취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집단 간 비교 분석과 집단 내 양육관련 변인간의 직, 간접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취업모 및 비취업모의 아동발달 수준과 양육관련 변인에서의 차이

취업모와 비취업 집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아동발달에서 의사소통 발달수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비취업모 아동과 비교하여 취업모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수준이 더 높았다. 아동패널 1차와 2차 data에서 제시된 의사소통 수준 점수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므로 급격한 언어발달이 일어나는 3차 시기인 25개월부터 취업모와 비취업모 아동의 언어발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어머니 취업여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배경변인에 기인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가정 월수입,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을 통제하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소득층 가정과 비교하여 중상류층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와 빈번하게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활동과 자극을 제공하며 언어발달을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Huston & Aronson, 2005). 아동패널의 비취업모 가정과 비교하여 취업모 가정의 경우 월수입이 더 많고 부모의 학력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는 취업유무보다는 사회경제적 수준에서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사회성 발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아동 집단 간 차이가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측정도구의 성격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어머니 취업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치우기 과제(clean-up task) 상황에서 아동의 순응/불순응 행동을 관찰하고, 어머니가 보고하는 사회적 유능감 척도 및 문제행동척도를 적용하여 사회성 발달을 다면적인 측면에서 측정하였다(Huston & Aronson, 2005). 본 연구에서 개인-사회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K-ASQ는 해당 연령의 전체 유아들 중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발견하는 발달선별검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총점으로 계산된 개인-사회성 발달점수가 아동들 사이의 개인 차이를 민감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비교한 Nomaguchi(2006)의 연구에서는 24개월에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4세에는 두 집단의 차이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이 25개월임을 고려해볼 때,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적 영향력은 현 시점에서 보다는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동의 기질에서 차이를 보면, 취업모와 비교하여 비취업모의 아동의 부정적 정서 기질의 수준이 더 높았으나 부모의 학력과 월수입을 통제한 후에는 두 집단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취업유무 보다는 두 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의 양육 지원은 비취업모와 비교하여 취업모의 경우가 더 높았으며, 월수입 및 부모의 학력을 통제한 후에도 집단 간 차이가 유지되었다. 자녀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은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기본 조건(Huston & Aronson, 2005)이다. 본 연구에서 남편의 주중 및 주말 양육참여시간을 추가 분석해 본 결과에서도 비취업모 가정과 비교하여 취업모 가정의 남편은 주중 및 주말 모두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하여 부부간 자녀 양육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 양육행동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적게 받고 있었다. 월수입과 부모의 학력을 통제한 후에도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비취업모에 비해 낮았다. 취업모와 비교하여 비취업모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협조의 정도가 낮고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더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취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자는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취업모는 자녀와의 오랜 시간의 격리로 인하여 자녀와 상호작용 시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고 반응적인 태도를 보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애착발달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Belsky, 1988). 또한 역할긴장시각(role strain perspective)에서 볼 때, 취업모는 자녀양육과 직장 일이라는 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 가정에서 자녀와 애정적 상호작용

을 하기 어렵다(Crouter, Bumpus, Maquire, & Machale, 1999). 반면에 역할강화시각(role enhancement perspectives)에서 보면 취업모는 자녀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활동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질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Marks, Huston, Johnson, & MacDermid, 2001).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취업모의 역할강화 견해를 지지해준다.

Barnett, Marshall와 Saver(1992)는 취업모가 자신의 일을 도전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직장생활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확산(positive spillover)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 대상 취업모의 직업 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율이 30.5%로 가장 높았으며, 사무종사자 24.0%와 관리자 2.4%를 포함해서 56.9%가 화이트칼라 직업군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취업모 중 24.0%(143명)의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응답자만을 다시 분석하면 화이트칼라 직업군의 비율은 81.8%로 상당히 높았다. 또한 취업모가 보고한 직업 만족도의 평균은 3.26(5점 척도)으로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직업에 관련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 대상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이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취업모와 비취업모 아동발달에 대한 아동 기질 및 양육관련 변인의 영향력

취업모와 비취업모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취업모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을 제외하고, 두 집단 모두 아동의 기질이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사회성 정도가 높고 부정적 정서성 정도가 낮은 기질의 아동은 어머니 및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즐기며 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게 되므로 이는 아동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에 필수적인 환경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Usai, Garello, & Vilerbori, 2009).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일방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기보다 자신의 기질특성에 의해 주변으로부터 반응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자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취업모와 비취업모 아동발달에 대한 양육관련 변인의 간접효과

아동의 기질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남편의 양육지원,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를 조절변인(moderator)으로 설정하고 기질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취업모 및 비취업모 집단 모두에서 이러한 변인들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25개

월 시기의 언어발달 및 사회성 발달은 양육관련 변인에 의해 기질의 영향력이 조절되며 기질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25개월은 감각운동기를 지나서 전조작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아동의 인지, 언어 및 사회성발달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앞으로 취업모 및 비취업모 아동의 발달에 대한 기질 및 환경 변인들의 누적된 영향이 어느 시기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양육관련 변인들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효과의 유무를 살펴보았다. 아동발달에 대한 매개모형 분석결과, 취업모 아동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 기질, 남편의 양육지원,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서성 기질, 남편의 양육지원,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통해서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24개월은 언어능력에서 개인 및 계층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기이며, 유치원 입학 전까지 어휘력에서 이러한 개인차가 관찰된다(Hart & Risley, 1995). 이 시기의 언어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주변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Koenig, Clement, & Harris, 2004). 또한 24개월에 측정된 언어 능력은 이후 자기조절의 발달 궤적을 예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Atoub, Vollottonm & Mastereorge, 2011). 이 시기에 언어발달이 이러한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미치는 주요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모 아동의 발달적 중재를 위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발달초기 부정적 정서성은 기질의 핵심요소이며(Rothbart & Bates, 1998),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기질적인 특성이다. 부정적 정서성은 유전적인 특성이나 발달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특히 부모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린 시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부분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Rothbart & Bates, 1998).

부정적 정서성의 발달에 대한 종단 연구를 보면, 첫 2년 동안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 효능감은 감소하였으며(Bridgett et al., 2009), 9개월에서 27개월 사이 부정적 정서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행동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Lipscomb et al., 2011). 이러한 발달적 경향을 볼 때, 연구 대상 아동들의 연령인 25개월은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고, 발달적으로 '미운 2살(terrible twos)'로 명명되는 시이다. 특히 부정적 정서성은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함께 이후 아동의 문제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다(Engle & McElwain, 2010). 따라서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높은 아동들의 경우 더욱 세심하고 민감한 양육이 요구되며 이러한 자녀

를 둔 어머니를 위한 효율적인 양육의 지원이 필요하다.

취업모 및 비취업 아동 모두 개인사회성 발달경로에 대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Lugo-Gil과 Tamis-LeMonda(2008)는 종단 연구에서 양육의 질과 가족 자원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적해본 결과, 특정 시점의 변인들이 현재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였으나 이후 발달과정에서 이전 시기의 양육 질과 가족 자원의 영향력이 36개월에 나타나는 발달의 누적 모델(cumulative model)을 제시하였다. 사회성 발달에서 볼 때 25개월은 발달적으로 아직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아니므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즐기고 사회적 놀이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6개월 이후에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변인들의 누적된 영향력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육아정책 입안이나 집행 혹은 효과 검증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 아동과 비취업모 아동의 언어발달이 아동패널 1차와 2차 data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고 3차 시기인 25개월부터 차이가 나타난 점은 아동발달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적어도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시작되는 2세 이후가 정책적 개입의 효과적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혹은 아동 발달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누적적 효과는 2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자녀의 의사소통 발달 수준이 높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기질 수준이 낮고, 남편의 양육적 지원 수준이 높고 본인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점은 어머니 역할 수행에 있어서 취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적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특성의 효과를 고려해보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이러한 특성간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아동 양육을 위한 정책적 개입은 취업 여부를 고려하기 보다는 가구 월 소득, 부모의 학력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남편의 양육 지원은 취업모와 비교하여 비취업모의 경우가 더 낮았으며, 월수입 및 부모의 학력을 통제한 후에도 집단 간 차이가 유지되었다. 남편의 양육 지원은 취업모의 경우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 양육행동을 강화해서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변인이다. 따라서 취업모 뿐 아니라 비취업모 가정을 대상으로 남편의 양육적 지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모를 대상으로 해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남편의 양육적 지원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던 사회적지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를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를 경감시키고 양육행동의 질을 향상시켜서 이를 통하여 아동발달에 기여하고 있는지 정책의 효과를 발달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취업모 및 비취업 아동 모두 개인-사회성 발달경로에 대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환경적 지지와 양육행동의 효과는 36개월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선행 종단연구에서(Lugo-Gil & Tamis-LeMonda, 2008) 이전 시기의 양육의 질과 가족 자원이 이후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36개월에 나타나는 발달의 누적 모델(cumulative model)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영유아 발달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효과를 측정하는 시기를 아동의 연령 36개월 이후로 하는 것이 좋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형 검증을 위해 사용된 내생변인인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과 개인-사회성 발달 구조 변수의 집중타당성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의사소통 발달과 개인-사회성 발달을 측정하는 각 6개씩의 문항을 측정변수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요인 부하량이 .5이하인 문항을 제외하고 의사소통 발달은 3개 문항, 개인-사회성 발달은 2개 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아동발달 측정 도구인 K-ASQ는 ‘예’(10점), ‘가끔(5점)’, ‘아니오(0점)’으로 점수화하게 되어 있어서 척도의 성격상 점수 분포가 정상분포를 이루기 어렵다. 이런 점이 집중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에 관련된 변인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일 방향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Lugo-Gil과 Tamis-LeMonda(2008)의 연구결과를 보면 Bayley 검사로 측정된 운동발달지수가 어머니 양육행동에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발달적 수준에 반응하여 어머니도 자신의 양육행동을 조절, 변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발달에서 어머니의 일방적인 영향을 받기 보다는 특정한 양육행동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발달과 부모의 양육행동의 상호적인 관계를 입증해보는 추후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아기의 가정환경 변인, 이를테면 가정의 물리적 자국 수준,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수준 등을 나타내는 변인들은 아동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이러한 가정환경에서의 차이와 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 김경은(2012). 저소득층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및 부모참여와 유아의 인지발달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9, 1, 1-17.
- 김기원·도현심·김상원·이선희(2010).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관련 특성, 배우자의지지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1(5), 101-113.
- 김기현·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정·이지현(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 김정희·문혁준(2006).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1), 115-129.
- 김현옥·우남희(2004). 아동의 기질과 대안적 문제 해결사고 전략의 발달과 그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2), 1-18.
- 도미향(2006). 맞벌이 가족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3), 77-92.
- 김혜원(1997).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사회구조적 변인, 성역할태도, 역할의 질은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11-127.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 문혁준(2009).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어머니의 취업 유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0(2), 57-69.
- 박성연·임미리(2002). 취업모의 직업관련 특성, 탁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57-68.
- 박진아·정문자(2007).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73-295.
- 방경숙(2004).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태도, 양육부담감 및 학령전기 자녀의 기질과 건강관련 변인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10(2), 217-224.
- 백영숙(2007).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수민(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비교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이수미·이숙현(2010). 취업모의 다중역할의 질과 심리적 건강.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67-90.
- 이재림·옥선희(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 생활민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 이현송(2008). 빈곤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사회복지학생연구* 논총, 1, 104-161.
- 이현정(2009). 취업모의 직업 특성이 양육행동과 영유아의 운동, 사회,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3), 1-21.
- 임연신·현온강(200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1), 23-37.
- 임희수·박성연(2001).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전춘애·박성연(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37(3), 95-105.
- 정태연·노현정(2005).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10(2), 211-232.
- 조경숙(2004). 취업모의 근무환경, 보육서비스, 남편의 지지도가 양육역할긴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9(2), 161-178.
- 조병은·서동인·신화용·정현숙(1998).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 13-21.
- 채선미·강희선·이한주·신현숙(1999). 배우자 지지가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2), 187-195.
- 천희영(1996). 아동의 기질과 맥락 적응의 관계 II: 아동의 기질적합성과 어머니의 기질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아동연구*, 5, 9-25.
- 통계청(2009b). 지역별고용조사. 시도 및 전국.
- 한세영·박성연(1997).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 한종혜·홍계옥(2000). 어머니의 자기지각과 양육행동.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1), 85-111.
- 허계형·Squires, J.·이소영·이준식(2006). K-ASQ(한국형 Ages & Stage Questionnaires). 부모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 서울: 서울장애인복지관
- 홍성도(1997). 기질과 가정환경 및 발달사이의 관계에 관한 예비연구. *소아청소년정신 의학*, 8(1), 50-56.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 Ayoub, C., Vollotton, C. D., & Mastergeorge, A. M. (2011). Developmental

- pathways to intergrated social skills: The roles of parenting and early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82(2), 583-600.
- Barnett, R. C., Marshall, N. L., & Saver, A. (1992). Positive-spillover effects from job to home: A closer look. *Women and Health*, 19, 13-41.
- Belsky, J. (1988).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35-272.
- Bornstein, M. H. (2002). Parenting infant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2nd ed., pp. 3-44). Mahwah, NJ: Earlbaum.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Alerin, C. Z., & Pecheus,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ridgett, D. J., Gartstein, M. A., & Putnam, S. P., et al., (2009). Maternal and contextual influence and the effect of temperament development during infancy and parenting in toddlerhood.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2, 103-116.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Y: Erlbaum.
- Crouter, A. C., Bumpus, M. F., Maquire, M. C., & McHale, S. M. (1999). Linking parents' work pressure and adolescents'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453-1461.
- Engle, J. M., & McElwain, N. L. (2010). Parental reactions toddlers' negative emotions and child negative emotionality as correlates of problem behavior at the age three. *Social Development*, 20(2), 251-271.
- Epstein, C. (1971). Law partner and marital partner: Strains and solutions in the dual career family enterprise. *Human Relations*, 24, 549-564.
- Hart, B., & Risley, T.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s of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Paul H. Brooks.
- Huston, A. C., & Aronson, S. R. (2005). Mothers' time with infant and time in employment as predictors of mot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arl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6(2), 467-482.
- Koenig, M. A., Clement, F., & Harris, P. L. (2004). Trust in testimony: Children's use of true and false statements. *Psychological Science*, 15, 694-698.

- Lipscomb, S. T., Leve, L. D., Harold, G. T., Neiderhiser, J. M., Shaw, D. S., & Ge, X. (2011). Trajectories of parenting and child negative emotionality during infancy and toddlerhood: A Longitudi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82(5), 1161–1675.
- Lugo-Gil, J., & Tamis-LeMonda, C. S. (2008). Family resources and parenting quality: Links to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al across the first 3 years. *Child Development*, 79(4), 1065–1085.
- Marks, S. R., Huston, T. L., Johnson, E. M. & MacDermid, S. M. (2001). Role balance among white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1083–1098.
- Nomaguchi, K. M. (2006). Maternal employment, nonparental care, mother-child interactions, and child outcomes during preschool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1341–1369.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pp. 106–176). New York: Wiley.
- Usai, M. C., Garello, V., & Vilerbori, P. (2009). Temperamental profiles and linguistic developmen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2, 322–330.

“아동의 기질 및 환경적 지원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간접효과”에 대한 토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봉주

본 논문의 장점은 실증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머니 취업이 아동발달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어머니 취업 효과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돼왔다. 하지만, 어머니 취업 효과에 대한 결과는 일관적이지 못해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분야다. 그런 의미에서 실증 데이터를 사용해 이 문제를 국내적인 상황에서 검토한 본 논문은 의미 있는 논문이다. 특히, 단순 집단비교를 넘어 다양한 통제변수를 활용하고 집단 내 분석까지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본 논문의 가장 중요한 단점은 하나의 논문에서 너무 여러 가지를 다루다보니 초점을 잡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문제의 설정에서 이론적 배경, 기존 연구의 검토, 그리고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인 연구라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종속변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아동발달,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스트레스 등 너무 여러 가지를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 간 비교를 하고 있어 초점을 잡기가 어렵다. 토론자의 견해로는 결국 연구자가 가장 관심이 있는 독립변수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이고 궁극적인 종속변수는 아동발달이다. 나머지 변수들은 통제 내지는 매개효과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머지 변수들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관심도 결국은 그런 차이가 아동발달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 (1)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다른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아기 아동의 의사소통과 개인-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어머니의 취업이 유아기 아동의 의사소통과 개인-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요인들이 매개하는가?

- (3) 유아기 아동의 의사소통과 개인-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 간에 어떻게 다른가?
2. 첫 번째 제언과 관련해서, 현재 논문에서 집단 간 비교결과는(회귀분석 비교) 연구 결과에 빠져 있는데 논의 및 결론 부분에서는 상세히 보고하고 있어, 중간에 연구의 초점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준다.
3. 현재 논문에서는 아동의 기질, 남편의 양육지원, 사회적 지지와 아동발달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모형을 찾기 힘들다.
4. 다음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1) 아동발달의 측정도구로 왜 의사소통과 개인-사회성 발달 2개 하위 척도만 사용하였는지? 아동발달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그렇다면 연구의 제목도 의사소통 및 개인-사회성 발달이라고 적시할 필요가 있다.
 - (2) 아동의 기질도 왜 2개 하위척도만 사용하였는지?
 - (3) <표 2>는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 (4) 월 평균 가구소득과 학력은 어떻게 측정된 것인지? 가구소득은 보통 정규성 분포를 가정하기 힘들어 log를 취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냥 소득액을 변수로 쓴 것인가? 그렇다면 직선효과를 검증하고 있는데, 보통 소득은 직선효과를 가정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5) 분석결과 부분의 연구문제 3에서 조절효과를 언급하고 있는데 조절효과는 그 전에 이론적 검토나 연구모형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 (6) 매개효과 모형은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경로분석? SEM?
 - (7) <그림 1>의 매개모형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남편 양육지원과 양육행동의 관계는?
 - (8) 17쪽 마지막 단락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아동 언어발달 차이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면 사라지는 것인데도 정책적 개입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
 - (9) 18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넷째 정책적 시사점은 본 연구의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영아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탐색

The Home Environment Exploration according to the
Employment of Infancy Mothe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진경

이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환경의 제반여건이나 심리적,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결국 어떤 요인들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살펴보았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변인을 분석한 결과, 먼저 양육환경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며 남편의 양육 협조를 받지 못했으며, 더 많은 시간 자녀와 상호작용하였으며(주중), 주말에 남편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아 상대적으로 적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 개인 변인을 분석한 결과,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이 비취업모에 비해 높은 편인 반면,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우울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 항목에서 취업모인 경우, ‘높은 사회적 지위’, ‘남을 기꺼이 도움’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 개인 변인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이 아내가 취업한 경우에 높았다.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 수준이 유의하게 더욱 높았다. 또한,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변인을 살펴본 결과, 비취업모가 자신의 자녀가 좀 더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까다로운 편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달 상태에 있어서는 정상발달 범주에 포함되는 비율이 취업모가 더 높았다. 둘째, 부인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남편의 양육협조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취업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인의 최종학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I. 서론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하고, 교육 및 주거비용 등 가계지출이 증가하면서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통계청(2009)의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견해는 83.8%로 압도적이었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이로 인한 가족생활주기와 가족기능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기혼 여성의 취업으로 점차 성역할에 있어 유동성과 가변성이 요구되고, 부부간의 역할공유나 평등한 부부관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제정된 이후 많은 여성들이 직장인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의 남성의 의식구조는 여전히 남성중심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성은 직장과 가사일, 자녀양육의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모인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가사노동 및 육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역할 과부담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Ross & Mirowsky, 1988). 특히 자녀출산으로 부부 중심에서 부모자녀관계 중심으로 바뀌는 부모전환기에, 여성은 다역할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육아 및 가사노동 부담의 문제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조홍식 외, 2006). 더욱이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며 어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시기는 생애주기상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출산·육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3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가 30대 후반에 재진입하는 M자형 모형이다. 6세 미만 자녀의 유무, 기혼여성의 연령, 가구소득 등이 중요한 변수로 기혼 여성취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6세 미만 자녀의 양육부담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상당히 커서 17.5% 정도의 취업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재열, 1996).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육아기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주원인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서 이인생계부양자·이인양육자 모델로 변화하는데 요구되는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계청(2009)의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32.5%가 출산·양육기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남편들이 이인생계부양자 모델은 수용하면서, 이인양육자 모델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은 가중되고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와 유사한 성별분업적 역할규범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상당기간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반면, 서구 유럽에서도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

및 노동 정책의 시행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Boca & Wetzels, 2007).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양성평등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라는 인식을 갖고, 파파쿼터제, 맞벌이 부부형 출산정책 등 가정생활과 직장에서 양성평등 모델을 지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성공하였다. 미국의 경우, 남편들의 가사와 양육참여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Fuwa, 2004; Sayer, 2005), 기혼취업여성의 상대적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담당하는 가사노동량은 감소하는 반면, 남편의 가사노동량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Bittman, England, Sayer, Folbre & Mathson, 2003; Greenstein, 2000). 최근 유럽연합(EU)은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육아휴직지침’개정 원칙에 합의하였다. 개정되는 지침은 현재 최단 3개월인 육아휴직 기간을 최단 4개월로 1개월 늘리는 한편, 늘어나는 휴직기간을 부모 중 한명이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휴직기간 양도를 허용할 경우 남편이 조기복직하고 대신 아내의 휴직기간을 늘려주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결국 남녀가 평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연합뉴스, 2009.12.1). 결국 가정 내에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변화와 적극적 참여가 이뤄져야 양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로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집한 여성가족패널을 분석한 연구는 50~54세 여성이 첫 출산을 전후해서 취업상태를 계속 유지한 비중은 8.7%였는데 비해, 30~39 세 여성이 첫 출산을 전후해서 취업상태를 계속 유지한 비중은 18.1%였다(민무숙 외,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모색을 통해 적절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자녀양육기, 특히 자녀가 영아기에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와 취업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환경은 어떠한지 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핵가족으로 가족형태가 변화되면서 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축소되어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증가하고 있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져서 그 어느 때보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결혼이나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보다 많은 영유아기 아동들이 부모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되면서,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 및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국 가구 패널 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를 사용한 Ermisch(2001)는 어머니의 취업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감소시킴을 가정하면서 아동이 0~5세였을 때 어머니의 전일제 취업이 아동의 교육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이 역할갈등이나 우

울 뿐 아니라 부모역할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Abidin, 1992; Spurlock, 1994).

반면 여성의 취업상태가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 및 여성의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Hashimi, Khurshid & Hassan, 2007). Horisch(2008)는 독일사회경제패널(German Socioeconomic Panel)을 바탕으로 독일 사회에서 부모의 취업이 자녀의 교육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는데, 부모의 취업이 자녀의 교육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서구의 연구들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자녀양육시간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양자의 차이도 직접적인 돌봄 시간보다 간접적인 돌봄 노동 시간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취업모는 자기 자신의 여가 시간을 줄임으로써, 취업의 부정적인 시간 효과를 상쇄한다는 연구도 있다. 호주의 취업모는 잠이나 TV 시청 시간을 줄여서 부족한 자녀 돌봄 시간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취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aig, 2007). 또한,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우울정도가 더 높거나(Hashimi, Khurshid & Hassan, 2007),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윤지원, 황라일, 조현하, 2009). 이렇듯 선행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취업상태가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단순히 아동의 발달 및 부부관계 등에 일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가족안의 역학구조, 그 외의 사회적 지원 등 좀 더 광범위한 맥락 안에서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양육환경, 어머니와 아버지 개인적 변인, 아동변인으로 구분하여 모색하였다.

자녀를 돌보는 일은 부모로 하여금 대단치 않은 일상적인 따분함, 당황, 짜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출산·육아기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정상적인 생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역할부담으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낮을 가능성성이 높다. 비취업모 역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가사활동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부의 활동은 비교적 비구조적이고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그 역할에서 오는 보상이 적다고 느끼며 가사일에 따른 끊임없는 육체적 노동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욕구불만과 좌절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자녀출생과 양육이 이뤄지는 부모전환기에 부모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낮은 시점이 될 수 있다. 그간 부모기를 경험하는 기혼여성의 취업상태와 신체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취업 여성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스트레스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환경의 제반여건이나 심리적,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결국 어떤 요인들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역할 부담과 역할 혼란을 경험하는 자녀 양육기, 특히 자녀가 영아기 동안에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가족의 역학구조를 살펴보고, 이들이 경험하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취업여부에 따른 맞춤형 가족지원 정책 및 제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변인은 차이가 있는가?

- 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환경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 각각의 개인적 변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 변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 1)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 2)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모집단은 2008년에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제주도 제외)이며 표본은 2008년 4월부터 7월 중에 전국에서 표집된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2,078명의 신생아 가구이다. 2008년에는 1차년도 일반조사를 시작하여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을 구축하였다. 2009년도에는 2차년도 일반조사는 총 1,904명의 패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2010년도에 조사한 3차년도 조사 중 취업모 585명, 비취업모 11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조사의 경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와 아동에 대한 발달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설문조사는 질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한다. 가구방문 면접조사는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이하 CAPI)

방식으로 조사 대상 아동의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 주 양육자에 해당하는 어머니 외의 다른 성인 가구원이 응답할 수 있으나, 대상 아동과 동일 가구 거주자이더라도 비혈연 관계(예: 유급 비혈연 육아 도우미 등)인 가구원은 응답자에서 제외된다. 우편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에 앞서 각 가구에 우편 발송한 후 조사 원이 면접조사를 위해 각 가구를 방문할 때 취합하는 유치조사 방식을 활용한다. 두 가지 연구방법을 기본으로 조사 대상 또는 조사 변인 등에 따라 전화조사 등을 병행한다. 대상 아동의 발달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는 가구방문 시 면접조사와 함께 실시한다.

2. 연구도구

한국아동패널은 Bronfenbrenner(1979, 1989)의 생태학이론과 Elder(1998, 2006)의 생애이론을 이론적인 틀로 삼아, 발달하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유목화 하여 조사 영역을 조직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환경 변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개인적·심리적 변인, 아동변인으로 구성하여 이에 해당하는 조사내용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표 1> 연구도구 문항

변인	변수	변수내용
양육환경 변인	양육실제(부인)	6문항
	양육스트레스(부인)	10문항
	남편의 양육협조	4문항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	주관식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	주관식
	사회적 지원	12문항
	대리양육여부	함/하지않음
부모 개인 변인 (어머니, 아버지)	자아존중감	10문항
	부적인 자기효능감	4문항
	우울감	6문항
	부부갈등	8문항
	결혼만족도	4문항
아동 변인	자녀에 대한 가치 (정서적, 도구적)	3/4문항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 (돈, 지위, 타인도움, 행복한 가정)	각 1문항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5/5/10문항
	발달	정상발달/의심스런발달

주: 자아존중감, 부적인 자기효능감, 우울감은 어머니만 조사한 변인임.

3. 조사 분석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t*-검증과 카이스퀘어를 이용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변인 분석

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환경 분석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환경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남편의 양육협조,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주중),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주말), 대리양육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주중에 더 많았다. 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는 전업주부인 경우, 자녀가 어린 영유아기 일 때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에 비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환경

양육환경 변인	취업모(N=585)		<i>t</i>
	<i>M</i> (<i>SD</i>)	<i>M</i> (<i>SD</i>)	
양육실제(부인)	34.11(4.61)	34.12(4.60)	-.04
양육스트레스(부인)	29.73(6.65)	31.18(6.99)	-4.22***
남편의 양육협조	15.22(3.38)	14.70(3.36)	3.05**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			
주중	17.43	34.40	-17.60***
주말	15.02	15.02	-.01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			
주중	6.94(7.10)	6.84(6.38)	.28
주말	8.83(5.85)	7.72(5.91)	3.77***
사회적 지원	46.61(7.76)	46.19(7.50)	1.07
	<i>n</i> (%)	<i>n</i> (%)	χ^2
대리양육여부	534(89)	423(35.4)	461.82***

** $p < .01$ *** $p < .001$

반면, 남편의 양육협조는 취업모일 경우가 비취업모일 때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양육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지원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와 함께,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에 있어서 주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의 남편이 주말에 자녀와 상호작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주말에 남편은 취업모에게 물리적, 심리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비취업모들은 주말에도 남편에게 육아도움을 받는데 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리양육여부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인 경우 부모가 아닌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욱 높았다.

2)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 개인 변인 분석

(1)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변인 분석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비취업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우울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3>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변인

	취업모(N=585)	비취업모(N=1180)	<i>t</i>
	<i>M(SD)</i>	<i>M(SD)</i>	
자아존중감	30.61(3.98)	29.44(4.10)	5.78***
부적인 자기효능감	9.23(2.82)	9.30(2.90)	- .50
우울감	11.49(4.15)	12.01(4.22)	-2.47*
부부갈등(부인)	16.92(6.17)	16.59(6.15)	1.05
결혼만족도(부인)	15.36(3.22)	15.39(3.01)	- .18

p*<.05 **p*<.001

(2)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분석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해본 결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두는 것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모두 비취업모가 조금씩 점수가 높았다. 한편,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에 있어서 높은 사회적 지위와 남을 기꺼이 도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기대하는데 있어서, 비취업모보다는 취업모의 기대수준이 더 높았다. 남을 기꺼이

도움 항목에서도 취업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 높았다.

<표 4>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취업모(N=585)	비취업모(N=1180)	<i>t</i>
	<i>M(SD)</i>	<i>M(SD)</i>	
자녀에 대한 가치			
정서적 가치	12.85(1.76)	12.88(1.72)	- .31
도구적 가치	11.53(3.09)	11.70(3.02)	-1.09
	<i>n</i> (%)	<i>n</i> (%)	χ^2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			
돈	542(92.8)	1084(91.9)	1.50
높은 사회적 지위	406(69.1)	745(63.1)	5.85*
남을 기꺼이 도움	543(93.0)	1041(88.2)	10.15**
행복한 가정	583(99.7)	1171(99.2)	1.52

p*<.05 *p*<.01

3)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 개인 변인 분석

(1)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 개인의 심리적 변인 분석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 개인의 심리적 변인을 분석해본 결과,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 남편은 부부갈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 개인의 심리적 변인

	취업모(N=585)	비취업모(N=1127)	<i>t</i>
	<i>M(SD)</i>	<i>M(SD)</i>	
부부갈등(남편)	17.20(6.22)	16.30(5.79)	2.80**
결혼만족도(남편)	16.74(2.89)	16.85(2.89)	-.71

***p*<.01

(2)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분석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자녀에 대한 가치 중 정서적 가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취업모의 경우, 남편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더 높았다. 정서적 가치에 대한 항목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

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이다.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남편이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높게 두는 경향을 보였다.

<표 6>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분석

	취업모(N=585)	비취업모(N=1127)	t
	M(SD)	M(SD)	
자녀에 대한 가치			
정서적 가치	13.21(1.72)	13.39(1.68)	-1.98*
도구적 가치	13.19(3.12)	13.38(3.10)	-1.16
	n(%)	n(%)	χ^2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			
돈	484(87.2)	997(88.5)	1.10
높은 사회적 지위	371(67.0)	730(64.9)	.83
남을 기꺼이 도움	508(91.4)	1005(89.4)	2.03
행복한 가정	549(98.7)	1115(98.9)	.172

* $p<.05$

4)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 변인 분석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변인을 분석한 결과, 기질 중 정서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모가 지각한 아동의 정서성보다 비취업모가 지각한 아동의 정서성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출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와 비취업간 아동의 발달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의 경우, 정상발달 범주에 포함되는 비율이 비취업모에 비해 더 높았다.

<표 7>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 변인

	취업모(N=585)	비취업모(N=1180)	t
	M(SD)	M(SD)	
기질			
정서성	14.00(3.00)	14.33(3.10)	-2.10*
사회성	32.31(2.66)	32.53(2.57)	-1.61
활동성	19.61(2.85)	19.47(3.00)	.99
	n(%)	n(%)	χ^2
발달(Denver)			
정상 발달	534(91.6)	1044(88.4)	
의심스런 발달	49(8.4)	136(11.6)	4.83 ⁺

+ $p<.1$ * $p<.05$

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를 결혼만족도로 하며, 독립변수를 다음 <표 8>과 같이 설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독립변수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적 지원, 대리양육여부, 월 평균 소득(종합), 가구 총 지출, 남편연령, 남편최종학력, 부인연령, 부인최종학력
남편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일주일 총 근로시간, 양육협조, 자녀와의 상호작용시간(주중, 주말), 남편의 결혼만족도, 자녀에 대한 가치(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
(2) 부모 변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부인 양육실제, 양육스트레스, 자녀와의 상호작용시간(주중, 주말), 자녀에 대한 가치(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
(3) 아동 변인	기질(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발달(정상, 의심)
(4) 직장 변인(취업모)	어머니 일자리 만족도, 주당 일자리 총 근로시간

1)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분석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부인), 남편의 양육협조, 결혼만족도(남편), 양육실제(부인)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남편의 양육협조가 많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양육실제가 긍정적일수록 부인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모델 I Beta	모델 II Beta	모델III Beta	모델IV Beta
부부갈등(부인)	-.59***	-.48***	-.43***	-.43***
남편의 양육협조		.30***	.28***	.27***
결혼만족도(남편)			.13***	.12***
양육실제(부인)				.06*
Adj R^2	.34	.42	.43	.44
ΔR^2		.07	.01	.01
F	432.85***	105.18***	21.84***	4.09*

* $p<.05$ ** $p<.01$ *** $p<.001$

고무적인 점은 취업모에 대한 분석과 비교했을 때, 부인의 양육실제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비취업모의 경우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긍정적인 양육스타일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이것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비취업모에게는 양육실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실제적인 양육스킬을 가르치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부갈등(부인), 남편의 양육협조, 도구적가치(부인), 결혼만족도(남편), 최종학력(부인)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남편의 양육협조가 많을수록, 부인이 자녀에 대해 도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비취업모에 대한 분석과 비교해보면, 부인이 자녀에 대해 도구적 가치를 지닐수록, 또한 부인의 최종학력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일생에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 부여가 취업모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고충을 극복하는 기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취업모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전문직일수록 직장에서 느끼는 보람으로 심리적 고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겠다.

전체적으로 취업한 여성의 경우 직장관련변인을 포함하여 결혼만족도의 변량을 33.75% 설명하고, 비취업모의 경우 모든 변인이 결혼만족도를 33.62% 설명하고 있어 취업한 여성의 경우 직장관련이 변인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비취업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변량과 비슷하여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직장관련 변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0>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모델 I Beta	모델 II Beta	모델III Beta	모델IV Beta
부부갈등(부인)	-.60***	-.48***	-.46***	-.42***
남편의 양육협조		.31***	.31***	.29***
도구적가치(부인)			.14***	.13**
결혼만족도(남편)				.13**
최종학력(부인)				
Adj R^2	.36	.44	.46	.47
ΔR^2		.08	.02	.01
F	195.78***	51.41***	12.78***	8.94**

** $p < .01$ *** $p < .001$

IV. 결론 및 논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변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양육환경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남편의 양육협조,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주중),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주말), 대리양육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는 대리양육을 하지 않는 경향이 높으며,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남편의 양육협조 수준이 낮았다. 또한 주말에 남편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취업모에 비해 적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자녀 육아와 가사에 시달리며 가정 안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취업모의 경우 남편의 양육협조가 적어서 양육스트레스 상황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비교적 남편의 양육협조를 더 받으며, 비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 남편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에 있어서, 취업모는 주중에는 비취업모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육아와 가사의 일차적 책임자는 부인이며, 평일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남편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현 상황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또한,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를 돌보는 직접적인 시간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Craig & Bittman, 2008)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1명이상의 미취학아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본 연구에서 부인이(유계숙, 2010) 남편보다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이 평일에는 약 7배, 주말에도 역시 약 3배 정도 더 긴 시간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부인이 가사노동의 주담당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 개인 변인을 분석한 결과,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이 비취업모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반면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우울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자아실현 욕구의 충족 및 경제적 자립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므로, 직장에서의 성취감이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취업모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주부로서의 활동에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고 자아실현 욕구와도 상충될 수 있다. 즉, 비취업모의 경우 가정에서 불만족을 느낄 경우 만족을 얻을 만한 다른 역할이 없다는 것, 자신이 비생산적이며 도구적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것,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며 가시적이지 않은 활동에서 오는 상대적 상실감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감이 더욱 가중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 항목에서 취업모인 경우, ‘높은 사회적 지위’, ‘남을 기꺼이 도움’항목에서 유의

하게 높았다. 취업모들이 직장생활을 영위하면서 높은 사회적 지위가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기재가 됨을 인식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이러한 항목이 키워지길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을 기꺼이 도움’항목도 중요한 기대항목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취업모가 직장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느끼며 남과 어울리는 항목을 중요시여기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 개인 변인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이 아내가 취업한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기준의 연구(마경희, 2004; 손문금, 2005; 한주희, 2005) 결과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간 불균형한 가사분담이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을 높였을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 수준이 유의하게 더욱 높았다. 남편이 자녀가 부부관계를 견고하게 결속되도록 지지해 주며 부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지닌다고 지각할수록, 아내가 취업하기 보다는 자녀를 돌봐주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변인을 살펴본 결과, 비취업모가 자신의 자녀가 좀 더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까다로운 편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대리양육비율이 낮으며 많은 시간 자녀와 함께 있으면서, 자녀의 많은 요구에 맞추면서 자녀가 까다로우며 부정적인 정서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발달상태에 있어서는 정상발달 범주에 포함되는 비율이 취업모가 더 높았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이 대체로 아동의 학업성취도, 자존감, 위축, 공격성 등 의 아동발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이상록, 2009)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상록, 2009; 정진화 외, 2008; 최형재, 2008)에서는 어머니 취업의 긍정적 영향이 단순히 취업여부가 아니라 어머니의 높은 교육수준, 근로소득 및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인 취업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어머니 취업여부만이 아니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물리적, 심리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취업모의 아동이 정상발달 범주에 더 많다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인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남편의 양육협조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역할갈등이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김경신 & 김오남, 1999; 김미령,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남편의 양육협조는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부부간의 적절한 지지는 결혼만족에 중요한 요소로, 부부관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열정적인 관계보다

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여성들은 남편의 이해나 배려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누리며, 남편의 지지에 대한 지각은 부인의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류계숙 외, 2011; Anderson & Savatelli, 2003). 배우자의 지지는 취업모의 이중역할갈등과 스트레스를 낮추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여성의 직장생활을 할 때 부족한 시간에 대한 협조와 남편과의 정서적 유대는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가사노동과 육아시간을 살펴본 연구에서, 남성은 일주일에 114분으로 두 시간이 안되며, 여성은 921분으로 약 15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령, 2009). 이러한 양적인 시간차이는 아직도 양육과 가사에 있어서 여성의 주책임자이며, 남성은 도움을 주는 정도로 미약한 역할에 그치고 있음을 반증한다. 부부갈등을 줄이고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협조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데, 이는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자녀양육참여도가 높다는 선행연구(Vannoy-Hiller & Philliber, 1992)와 맥을 같이 한다.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이 때문이다.

한편, 취업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인의 최종학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 자체보다는 부인의 교육수준과 이에 따른 직업지위 및 직업환경이 부인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들(구인희, 2003; 이중섭·이용교, 2009)과 일치한다.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직장생활 영위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보상이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정에서 부인의 직접지위가 전문직인 경우,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부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채로, 이기영, 2004)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취업여성인 경우, 일만족도가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일과 가정의 만족도는 분리되지 않으며, 일만족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기혼 여성의 직접지위가 여성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취업으로 인해 일-가족 양립의 갈등을 경험하지만 직업지위에서 삶의 보람을 느껴 노동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결혼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서구에서는 기혼 취업여성과 자녀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축적된 반면 국내연구는 매우 미진하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기혼 여성집단은 잠재적 노동력 풀로 주목받고 있지만, 어머니의 역할변화와 취업증대가 자녀 발달과 가족관계에 미치는지에 대한 조망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양육과 돌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정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어머니의 역할부담감

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향상과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활동 참여를 높이며, 긍정적인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 어머니의 취업상태와 관계없이, 어머니의 역할을 인정하고 격려해줄 때 여성의 자존감이 증진되고 속박감이 완화될 것이다. 또한 가사 및 육아에 배우자의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다중역할로 인한 부담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여성이 가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 가사와 자녀양육과 직장의 모든 역할로부터 오는 역할긴장을 잘 해결하며, 결혼에 대해 만족할 때 출산율은 증가할 것이다. 여성이 가정에서 편안하고 행복할 때 자녀출산의 동기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에(정창우, 2007), 결혼만족도는 저출산의 해소와도 연계되리라 생각된다. 결혼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며 심리적 안정을 누릴 때 가족의 기능인 자녀출산과 양육의 기능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자녀양육기 맞벌이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의 부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시간의 경감과 유연근무도 필요하다. 서울시의 기혼남녀 중 맞벌이를 희망하는 이들 가운데 부인의 전일제 희망비율은(51.9%) 부인의 시간제 희망비율(63.9%)보다 적었다(공선희, 2009). 자녀양육기의 여성의 직장근무시간과 환경이 좀 더 유연하도록 체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8년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성이 355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해볼 때, 자녀양육기 맞벌이가정에서 남편의 가사, 육아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부모교육과 함께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각 직장의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마경희(200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영향요인과 부부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19-144.
- 민무숙 외(2009).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보고 2009-04, 여성부*.
- 손문금(2005). 여성의 이중부담과 유급노동시간의 주변화-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8(1). 277-311
- 유계숙(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9(1), 41-69
- 윤지원·황라일·조현하(2009).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4), 294-302.
- 이재열(1996).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19(1), 5-44.
- 정진화·이경희(2008). 기혼여성의 취업과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에 대한 시간투자. *한국 노동경제학회*. 31(1), 135-162.
- 조홍식 외(2006). *가족복지론*. 서울: 학지사
- 채로·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 최형재(2008). 자녀교육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한국국제경제학회*. 577-597
- 통계청(2009). 사회조사보고서.
- 한주희(2005). 맞벌이 가족을 위한 한국형 코하우징 계획안.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Clinic Child Adolescent Psychology*, 21(4), 401-412.
- Anderson, S. A. & Savatelli, R. M. (2003). *Family Interaction:A Multigenerational development perspective*. Bosron, Mass: Pearson Education Co.
- Bittman, M., England, P., Sayer, L., Folbre, N., & Mathson, G. (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1), 186-214.
- Boca, D., & Wetzels, C. (2007). Social policies, labour markets & motherhood: A comparative analysis of European counties. *Economic Issues -Stoke on Trent-*. 14(1), 100-101.
- Craig, L. & Bittman, M. (2008). The incremental time costs of children: An analysis of children's impact on adult time -Use in Australia. *Feminist Economics*, 14(2), 59-88.
- Ermisch, J. F. (2001).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achievement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4(2), 249-270.
- Fuwa, M. (2004). Macro-level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22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 751-767.
- Greenstein, T. N.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2), 322-335.
- Hashmi, H. A., Khurshid, L., & Hassan, I. (2007). Marital adjustment, stress and depression among working and nonworking women. *Internet Journal Med Update*, 2(1), 1-11.

- Horish, H. (2008). Does parental employment affect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Evidence from Germany. *Discussion Paper 2008-05*,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Munich.
- Ross, C. E., & Mirowsky, J. (1988). Child care and emotional djustment to wives' 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ail Behavior*, 29, 127-138.
- Sayer, L. C. (2005). Gender, time and inequality: Trends in women's and men's paid work, unpaid work and free time. *Social forces*. 84(1), 285-304
- Spurlock, J. (1994). Multiple roles of women and role strain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6. 501-508.

“영아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탐색”에 대한 토론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교수 김혜금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환경의 제반여건이나 심리적,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 다른 연령대의 자녀를 둔 경우보다 육아스트레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가정환경을 비교하고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제 변인의 영향을 살펴본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정책 입안 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 연구는 2010년 한국아동패널의 대표집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기에 일반화의 가능성성이 크다는 점에서 연구결과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아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탐색이라는 연구 제목은 피상적이고 모호한 느낌이 듭니다. 연구제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연구자가 어떠한 변인을 보고자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자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정환경(양육환경, 부모 개인적 변인, 아동변인)이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가정환경의 제 변인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결혼만족도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구제목을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가정환경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혹은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가정환경변인과 결혼만족도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가정환경이라는 독립변인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전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가정환경 변인에 대해 모두 꾀력하고 있으나 변인이 많다 보니 연구의 초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환경의 제반여건이나 심리적,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결국 어떤 요인들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살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고 있는데, 가족환경의 제반 여건, 심리적, 물리적 환경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정환경 변인으로 언급하다가 갑자기 가족환경의 제반 여건, 심리적, 물리적 환경으로 바뀌어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연구문제에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변인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연구문제에 제시된 양육환경, 부모 개인적 변인, 아동변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연구방법에 제시된 연구도구의 내용을 보고 비로소 가정환경 변인의 구체적 내용, 즉 양육환경, 부모 개인적 변인, 아동변인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변인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가독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독립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먼저 기술하고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구대상은 어머니로 기술하기 보다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방법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 α 를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분석방법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제 변인의 차이에 대해 t -검증과 카이스퀘어를 실시하고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해서 분석하는 것을 고려해보았으면 합니다. 표집의 크기가 충분하고 여러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과에 제시한 “전체적으로 취업한 여성의 경우 직장관련변인을 포함하여 결혼만족도의 변량을 33.75% 설명하고, 비취업모의 경우 모든 변인이 결혼만족도를 33.62% 설명하고 있어 취업한 여성의 경우 직장관련이 변인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비취업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변량과 비슷하여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직장관련 변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표 8>과 <표 9>에 회귀모형의 설명량 R^2 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교정된 R^2 만 제시되어 있는데 교정된 R^2 설명량과도 다릅니다.

결론 및 논의에 제시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 개인 변인에 대한 논의는 선행연구를 좀더 보완하여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우울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선행연구 결과와 관련지어 이끌어내시면 연구자의 관점을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관련한 논의 또한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끌어지도록 보완하시면 더욱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논의가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 중심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

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 뿐 아니라 비취업모와 관련한 논의가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맞춤형 가족지원정책과 관련한 시사점이 보다 심도 있게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참고문헌 중 한국 논문의 경우 저자 표기가 영문과 한글이 섞여있는데 확인하시기 바라며 연구의 제한점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제 2 주제 저소득가정

1. 저소득가정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 연구

발표: 강한나(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박사과정),

박혜원(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토론: 조성연(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저소득 가정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환경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발표: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저소득가정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 연구

The Effects of Parenting Characteristics & Infants' Daily Time
on the Development of Infants from Low-Income Families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박사과정 강한나
교수 박혜원

본 연구는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특성, 하루일과 시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알아보고, 저소득가정의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았다. 소득 25%ile 이하 가정의 경우 다른 가정에 비해 영유아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많고 부의 주말 양육참여 시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나 양육자와 노는 시간이 가장 부족하며 TV나 비디오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하루 일과시간이 영유아의 발달을 예언하는 변인이었다. 즉 평일 하루 중 친구와 노는 시간은 소근육운동 발달에, 총 수면시간은 개인-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현대사회의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빈곤층이 확대되고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지며 이에 따라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모든 아동들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하나, 태어난 가정의 열악한 환경과 부모의 낮은 수준에 따라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황혜정, 2011). 여러 연구들에서 빈곤이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김광혁, 2005; 꽈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박현선, 2008;

윤혜경, 장유경, 박윤조, 박혜원, 권오식, 2011; 임세희, 2007; 정영숙, 2003; 황혜원, 2004).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 때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중요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특성이다. 양육은 자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정행동을 말하는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은 깊은 관계가 있어서 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양육특성에는 양육유형(스타일),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시간 등 다양한 특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보여주는 공통점은 부모에게서 긍정적 영향을 받은 아이들은 발달에 있어서도 긍정적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권희경, 2009).

구체적으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관련 변인들이 영유아의 언어능력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변인들로 나타났다(김명순 외, 2010; 장영은, 이숙정, 이강이, 2008). 임세희(2007)의 연구에서는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 빈곤가구이더라도 부모-자녀관계가 좋으면 아동의 학업성취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렇듯 저소득가정 아동의 발달이나 문제행동을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가정의 소득 자체보다는 가족과 환경 요인들이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찬화, 2010)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은 부모나 환경의 영향 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스스로 발달해 나가는데, 특히 영유아기는 짧은 기간에 비해 큰 변화와 발달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생활 세계의 일련의 경험이 중요시 된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영유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들이 생활시간 조사자를 통해 행해지고(김은화, 2012)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영유아의 하루 일과시간을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저소득, 취약계층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노인과 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김광혁, 2005; 김세원, 손주영, 2011; 김희수, 양혜원, 2007; 민하영, 김경화, 2007; 박민주, 방희정, 2007; 박현선, 2008; 방진희, 2004; 윤정옥, 문용, 주성택, 2011; 임세희, 2007; 장청은, 윤지현, 2009; 정영숙, 2003). 저소득, 취약계층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치아우식 실태(김만경, 한동현, 배광학, 2006), 사회적 목표와 전략(김성혜, 박찬옥, 2010), 어휘력(신혜영, 김명순, 2008; 장영은, 이숙정, 이강이, 2008), 사회정서발달(황혜원, 2004)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며, 특히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곽금주, 유제민, 김정미, 2007; 김명순 외, 2010; 방경숙, 2009; 장혜림, 2012; 황혜정, 2011).

본 연구에서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과 하루 일과시간, 부모의 양육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이중 저소

특가정의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은 저소득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영유아의 발달수준을 예언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2010)의 3차년도 일반조사에 참여한 23-31개월의 영유아와 그 부모이며 최종적으로 1,80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내용	N	(%)	변인	내용	N	(%)
영유아	남	917	(50.9)		21-30세	467	(26.1)
성별	여	885	(49.1)	모 연령	31-40세	1,283	(71.6)
	23개월	67	(3.7)		41-50세	37	(2.1)
	24개월	248	(13.8)		무학-중학교	10	(.8)
영유아	25개월	469	(26.0)		고등학교	491	(29.3)
월령	26개월	547	(30.4)	모 학력	전문대(기능대학)	419	(25.0)
	27개월	301	(16.7)		대학교	669	(39.9)
	28-31개월	170	(9.4)		대학원(석사, 박사)	89	(5.3)
	첫째	838	(46.5)		취업 중	600	(33.3)
영유아	둘째	763	(42.3)	모 취업·학업상태	학업 중	5	(.3)
출생순위	셋째	180	(10.0)		미취업/ 미취학	1,196	(66.4)
	넷째 이상	21	(1.2)		21-30세	204	(11.4)
	200만 이하	376	(20.9)	부 연령	31-40세	1,421	(79.4)
	201-300만	616	(34.2)		41-51세	159	(8.9)
월평균 소득	301-400만	376	(20.9)		무학-중학교	10	(.6)
	401-500만	232	(12.9)		고등학교	429	(25.4)
	500만 이상	201	(11.2)	부 학력	전문대(기능대학)	313	(18.5)
국민기초 생활법분류	해당 없음	1,603	(89.1)		대학교	772	(45.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5	(.8)		대학원(석사, 박사)	167	(9.9)
	차상위계층	181	(10.1)				

주: 계는 결측값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음

먼저 영유아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아는 917명(50.9%), 여아는 885명(49.1%)으로 남아의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이다. 평균 월령은 25.8개월이었고, 출생순위는 첫째가 838명(46.5%)으로 가장 많았다. 모의 평균연령은 32.7세이고, 최종학력은 대졸이 669명(39.9%)로 가장 많았다. 현재 모의 취업·학업상태를 살펴보면 미취업·미취학한 경우가 66.4%(1196명)로 취업 중(33.3%)인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부의 평균연령은 35.2세로 대졸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45.7%). 월 평균 소득에서는 201-300만원인 가정이 34.2%(616명)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하(20.9%)와 301-400만원(20.9%)이 그 뒤를 이었다. 월 평균적으로는 360만원 정도의 소득을 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의 0.8%(15명)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10.1%(181명)가 차상위 계층이었다.

2. 연구도구

1) 영유아의 발달(Korean-Ages & Stage Questionnaires: K-ASQ)

아동의 발달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가 작성하는 K-ASQ 유아 모니터링 체계를 사용하였다. K-ASQ는 각 영역(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이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30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각 영역별로 0~60점이다.

2) 부모의 양육특성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특성을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양육참여시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1) 어머니의 양육스타일(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

Bornstein 등(1996)이 개발한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중에 평정하는 리커트 척도이다. 총 9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9~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 스타일을 의미한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총 1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중에서 평정하는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3) 부모의 양육 참여시간

2010년도에 추가된 문항으로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부모의 양육 참여시간을 알아보았다. ‘시’ 단위로 조사한 자료만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영유아의 하루 일과시간

평일 하루 중 영유아가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장명림(2009)등이 개발한 도구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2010년도에 새로 추가되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총 14개의 활동에 대해 부모가 질문지로 응답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과 2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수준의 차이

부모의 소득은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소득 25%ile 이하, 26~74%ile, 75%ile 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2). 분석결과, 영유아의 의사소통($F=8.466$, $p<.001$)과 문제해결($F=4.740$,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K-ASQ 총점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708$, $p<.01$).

<표 2>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수준 차이

영유아의 발달수준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 25%ile 이하 ($N=457$)		소득 26~74%ile ($N=720$)		소득 75%ile 이상 ($N=625$)		F 비
			M	(SD)	M	(SD)	M	(SD)	
K-ASQ									
의사소통	51.43 a	(12.23)	52.54 a	(10.87)	54.17 b	(10.14)	8.466***		
대근육운동	56.84	(6.53)	57.44	(5.88)	57.40	(5.61)	1.580		
소근육운동	52.86	(9.20)	53.30	(9.27)	53.60	(8.21)	.910		
문제해결	53.29 a	(8.87)	54.01 ab	(7.83)	54.77 b	(6.97)	4.740**		
개인-사회성	54.58	(9.17)	55.25	(8.78)	54.56	(8.56)	1.262		
총점	269.00 a	(32.34)	272.54 ab	(29.93)	274.50 b	(25.17)	4.708**		

* $p<.05$ ** $p<.01$ *** $p<.001$

2.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부모 양육특성의 차이

부모의 양육특성을 살펴보면(표 3 참조) 모의 양육스타일($F=7.656, p<.001$)과 양육스트레스($F=7.198, p<.001$)에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월 평균 가구소득 75%ile 이상의 가정은 가장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34.69, SD=4.62$), 25%ile 이하의 가정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31.58, SD=7.02$).

<표 3>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부모의 양육특성 차이

부모의 양육특성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 25%ile 이하 ($N=457$)		소득 26-74%ile ($N=720$)		소득 75%ile 이상 ($N=625$)		F 비
		M	(SD)	M	(SD)	M	(SD)	
양육스타일(모)	33.65 a	(4.83)	33.93 a	(4.40)	34.69 b	(4.62)	7.656***	
양육스트레스(모)	31.58 a	(7.02)	30.75 ab	(6.80)	29.96 b	(6.92)	7.198***	
자녀양육참여 시간(단위:시)								
모-주중	31.51 a	(20.59)	31.28 a	(21.63)	23.86 b	(18.70)	27.464***	
모-주말	14.98	(8.02)	14.85	(7.86)	15.27	(7.80)	.482	
부-주중	7.26	(7.10)	7.01	(6.90)	6.46	(5.90)	2.155	
부-주말	6.99 a	(5.40)	7.72 a	(5.72)	9.36 b	(6.28)	24.090***	

*** $p<.001$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어머니의 경우 주중($F = 27.464, p < .001$), 아버지의 경우 주말 양육참여 시간($F = 24.090,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 25%ile 이하의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주중 양육참여 시간이 가장 높은 반면($M = 31.51, SD = 20.59$), 아버지의 주말 양육시간은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 = 6.99, SD = 5.40$).

3.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영유아의 하루 일과시간 차이

영유아의 하루 일과시간에서는 총 수면시간($F=5.338, p<.01$), 친구와 놀기($F=4.096, p<.05$), 주 양육자와 놀기($F=3.065, p<.05$), TV 비디오 시청($F=11.33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총 수면시간은 소득 26-74%ile ($M=594.35, SD=49.75$)의 가정의 영유아가 가장 많았고, 75%ile 이상의 가정($M=585.09, SD=50.94$)이 가장 적은 편이었다. 영유아가 친구나 주 양육자와 노는 시간은 75%ile 이상의 가정이 가장 많으며 25%ile 이하의 가정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나 비디오 시청시간

은 75%ile 이상의 가정이 하루 평균 87.88분, 26-74%ile의 가정이 97.51분, 25%ile 이하의 가정이 107.14분으로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TV나 비디오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영유아의 하루 일과시간 차이

단위: 분

부모의 양육특성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 25%ile 이하 (N=457)		소득 26-74%ile (N=720)		소득 75%ile 이상 (N=625)		F 비
	M	(SD)	M	(SD)	M	(SD)	M	(SD)	
총 수면시간	589.72 ab	(54.07)	594.35 a	(49.75)	585.09 b	(50.94)	5338**		
혼자 집안에서 놀기	137.32	(100.11)	140.20	(94.18)	128.05	(93.78)	1.469		
친구와 놀기	134.00 a	(111.62)	140.09 ab	(105.92)	169.12 b	(142.89)	4.096*		
주 양육자와 놀기	186.17 a	(127.56)	199.34 ab	(133.57)	210.76 b	(143.48)	3.065*		
혼자 밖에서 놀거나 돌아다니기	111.96	(100.26)	92.13	(77.64)	112.84	(105.50)	1.070		
교육보육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	390.57	(107.20)	394.74	(129.75)	407.89	(150.13)	1.194		
학원 복지관등 기관에서의 교육	208.95	(182.21)	205.00	(194.64)	226.15	(216.87)	.086		
학습지 등 방문교육	71.25	(22.32)	75.38	(35.73)	99.23	(56.64)	1.426		
TV비디오시청	107.14 a	(54.84)	97.51 b	(53.10)	87.88 c	(40.74)	11.338***		
오락컴퓨터 게임하기	90.00	(45.36)	108.75	(31.82)	68.57	(22.68)	2.453		
성인과의 외출	99.58	(55.07)	104.88	(59.10)	99.23	(46.56)	.841		
책읽기	77.72	(37.30)	75.66	(32.57)	78.71	(35.56)	.419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있기	100.80	(76.43)	90.54	(44.12)	84.29	(46.02)	.768		

* $p<.05$ ** $p<.01$ *** $p<.001$

4. 저소득가정 부모의 양육특성, 영유아의 하루 일과시간 및 발달 간 관계

여기서부터는 빈곤의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소득 25%ile 이하의 가정(N=457)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된 15명과 차상위계층 181명의 총 196명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전체 연구대상(N=1802)의 약 10%에 해당된다.

<표 5> 저소득가정 부모의 양육특성과 영유아의 발달 간 상관관계

구분	N	의사소통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K-ASQ 총점
양육스타일(모)	191	.22**	.07	.12	.04	.12	.19**
양육스트레스(모)	191	-.15*	-.05	-.14*	-.05	-.10	-.16*
자녀양육참여 시간							
모 주중	191	.01	.06	-.05	-.03	-.08	-.03
모 주말	191	.08	.11	-.01	.01	-.06	.03
부 주중	192	.05	-.01	.11	.08	.02	.09
부 주말	192	.10	-.05	.24***	.08	.01	.14

* $p<.05$ ** $p<.01$ *** $p<.001$

저소득가정 부모의 양육특성과 영유아의 발달 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5> 참조), 발달 하위변인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경우 양육스타일($r=.22$, $p<.01$), 양육스트레스($r=-.15$, $p<.05$)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근육운동’은 유의한 변인이 없었다. ‘소근육운동’은 양육스트레스($r=-.14$, $p<.05$)와 부적 상관을 아버지의 주말 양육참여시간($r=.24$, $p<.0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문제해결’과 ‘개인-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이 없었으며, K-ASQ 총점에서는 양육스타일($r=.19$, $p<.05$), 양육스트레스($r=-.16$, $p<.05$)와 상관이 있었다.

<표 6> 영유아의 하루 일과시간과 발달 간 상관관계

구분	N	의사 소통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 해결	개인-사회성	K-ASQ 총점
총 수면시간	193	.13	-.04	.11	.05	.20**	.16*
혼자 집안에서 놀기	80	-.01	-.10	.18	.18	.10	.13
친구와 놀기	45	.31*	.17	.32*	.14	.20	.34*
주 양육자와 놀기	125	-.10	-.01	.23**	.10	-.16	.01
혼자 밖에서 놀거나 돌아다니기	16	.06	-.04	-.19	-.38	-.27	-.23
교육보육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	139	.07	-.01	.15	.16	.05	.14
학원복지관 등 기관에서의 교육	8	-.12		-.22	.24	.28	.05
학습지 등 방문교육	2	-	-	-	-	-	-
TV비디오 시청	105	-.11	-.05	.12	.02	.01	-.01
오락 컴퓨터 게임하기	3	-	-	-	-	-	-
성인과의 외출	49	-.11	-.05	.09	-.01	.02	-.03
책읽기	32	-.01	.02	-.06	.14	.14	.06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있기	12	-.44	.16	.15	.16	-.22	-.16

* $p<.05$ ** $p<.01$ *** $p<.001$

영유아의 하루 일과시간과 발달과의 관계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의사소통의 경우 친구와 놀기($r=.31, p<.05$)에서, ‘소근육운동’은 친구와 놀기($r=.32, p<.05$) 및 주양육자와 놀기($r=.23, p<.01$)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다. ‘개인-사회성’은 총 수면시간($r=.20, p<.01$) 변인과, K-ASQ 총점은 총 수면시간($r=.16, p<.05$) 및 친구와 놀기($r=.34, p<.05$)와 유의하였다. ‘대근육운동’과 ‘문제해결’에서는 영아의 하루 일과시간과 유의한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저소득가정 영유아 발달에 대한 부모 양육특성과 하루 일과시간의 영향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양육특성과 하루 일과시간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stepwise 방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7>참조), ‘소근육운동’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은 ‘친구와 놀기($\beta=.43, p<.01$)’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근육운동 발달의 18%를 설명해 주었다.

‘개인-사회성’을 예언하는 변인으로는 영아의 ‘총 수면시간($\beta=.20, p<.01$)’이 포함되었고, 이 변인에 의해 4%가 설명되었다. ‘K-ASQ 총점’은 ‘친구와 놀기($\beta=.34, p<.05$)’가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인에 의해 K-ASQ 총점이 11% 정도 설명되었다.

<표 7>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2	F
소근육운동	친구와 놀기	.02	.43**	.18	7.465**
개인-사회성	총 수면시간	.03	.20**	.04	7.496**
K-ASQ 총점	친구와 놀기	.07	.34*	.11	5.169*

* $p<.05$ ** $p<.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특성, 하루일과 시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알아보고, 저소득가정의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영유아의 발달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 25%ile 이하 가정 영유아의 경우 26-74%ile의 가정과 75%ile 이상의 가정에 비해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발달수준은 다른 가정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비해 더 낮다는 선행 연구(김명순 외, 2010; 신혜영, 김명순, 2008;

윤혜경 외,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경하와 서소정(2009)의 연구에서도 25~30개월과 31~36개월 월령 집단의 경우 공통적으로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영아발달을 잘 예견해주는 변인이었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누적적으로 아동의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그 영향이 크다. 구체적으로 유아기의 저소득 가정 아동은 중류 가정 아동에 비해서 어휘의 수가 적고, 어휘 구사력이 떨어지며, 내용을 파악하거나, 사물의 개념 및 사건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 낮다(신혜영, 김명순, 2008)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초등학교 이후 학업성취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이나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양육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 25%ile 이하의 가정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아버지의 주말 양육참여 시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순(2010) 등의 연구에서도 저소득 가정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유능감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적게 느끼는 반면, 자녀로 인한 피로감이나 자신의 생활에 대한 통제 상실 등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는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대한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이경하, 서소정, 2009). 특히 저소득층 가정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이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유아를 위한 양육기술 및 정보지원은 물론 부모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모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또한 필요(장명림 외, 2009)할 것이다.

셋째,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영유아가 평일 하루 중 많이 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소득 25%ile 이하의 가정의 영유아는 다른 가정에 비해 친구나 양육자와 노는 시간이 가장 부족하며 TV나 비디오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의 하루일과를 조사한 장명림 등(2009)의 연구에서는 기초수급 가정의 영유아가 3층 이상 가정의 영유아보다 TV시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과의 외출, 휴식 및 낮잠의 활동을 3층 이상 가정의 영유아가 기초수급가정의 영유아보다 하루일과 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영유아기는 김은화(2012)가 지적하듯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적 환경인 부모와 영유아가 어떻게 일상생활의 경험들을 공유하는지가 중요한 시기이나 저소득 가정 부모는 놀이나 책읽기와 같은 활동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일반 가정 부모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보인다(김명순 외, 2010).

넷째, 저소득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특성과 영유아의 발달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보일수록 영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근육운동의 경우 주말에 아버지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발달이 잘 이루어졌다. 반면 모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영유아의 의사소통 및 소근육운동 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방식에 있어서 부모가 영아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고 영아는 이러한 자극의 경험을 통해 인지·사회·정서 행동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음(임현주, 최항준, 최선녀, 2012)을 시사한다.

영유아의 하루 일과시간과 발달과의 관계에서는 하루 중 친구와 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의사소통, 소근육운동이 잘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양육자와 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소근육운동, 영유아의 수면시간이 많을수록 영유아의 개인-사회성 영역의 발달이 잘 일어났다. 이러한 하루 일과시간은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발달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변인들로 나타났다.

평일 하루 중 친구와 노는 시간은 소근육운동 발달에, 총 수면시간은 개인-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특성보다는 영유아가 직접 경험한 활동이 발달에 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성인과 보내는 시간보다 점점 많아짐을 고려해 볼 때,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전반적인 사회성발달 뿐 아니라 소근육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한편 영유아의 생활시간 및 부모-자녀 공유시간 실태를 조사한 김은화(2012)의 연구에서는 일상활동 중 낮잠을 제외한 밤 수면시간이 평균 10시간 16분으로 소아과 의사나 발달학자들의 권장 수면량에 비해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진미정, 이윤주, 2010)에서도 우리나라 영유아의 수면시간이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상관없이 권장 수면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가정의 총 수면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수면문제는 가족의 삶, 어머니의 피로감,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아동학대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어머니와 아동이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이경숙, 박진아, 2008) 미칠 수 있으므로, 유아의 일상생활습관을 바람직하게 자리 잡게 하여 유아의 신체적, 정신적인 안녕을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김미숙, 송윤진, 2011)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기존에 연구되었던 부모의 소득 및 양육특성 외에 하루 일과시간을 함께 살펴본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루 일

과시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100% 응답자의 관점에서 체크되었으므로 시간 및 장소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시에 한계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예를 들어, ‘친구와 놀기’ 활동의 경우 유아가 보육기관의 자유놀이시간에 같은 반 또래와 논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다른 친구와 논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음). 후속연구에서는 하루 일과 시간을 좀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러한 일과시간이 저소득가정 자녀 발달에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요인이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김정미·유제민(2007). 만 3세 아동에 대한 빈곤, 부모변인, 가정환경 및 아동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3), 83-98.
- 곽금주·유제민·김정미(2007).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탐색: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1-19.
- 권희경(2009). 아버지 양육참여도, 어머니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3(4), 79-98.
- 김광혁(2005). 빈곤이 아동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0, 109-125.
- 김만경·한동현·배광학(2006). 부산지역 저소득계층 유아의 치아우식실태.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0(4), 447-452.
- 김명순·김길숙·손승희·유정은·이민주·이윤선·조항린·한찬희(2010). 저소득, 일반 가정 영유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관련 놀잇감 및 부모-자녀 관계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31(4), 61-74.
- 김미숙·송윤진(2011). 보육시설 유아의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습관 실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1), 185-202.
- 김성혜·박찬옥(2010). 일반유아, 저소득유아, 다문화유아의 사회적 목표와 사회적 전략 비교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4(4), 237-254.
- 김세원·손주영(2011).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기보호와 적응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어린이재단 서비스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동광*, 107, 35-89.
- 김은화(2012). 영유아의 생활시간 및 부모-자녀 공유시간 실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수·양혜원(2007). 저소득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 영향구조 비교. *청소년학연구*, 14(1), 155-188.
- 민하영·김경화(2007). 저소득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 간 갈등과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33-41.
- 박민주·방희정(2007). 가정결손 여부가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11(3), 113-128.
- 박찬화(2010). 그림책읽기 언어중재프로그램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선(2008). 빈곤지위가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빈곤대리변수와 빈곤동반 위험요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6, 113-137.
- 방경숙(2009). 빈계재충 영유아의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을 위한 조기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6), 796-804.
- 방진희(2004).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 사회 적응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사회복지실천*, 4, 113-142.
- 신혜영·김명순(2008). 저소득 가정 부모의 문해 발달 태도 및 가정 문해 활동과 유아의 어휘력, 인체물 개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9(4), 199-212.
- 윤정숙·문용·주성택(2011). 저소득가정의 아동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참가와 셀프리더십 간에 자아존중감 및 자아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0(6), 75-89.
- 윤혜경·장유경·박윤조·박혜원·권오식(2011). 저소득층 장애모 유아의 지능발달: 종단연구. *인지발달중재학회지*, 2(1), 17-37.
- 이경숙·박진아(2008). 유아의 수면 행동 양상과 성차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74-475.
- 이경하·서소정(2009).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특성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3), 87-102.
- 임세희(2007).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55-78.
- 임현주·최항준·최선녀(2012). 친지의 사회적 지원, 부부특성,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2), 91-109.
- 장명립·이윤진·이정립·이미화·전혜정·민현숙·박수연·이세원·김주연·정주희·송윤정(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장영은·이숙정·이강이(2008). 어머니의 책읽기와 유아교사의 민감성 및 수용성이 저소득가정 유아의 어휘력과 수리력에 미치는 영향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보육경험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1), 117-129.
- 장청은·윤지현(2009). 놀이 중심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3(1), 45-59.
- 장혜림(2012). 빈곤 한부모가정 영유아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아동복지학*, 38, 99-125.
- 정영숙(2003). 빈곤 및 가족구조가 아동의 발달지체 및 발달장애 위험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19(4), 55-69.
- 진미정·이윤주(2010).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시간 양태. *대한가정학회지*, 48(6), 43-56.
- 황혜원(2004). 가정빈곤과 이를 예측하는 변인들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9(1), 219-229.
- 황혜정(2011). 위스타트(We Start)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저소득가정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3), 55-66.

“저소득가정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 연구”에 대한 토론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성연

영유아에게 있어서 부모는 중요한 타자로서 전인적 발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그러나 영유아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국내의 연구 여건은 그리 원활하지 않으나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을 통한 영유아발달 연구는 그 자체로서도 의의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볼 때 빈곤의 악순환으로 인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해줌으로써 미래 국가 동량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저소득가정의 영유아의 발달을 연구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개발 차원에서도 시의적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연구라고 할 것이다.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는 매우 의의 있고, 필요한 연구라고 사료되나 본 연구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의문사항과 향후 본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짚으면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1. 제목

연구 제목에서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발달을 언급하였는데 실제로 본 연구자료의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45%이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도 각각 55.6%, 45.2%로서 매우 높으며,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저소득가정은 18.31%에 불과하여 이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저소득가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도 세 번째 연구문제에만 국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소득가정”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용어사용에 있어 발달 수준과 발달 영역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결과를 보면 발달 수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발달 영역(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에 더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서론

- 1) 서론에서 저소득가정과 관련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다수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문제 1과 2는 소득수준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특성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때문에 저소득가정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저소득가정과 관련한 연구문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인 학회지 제출 시에는 이를 보강하겠지만 현재의 연구결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제시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2) 본 연구를 통해 이 사회와 관련 학문 분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특히 저소득가정에 대한 연구가 주요 논제가 된다면 본 연구결과가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관련 정책에는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3)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부모의 양육 특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나 설명이 없어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영유아의 발달 수준이라는 표현은 연구결과에서 볼 때 영유아의 발달 영역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에서 부모의 양육 특성에 대한 변인 중 하나로 양육 스트레스를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이점과 관련해서도 부모의 양육 특성을 무엇으로 정의하여 살펴본 연구인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 특성이라고 할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낼 수 있는 특징적인 여러 가지 측면, 즉 양육태도, 양육가치관, 양육방식, 자녀와의 상호작용 특성 등을 의미한다.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긴장이나 장애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측면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것이 어떤 면에서 양육 특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4) 연구문제 3만이 제목과 부합하고, 연구문제 1과 2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영유아 발달과 부모 양육 특성에서의 차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과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구문제 3에서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예언하기 위한 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 특성과 하루 일과수준을 선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일상생활 세계에서의 생활시간이 중요하다는 김은화(2012)의 연구 결과만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부모의 양육 특성과 하루 일과수준이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예언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되기 위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부모의 양육 특성에 부모의 양육참여 시간이 포함되는 데 연구문제에서 부모의 양육 특성과 하루 일과시간이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예언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복되는 내용을 연구문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연구방법

- 1) <표 1>에서 모취업상태에서 ‘학업 중’을 별도의 범주로 삼을 필요가 있을까? 이를 별도의 범주로 삼을 필요가 없다면 미취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2) 어머니의 양육 스타일과 양육 스트레스가 어떤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 참여 시간은 어떤 부분이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인지에 대한 설명도 추가되어야 한다.
- 3) 결과분석에 사후검증 방법도 포함시켜야 한다.

4. 연구결과

- 1)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영유아 발달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다고 했을 때 발달 수준보다는 발달 영역의 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표 3>의 결과에서 모든 수치를 Likert 점수로 변환하여 제시하는 것이 독자로 하여금 결과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 3) 영유아의 하루 일과 시간과 발달 간 상관관계에서 ‘혼자 밖에서 놀거나 돌아다니다’와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간의 상관계수, ‘학원복지관 등 기관에서의 교육’과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간의 상관계수,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있기’와 ‘개인-사회성’ 간의 상관계수는 수치상으로 볼 때 유의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의도 수준의 표시가 없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5. 논의 및 결론

- 1) 비록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현대 사회의 고소득층의 문제가 드러나는 영역이 개인-사회성 영역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고소득층의 점수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가장 낮게 산출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 모-주중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에서 소득 25%ile 이하가 가장 많았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다.
- 3)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영유아의 일과 시간에서의 차이 중 비록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추후 연구를 위하여 ‘혼자 집안에서 놀기’가 중간계층이 가장 많고, ‘혼

자 밖에서 놀거나 돌아다니기'는 소득 75%ile 이상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있기'도 소득 25%ile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TV 비디오 시청'과 어떤 관련성을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4) 하루 일과시간과 부모의 양육 특성과 영유아 발달 간의 상관계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도 그 설명력이 매우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고, 특히 개인-사회성 영역의 경우에 총 수면시간이 4%를 설명하고 있어 설명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 발달의 모든 영역과 총점에 있어서 하루 일과시간과 부모의 양육 특성의 설명력을 갖는 독립변인으로 부모의 양육 특성이 전혀 설명력이 없는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총 수면시간은 개인-사회성 영역에서만 설명력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만을 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설명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투입한 나머지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없는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저소득 가정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환경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Environment to the Positive Parenting Styles
of Mothers in Low-income Families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은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만 2세 아동 1,802가구 중 월 가구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집단으로 상위 20% 고소득 가정을 함께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서는 저소득 가정과 고소득 가정이 각각 평균 33.5와 35.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양육환경에서는 심리적 환경 중 자기효능감,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아버지 양육협조 등에서 모두 저소득 가정이 고소득 가정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고 우울에서는 높았다. 지역사회 환경에서도 여가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치안·사고 안전성, 전반적 환경 적절성에서 모두 저소득 가정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은 사회적 지원, 어머니 우울, 아버지 양육협조, 사고에 대한 환경의 안전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에 따라 가정의 심리적 환경 개선,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제공, 안전사고 위험성 제거, 저소득 여성 일자리 증대 등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I. 서론

아동을 양육하는 환경의 중요성과 경제적 수준의 영향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어 왔다.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애 초기 결핍된 환경이 아동의 신체적 발달과 인지적 능력, 사회적 기술까지 영향을 주어 학업성취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Heckman, Lochner, & Todd, 2008). 또한 아동기 초기 언어발달에 미치는 가구소득과 부모 학력의 영향이나(이지연, 곽금주, 2008), 인지 발달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강희경, 2001; 김선숙, 2008)에 대한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자녀를 출산했을 때 가구의 소비 경향이 달라지고 아이 관련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총 가구지출의 35%에 해당하는 양육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서문희, 최윤경, 이세원, 신윤정, 2010). 그만큼 자녀의 초기 양육과 그와 관계 깊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환경은 아동을 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라 할 부모의 부부 관계, 아버지의 양육 참여,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 또한 아동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이경옥, 이정수, 이지영, 2011; 이희정, 2011; 박경자, 김현경, 김희숙, 2011), 이러한 변인이 저소득층에서는 고소득층과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발달에 대한 영향 요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또한 가정 내 환경 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지지적 관계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있으며(김선숙, 2008; Stevenson, 1998),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사회적 지지체계가 많을수록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결과(Morrow, 2000)는 가정 밖의 지역사회 환경과 양육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는 양육실제(practice 또는 style)는 아이가 자라는 환경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객관화된 주변 장치로서의 환경이 아닌 상호 영향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로서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다르게 고려되어야 한다. 양육행동의 아동발달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의 예는 많은데, 특히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성 및 정서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인지적 성취의 측면에도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온정적이고 애정표현이 적절하며 자율성을 격려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친사회적이고 또래 관계가 좋으며(권연희, 2003; 박주희, 이은해, 2001), 어머니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독립성을 강조할수록 유아는 긍정적인 정서를 더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련, 최보가, 2000).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개념과 자아 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김영이, 1994), 부모가 반응적이고 민감한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의 인지발달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sik, Ramey, Bryant, & Sparling, 1990).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 연구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우수한 학습행동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김경미, 안선희, 2010).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긍정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빈곤한 가정의 부모는 그렇지 않은 가정의 부모에 비해 우울감과 분노,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의 경험이 높고, 비일관적이고 비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박현선, 정의중, 구인희, 2006; 임세희, 2007). 또한 저소득 가정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높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이봉주, 임세희, 2008). 민하영(2011)은 저소득층 영유아의 어머니는 중산층 어머니에 비해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의하게 낮음을 발견하고 안정된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통해 이를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득계층의 차이는 양육환경에서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영, 신은주와 나종혜(1995)는 저소득층의 양육환경 특징으로, 부모의 학력이 낮고 문화시설 구비수준이 중류층보다 낮으며 주거환경의 영향으로 친척 등 성인접촉의 기회가 많은 반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양은 적은 것을 들었다. 또한 물리적인 측면에서 빈곤한 가족은 비공식적 상호감독과 보살핌이 적은 환경에 있고(Cultrona et al., 2000; 김진희, 이상록, 2012, 재인용), 생활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이 부족한 반면 유흥시설이 타지역보다 많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경, 윤지영, 2004). 김진희와 이상록(2012)은 취약한 이웃환경과 양육행동의 관계 검토를 통해 취약한 환경의 부모는 생활스트레스로 인해 온정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을 보일 수 있고 이웃환경의 안전에 대한 지각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양육행동에 미칠 수 있는 환경의 영향을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부모는 중류층 가정과 차이가 있는 가정환경 및 지역사회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유형의 자녀 양육행동을 낳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저소득층의 양육환경 중 어떠한 요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저하시키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찾아보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가정은 고소득 가정과 양육환경에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저소득 가정은 고소득 가정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저소득 가정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환경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2008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한국아동패널이 생산한 우리나라 영유아 2,000가구 조사 자료 중 최종 공개용인 2010년 실시 3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조사에 포함된 총 패널 수는 만 2세 아동이 있는 1,802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2010년 조사 자료의 ‘가구 및 가구원 특성’ 중 경제적 특성에 속하는 ‘가구 총 소득(월 단위)’을 빙도 분석하여 전체 가구 중 상위 20%와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를 선별하였다.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은 360.55만원($SD = 280.16$)이었고,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액은 450.5만원,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액은 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가구는 소득 범인 응답자 1,802가구 중 소득 상위 20% 이상인 364가구, 하위 20% 이하인 375가구로 총 739가구이다.

<표 1>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 분류 기준

단위: 가구, 만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소득 하위 20%(저소득가정)	375	169.4	37.35
소득 상위 20%(고소득가정)	364	678.1	480.88
계	739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 특성, 가정에서의 양육과정, 국가의 육아지원 정책 효과 등을 살펴보기로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며, 패널 아동들이 12세가 되는 2020년까지 총 10차례 걸쳐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각 차수별 조사내용은 아동발달을 측정하는 심리검사와 아동을 둘러싼 부모 등 주요 환경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아동이 다니는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패널 아동이 만 2세가 된 시점에 수행된 조사 결과이며,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9.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 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2. 주요 변인

1) 긍정적 양육행동

한국아동패널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행동은 양육스타일(양육실제)을 측정하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형식은 5점 리커드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 유형임을 의미한다. 점수 범위는 9~45점이며, Bornstein(1996)의 도구를 번역할 것으로 이형민, 박성연과 서소정(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68로 보고되었다.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는 자녀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머니가 보여주는 ‘온정성’과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반응성’점수를 산출해준다.

2)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환경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 환경은 심리적 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원식(1984; 이재연, 백경재, 1997 재인용)은 가정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구분하였는데, 물리적 환경은 지위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가정의 정적인 환경인 부모의 상태, 거주지의 생태 환경, 집의 크기 및 시설 등이 속한다. 심리적 환경은 구조 환경과 과정 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구조 환경은 문화적 상태, 영양 및 위생상태, 언어모형, 가치지향성, 집단특성 등 개인에게 작용하는 최적 조건과 자극이 체계화된 구조적 상태를 의미하고, 과정 환경은 외적 자극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분위기 또는 풍토로서 수용, 자율, 보호 개방 등의 변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가정환경에 대한 이와 같은 분류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 특성,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 등을 심리적 환경으로, 물리적 환경에 속하지만 가정 내부적 환경이 아니라 집 주변 이웃의 환경 상태에 관심을 갖고 육아시설 인프라나 육아에 적절한 환경 여부 등을 지역사회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세부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등 ‘부부관계 특성’, 그리고 육아 및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에 인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포함하는 ‘지원 인력’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변인 중 자기효능감은 Pearlin 자기효능감 척도(Pearlin 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으며 총 4개 문항은 각 5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의 범위는 4~20점이 된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Mainieri와 Grodsky(2006)에 의하면 Chronbach α 는 .79이며, 한국아동패널에서는 .82로 측정되었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 4점 척도

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40점이다. Mainieri(2006)에 따르면 문항내적 신뢰도(α)는 .85로 알려져 있고, 한국아동패널 예비조사에서는 신뢰도가 .82였다. 어머니의 우울을 쟤는 도구로는 Kessler의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6개 문항인 이 도구는 6~30점 까지의 점수 범위를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essler 외 (2006)의 연구에서 문항 신뢰도(α)는 .89로 측정되었다.

부부관계 특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변인 중 하나인 결혼만족도는 Chung(2004)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총 4개 문항의 5점 리커드 척도로 최하 4점에서 최고 20 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정현숙 (2001)에 의하면 신뢰도는 .94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의 부부관계 특성 변인은 부부 갈등으로, Markman 외(1994)의 부부갈등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8개 문항 (5점 리커드)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8~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간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90이다(이정림,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정영혜, 2011).

심리적 환경 측정 요소 중 세 번째는 지원 인력으로, 그 중 하나는 도구적, 정서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을 측정하는 ‘사회적 지원’ 변인이다. 이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연구를 기초로 자체 제작한 도구로(이정림 외, 2011), 문항내적일치도는 .89로 보고되었다. 문항은 총 12개로 점수 범위는 12~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지원 인력에 속하는 다른 한 가지 변인은 ‘아버지의 자녀양육협조’로,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고 점수 범위는 4~20점이다. 측정도구는 강희경(1998)과 홍성례(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으로 문항 신뢰도(α)는 .86이다.

심리적 환경과 함께 양육환경 특성 중 두 번째인 지역사회환경을 보여주는 변인으로는 가용 육아 인프라, 즉 어린이집이 수적으로 충분히 있는지, 여가나 문화생활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이 편리한지에 대한 인식 정도와 치안이나 안전사고 측면에서 주변 환경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경이 양육에 적절한 정도에 대한 인식 등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변인은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서문희 외(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체 제작하였으며, 어린이집 수적 충분성,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인식, 치안 안전성, 안전사고 안전성, 전반적인 양육 환경 적절성 등을 5점 리커드식 각 1문항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각 하위 변인은 1~5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모든 변인은 다음의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2> 육아 환경 구성 변인

주요 측정 영역	구성 변인
심리적 환경	어머니 심리특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부부 관계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환경 특성	지원인력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
	육아 인프라 어린이집 수적 충분성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지역사회 환경	환경 적절성 치안 안전성
	사고 안전성 전반적 적절성

III. 연구결과

1. 응답자 특성

분석에 포함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저소득 가정 35세, 고소득 가정 36.1세로 고소득 집단에서 1세 가량 높았고 아버지의 연령도 마찬가지 경향이 있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고소득 가정의 경우 전문가나 사무직이 59.9%를 차지하였으나 저소득 가정 집단은 34.9%였고 오히려 기능원이나 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다.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에서 저소득 가정의 경우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14.5%인데 반해 고소득 가정은 0.9%에 불과하였다.

아버지의 최종 학력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경우 43.6%가 고졸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고소득 가정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56.9%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대학원 졸업자도 20.2%였다. 어머니의 최종 학력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가 저소득 가정은 25.1%였고, 고소득 가정은 67.3%여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에서는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14.5%만이 일을 하고 있은데 반해 고소득 가정은 65.6%가 취업모였다. 거주 지역을 보면 고소득 가정에 비해 저소득 가정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저소득 가정과 고소득 가정 부모의 특징

		저소득 가정 (N = 375)	고소득 가정 (N = 364)
연령(세)	부 평균연령	32.0(4.30)	33.6(3.48)
	모 평균연령	35.0(4.69)	36.1(3.86)
부 직업(%)	관리자	4.3	9.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6	30.1
	사무 종사자	19.3	29.8
	서비스 종사자	3.7	3.0
	판매 종사자	9.8	9.9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4.0	0.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9	8.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2.9	7.5
	단순노무 종사자	4.0	0.0
	군인	0.6	1.2
부 종사상 지위(%)	정규직/상용직	61.4	72.1
	임시직	6.2	0.6
	일용직	8.3	0.3
	고용주/자영업자	21.5	26.1
	무급가족종사자	2.1	0.3
	기타	0.6	0.6
부 최종 학력(%)	중학교	1.4	0.6
	고등학교	43.6	10.3
	전문대	21.7	12.0
	4년제 대학교	27.6	56.9
	대학원 석사	5.4	17.6
	대학원 박사	0.3	2.6
모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1.7	0.0
	고등학교	51.3	12.6
	전문대	21.9	20.2
	4년제 대학교	24.5	53.2
	대학원 석사	0.6	12.6
	대학원 박사	0.0	1.5
모 경제활동비율(%)	취업	14.5	65.6
	비취업	85.5	34.4
거주 지역(%)	대도시	35.7	44.2
	중소도시	37.1	42.0
	읍면지역	27.2	13.7

주: ()는 표준편차임.

2. 소득 집단별 긍정적 양육행동의 차이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점수는 33.5($SD=4.92$)로 고소득 가정의 35.0($SD=4.36$)보다 1.5점이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4.01, p<.001$). 즉, 긍정적 양육행동 측정 문항이 재고 있는 반응성과 온정성에서 고소득 가정이 저소득 가정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해 덜 반응적·온정적이라고 하겠다.

<표 4> 소득집단별 긍정적 양육행동 차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저소득 가정	362	33.5	4.92	-4.08***
고소득 가정	357	35.0	4.36	

*** $p<.001$

3. 소득 집단별 양육환경의 차이

양육환경은 심리적 환경과 지역사회환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심리적 환경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보면 저소득 가정에서 부정적 자기효능감이 낮았고($t=3.19, p<.01$), 우울 정도는 저소득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12, p<.01$). 자기존중감은 소득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부부 관계에서는 결혼만족도는 고소득 가정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고($t=-3.33, p<.01$) 부부갈등은 저소득 가정에서 점수가 더 높았다($t=2.15, p<.05$). 지원 인력의 측면에서는, 저소득 가정보다 고소득 가정에서 사회적 지원에 대해 더 안정적으로 느끼고 있었고($t=-4.22, p<.001$), 아버지의 양육협조 정도 또한 고소득 가정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5.01, p<.001$). 즉, 저소득 가정 어머니보다 고소득 가정의 어머니가 사회적 지원이 많고 아버지가 양육에도 많이 참여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표 5>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집단별 심리적 환경 차이 비교

인적 환경 변인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자기효능감	저소득 가정 고소득 가정	367 359	9.69 9.03	2.88 2.71
	자기존중감	저소득 가정 고소득 가정	364 359	25.18 25.36	2.08 2.08
	우울	저소득 가정 고소득 가정	364 358	12.44 11.46	4.28 4.19
	결혼만족도	저소득 가정 고소득 가정	362 358	14.92 15.71	3.34 2.95
	부부 갈등	저소득 가정 고소득 가정	351 350	15.34 14.46	5.85 4.91
	사회적 지원	저소득 가정 고소득 가정	366 359	44.70 47.18	8.05 7.68
지원 인력	아버지 양육협조	저소득 가정 고소득 가정	361 360	14.30 15.60	3.47 3.33
					-5.01***

주: 자기효능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아효능감을 보여줌.

*p<.05 **p<.01 ***p<.001

2) 지역사회 환경

지역사회 환경 중 육아인프라의 측면에서, 어린이집의 수적 충분성에 대한 인식에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여가나 문화 관련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에서는 고소득 가정의 점수가 높았다. 또한 치안 측면이나 안전사고 측면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에서 고소득 가정이 더 긍정적 환경인 것으로 응답하였고 환경의 전반적인 양육 적절성에서도 고소득 가정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집단별 지역사회 환경 차이 비교

지역사회 환경 변인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육아 인프라	어린이집	저소득 가정 고소득 가정	368 361	3.44 3.42	.97 .95
	수적 충분성				.31
	여가문화시설	저소득 가정 고소득 가정	368 361	3.00 3.49	1.10 .98
	이용 편리성				-6.35***
환경 적절성	치안 안전성	저소득 가정 고소득 가정	367 360	3.05 3.43	.85 .81
	사고 안전성	저소득 가정 고소득 가정	367 360	2.98 3.23	.87 .87
	전반적	저소득 가정 고소득 가정	368 359	3.20 3.36	.84 .79
	환경 적절성				-5.55***

***p<.001

4. 저소득 가정 양육환경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양육 환경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학력이나 지역규모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학력 변인과 지역 변인을 더미 변수로 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어머니 학력 중졸이하=0, 지역규모 중소도시=0). 학력과 지역을 통제한 가운데 단계선택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발견되지 않았고 ($VIF < 10$),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검증지수도 1.841로 나와 회귀분석에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었다($1.5 < Durbin-Watson < 2.5$).

양육환경에 포함되는 모든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단지 4개의 변인, 즉 사회적 지원 인식, 어머니 우울, 아버지 양육협조, 안전사고 측면 안전성 인식만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다음의 <표 7>에서 보듯이 사회적 지원이 많다고 느낄수록($B=.15$), 아버지의 양육협조도가 높다고 느낄수록($B=.25$), 사고에 대해 주변 환경이 안전하다고 느낄수록($B=.75$),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이 낮을수록($B=-.18$) 저소득층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변수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의 정도는 20.6%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원 인력($\beta=.238$), 우울($\beta=-.161$), 아버지 양육참여($\beta=.174$), 사고 안전성 인식($\beta=.13$)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7>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양육환경의 영향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β	B	β	B	β	B	β
상수	24.09		29.16		26.44		23.5	
사회적 지원	.21	.35***	.17	.28***	.15	.24***	.15	.24***
우울			-.26	-.23***	-.22	-.19***	-.18	-.16***
아버지 양육협조					.23	.16**	.25	.17**
사고 안전성							.75	.13*
$R^2(\Delta R^2)$.120		.166(.047)		.189(.023)		.206(.017)	
F	44.619		32.649		25.373		21.056	
p	.000		.000		.000		.000	

* $p < .05$ ** $p < .01$ *** $p < .0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 소득별 어머니 양육 행동, 육아환경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육아환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결과를 종합하면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의 특징을 보면, 소득 수준 상·하위 20%로 구성된 고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각각 678.1만원과 169.4만원으로 508.7만원의 차이가 있었고, 저소득 가정은 고소득 가정에 비해 아버지 직업이 전문가 및 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낮고 기능적 종사자 비율이 높았으며, 최종학력은 고졸이 많았다. 특히 고소득집단에 비해 취업한 어머니의 비율이 51.1%만큼 큰 폭으로 낮았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심을 두었던 민하영(2011)의 연구를 보면, 부나 모의 학력 분포는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모의 경제활동 여부 비율에 있어서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소득 가정 어머니 취업 비율은 73.3%였고 비교대상이 된 중산층의 취업모 비율은 56.7%였다. 이는 본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이 같은 차이의 원인은 연구 대상 선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민하영(2011)의 연구가 저소득 가정을 월 소득 250만원 기준으로 구분한데 비해 본 연구의 저소득 가정 평균 월 소득은 이보다 훨씬 낮다. 대상 연령과 경력이 비슷한 세대라고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는 맞벌이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되어 취업모의 비율이 높은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3차년도 패널로서 만 2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대상인데 반해, 민하영(2011)의 조사 대상은 보육·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의 가정으로 만 5세까지의 영유아 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어, 본 연구의 대상 자녀가 대부분 더 어리다고 하겠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은 자녀 연령이 만 2세로 아직은 영아에 속해,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들은 취업을 하기보다는 자녀를 직접 키우는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린 자녀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며 자신은 취업을 하기보다는 취업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편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환경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동일한 연령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고소득 가정의 어머니는 80.5%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저소득 가정은 47.0%가 전문대 이상 학력), 비교적 수입이 높은 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고 보육비용 대비 근로소득이 우월함으로써 자녀 양육을 대리자 또는 기관에 맡기고 취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저소득 가정의 경우 비교적 학력이 낮은 영아의 어머니는 보육비용을 지불하고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육아를 위해 가정에 남아있는 경향이 있고, 이는 다시 가구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저소득층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집단 간에 비교해보면, 고소득 가정이 저소득 가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가 양육실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현선 등(2006)과 임세희(2007)의 연구에서 빈곤한 가정의 부모가 비일관적이고 비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민하영(2011)이 제시한 저소득 가정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점수가 중산층보다 낮다는 결과와도 다르지 않다. 김진희와 이상록(2012)은 부모의 온정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은 부모가 가진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 수 있고 스트레스는 환경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한 바, 저소득 가정 어머니가 긍정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인다는 결과는 그 차이를 양육 환경의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가 의의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소득 집단 간 양육환경에서의 차이를 보면, 심리적 환경에서는 저소득 가정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우울 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아버지의 양육협조에서 모두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도 어린이집 수의 충분성을 제외하고는 여가활동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치안 및 사고 안전성 등 모든 부분에서 저소득층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보여주었다. 소득계층별로 아동발달과 관련 변인을 비교한 이봉주, 김선숙과 김낭희(2010)의 분석을 보면 저소득 계층일수록, 또 농어촌일수록 부모효능감이 낮고,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적고, 지역사회 환경이나 사회적 지원이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있어 본 연구의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저소득 가정이 읍·면 지역에 사는 비율이 높은 것은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양육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다양한 양육환경 중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를 살펴본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가정에서 영유아의 어머니가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지지 대상이 있다고 느낄 때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어머니의 우울, 아버지의 양육협조, 사고에 대해 주거환경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등의 순으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컸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과 아버지의 양육협조 등을 본 연구에서는 지원 인력이라는 양육환경 변인으로 범주화하였고, 여기에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인 우울까지 포함하여 이들을 모두 심리적 환경이라고 볼 때, 이러한 심리적 환경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 중에서는 특히 거주 지역 주변이 아이가

생활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반면 고소득 가정에 비해 점수가 낮았던 여가생활 및 문화 시설의 부족이나 치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태도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김진희와 이상록(2012)이 주장하였듯이, 저소득층의 빈곤은 주거 및 이웃환경에 영향을 주고 이웃환경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만 2세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환경과 양육행동 간 관계로써 확인된 셈이다.

위와 같은 결과와 해석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방향에 대해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적 시각에서 볼 때 미래 인적 자원인 영유아를 보다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긍정적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심리적 환경, 특히 사회적 지원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긍정적 양육행동과 크게 관련이 있음에도 고소득 가정에 비해 저소득 가정 영유아 어머니가 사회적 지원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면, 저소득층 지역에 대해 육아와 관련한 사회적 지원(지지)을 강화함으로써 심리적 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소득층 어머니가 심리적, 물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인적 지원이 풍부해질 필요가 있는 바,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육아기 어머니와의 개인 상담을 활성화하고 육아지원인력 파견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손쉽게 누군가의 힘을 빌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역사회 내 주민 상호간 개별 교류를 쉽게 할 수 있는 모둠 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인적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즉 저소득층일수록 육아정보나 생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지할 수 있는 생활의 멘토를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주변에서 인적 지지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자율 공동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변인과의 유대감 있는 교류가 지속될수록 육아기 어머니가 가진 우울감도 줄어들어 긍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기회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참여의 실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 가정의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유의하게 높은 점은 특히 저소득층 아버지 교육의 중요성을 말해 준다. 아버지 교육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을 통해 아버지 양육참

여의 중요성을 캠페인하고 구체적인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책자를 제작하여 아버지들이 각 가정에 관심을 두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업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필요성을 공유하고 동참하는 것도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셋째, 저소득층 지역에 대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아이들이 불안감 없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밝혀졌으므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지속적 보수 등 물리적 환경의 안전성 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소득 가정과 비교했을 때 범죄 등 치안 안전성에 대한 적절성 인식도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한 자녀 양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나아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 하겠다.

넷째, 저소득 가정 영아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저소득 여성들의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어머니들이 취업 대신 가정양육을 많이 선택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가 2012년부터 채택한 영아 보육료 전액 지원이라는 정책의 타당성을 지지해 주는 듯하나, 계층 구분 없이 모든 영아에 대한 지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아 보육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넘치는 상황이 되었다. 영아 보육의 경우 저소득층 취업모의 우선 이용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 보육이 확보된 후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취업률을 높임으로써 저소득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가정의 육아 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고소득 가정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그간 항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가활동이나 문화생활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 가정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과도 연결되는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육아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없도록 하려는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전반적인 육아 환경에 대한 저소득층의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강희경(2001).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제주도 내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간호학회지*, 9(3), 301-308.

-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 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권연희(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결전략 및 어머니의 행동이 아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미·안선희(2010).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가정환경과 유아의 학습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8(1), 15-26.
- 김선숙(2008). 빈곤아동 심리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WE Start 대상아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영이(199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 형제수 및 지역차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이상록(2012). 빈곤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주거환경, 이웃환경,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4(2), 366-387.
- 김태경·윤지영(2006). 주택공급정책에 있어 사회적 통합에 관한 연구.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 민하영(2011).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성인애착 영향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 효과: 중산층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보육지원회지*, 7(3), 1-20.
- 박경자·김현경·김희숙(2011). 잠재성장모델을 이용한 어머니의 우울 예측변인과 영아 발달 분석. KICCE 국제세미나 및 제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69-380.
- 박현선·정익중·구인희(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성인역 부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20), 303-330.
- 박주희·이은해(2001).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서문희·최윤경·이세원·신윤정(2010).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조애자·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경옥·이정수·이지영(2011). 아버지의 양육협조,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간의 관계: 첫째 자녀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매개효과 분석. KICCE 국제세미나 및 제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97-403.
- 이봉주·김선숙·김낭희(2010). 한국 아동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0.

- 이봉주·임세희(2008). 아동의 주거상태와 아동발달. *보건복지포럼*, 145, 43-50.
- 이영·신은주·나종혜(1995).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2). *대한가정학회지*, 30(3), 165-177.
- 이재림·옥선희(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 이재연·백경재(1997).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지*, 12(1), 71-93.
- 이정립·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정영혜(2011). *한국아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지연·곽금주(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 이혜련·최보가(2000). 유아의 개인 및 부모특성과 정서이해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5), 1-14.
- 이형민·박성연·서소정(2008). 어머니의 양육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11.
- 이희정(2011). 어머니의 우울이 영유아의 기질적 부정적 정서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KICCE 국제세미나 및 제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25-332.
- 임세희(2007).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55-75.
- 정원식(1989). *가정환경 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코리아 테스팅 센터.
- 정현숙(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205-224.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Heckman, J. J. (2008). Schools, skills, and synapses. *Economic Inquiry*, 46(3), 289-324.

- Kessler, R. C., Galea, S., Jones, R. T., & Parkerd, H. A. (2006). Mental illness and suicidality after Hurricane Katrina.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84(12), 930–939.
- Mainieri, T.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for CDS-II*.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ii_userGd.pdf에서 2007년 2월 11일 인출.
- Mainieri, T., & Grodsky, M.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supplement for CDS-I*.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1_UGSupp.pdf에서 2006년 11월 11일 인출.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orrow, V. (2000). 'Dirth look' and 'trampy places' in young people's accounts of community and neighbourhood: Implications for health inequalities. *Critical Public Health*, 10(2), 141–152.
- Stevenson, H. C. (1998). Raising safe villages: cultural-ecologic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emotiona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4(1), 44–59.
- Wasik, B. H., Ramey, C. T., Bryant, D. M., & Sparling, J. (1990). A longitudinal study of two early intervention strategies: Project CARE. *Child Development*, 61, 1682–1696.

“저소득 가정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환경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정익중

저소득층 가정 어머니는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부족하고 비일관적이면서 가혹하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 학대나 방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 수많은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저소득층 가정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방임은 저소득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며, 빈곤가정에서도 고소득 가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과보호가 이루어지고 이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정익중, 2011).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병리관점에서 벗어나 강점관점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가정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유아가 문제행동을 보이면 그 유아의 가정생활 경험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여 부모가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였다(유혜령, 2002). 특히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이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시각은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이 부족하다는 신념을 지지하며 주류문화로부터 소외된 빈곤가정 아동과 그 부모들을 병리화시켜 낙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빈곤가정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이를 일방적인 치료나 교화대상으로 객체화하여 이를로 하여금 무력하게 만들거나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이러한 낙인에 벗어나 긍정적인 시각을 유도할 수 있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 같지 않아 이 논문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연구방법 측면

본 연구는 <표 2>와 같이 12개의 독립변수들을 살펴보고 있다. 문제제기에는 소득과 양육행동이 관련되며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 산물들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 주로 언급되어 있고, 왜 수많은 변수들 중 12개의 변수만이 긍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은 부족하다. 본 연구의 주제인 양육환경과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고, 독립변수들이 단편적인 연구결과에 기반 하거나 자의적으로 선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변수 선택의 근거가 가족과정 모델 등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출처와 측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되어 있으나, 어떤 질문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예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 양육행동을 온정성과 반응성으로 측정하였으나, 이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질문의 예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어떤 온정성과 반응성이 양육환경 특성에 의해 증가되는지 해석하기 어렵다. 1~2개 정도 설문지에 사용된 질문을 예시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에서 <표 6>까지 저소득 가정과 고소득 가정만을 비교하고 있는데 상위 20%, 하위 20% 뿐만 아니라 중간 60%가 저소득 가정과 비슷한 것인지, 고소득 가정과 비슷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저소득과 고소득의 두 집단만이 아니라 중간을 포함한 세 집단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모의 취업비율이 저소득가정에서 14.5%로 나타나고, 고소득가정에서 65.6%로 나타난 것은 기존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인데, 연구자는 이를 저소득층 어머니가 취업하여 어린 자녀를 외부에 맡기기보다 취업하지 않고 직접 돌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는데, 어디(비정규직 여부)에 어떤 식(시간제 여부)으로 취업한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이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부터 시작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36개월 미만)에 대해 양육수당이 지급된 영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그 때문에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취업하기보다 비취업하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지역사회효과는 검증된 적이 많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검토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지역사회효과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매우 중요하다면 인지된(perceived) 지표보다는 실제 지역지표를 사용하여 지역사회 효과를 위계선형모형을 통해 검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축적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독립변수간의 선후관계에 바탕을 두어 경로를 설정하고 구조모형을 살펴보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분석에서는 총 1,802가구 중 375가구의 저소득층 가정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limited variance 때문에 종속변수의 설명될 수 있는 변량을 줄여 많은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 가정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 가정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해서 살펴보거나, 전체 집단으로 합산하여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서 중요 변인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의 상호작용함으로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표 3>을 보면 저소득 가정과 고소득 가정 사이에는 부 직업, 부 종사상 지위, 부의 최종학력, 모의 최종학력, 모 경제활동 비율 등이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6>의 연구모형에서 아동의 성별뿐만 아니라 <표 3>의 모든 변수들이 회귀식에서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가구유형도 통제변수의 하나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stepwise방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결과만을 보고했는데 본 연구에서 고려한 모든 변수의 결과를 유의하던 유의하지 않던, 전체 결과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정성과 반응성을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합쳐서 분석하고 있는데, 온정적인 것은 애착과 관련이 되고 반응적인 것은 인지적 자극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양육행동일 수 있다. 온정성과 반응성을 분리하여 각각 분석하고,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유사한지 상이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결과 및 함의 측면

사회적 지원은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이는 또한 저소득 가정보다 고소득 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센터 등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지원기관을 통해 저소득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라고 제언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득 가정에서 사회적 지원이 더 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가?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정이 사회적 지원이 낮다고 나타난 결과는 무슨 의미인가? 사회적 지원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복지제도에 의한 지원을 늘리면 본 연구에서 측정한 사회적 지원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우울은 학대나 방임 등 부정적 양육행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산후우울증으로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내다가 영유아를 학대하거나 방임하여 아동사망이나 장애 등 영구후유증을 불러오는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임신기와 출산 직후는 아동과 가족이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이때 가족이 도움을 받기 위해 기관에 찾아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이 사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가정방문(home visitation)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발달 지원 및 부모의 양육기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노총래, 정의중, 전종설, 2012). 가정방문 서비스는 아동이 가정 내에서 다양한 장난감과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산전 보호, 예방접종, 영유아 검진 등과 같은 예방차원의 건강서비스 이용율을 높임으로써 아동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또한 0~2세의 경우 재가양육의 비율이 높고, 이때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 부모에게 아동발달에 대한 전반적 지식,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 부모로서의 자신을 보는 시각에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부모가 아동발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모역할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가지도록 원조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아동을 애정적인 방식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며 학대와 방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영유아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울은 도움요청행동을 가져오기 쉽지 않으므로 도움이나 치료가 필요한 산후 우울 선별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생애초기의 포괄적인 지원과 개입을 통해 아동은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건전한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이룰 수 있게 된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전 국민 수준의 영유아건강검진제도는 생후 4개월부터 만 6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회의 건강검진과 3회의 구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영유아건강검진제도는 전 국민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 건강서비스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수검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영유아검진을 받지 않은 가정은 필수적으로 가정방문하는 방식으로 정책 간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영유아검진에 아동 문진표뿐만 아니라 주양육자에 대한 문진표를 포함하여 이 검진을 주양육자의 우울도 선별하는 체계로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영유아 시기는 항상 부모와의 이세대(two generation) 프로그램을 필수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양육협조가 저소득층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인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판단된다. 이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협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주로 부모교육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빈곤부모들은 생계 때문에 시간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빈곤부모가 일하는 직장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업무환경인 경우가 많아 빈곤부모들에게는 교육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김경민, 정익중, 2009). 빈곤부모, 특히 빈곤아버지를 부모교육에 포함하기 위해 부모교육을 부모가 공권력에 접촉할 때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보낼 때, 아이를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시킬 때, 아이를 중학교에 처음 입학시킬 때 등 국가에서 아동에게 지원하는 대신 부모도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적 수준이긴 하지만 지역사회환경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서 빈곤가족에 대한 지원은 빈곤가족에 대한 직접적 지원뿐만 아니라 빈곤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개입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논의에서 저소득 여성들의 일자리 증대가 언급되었는데, 연구결과에 한정된 논의여야 하는 일반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육아인프라에 대한 논의도 고소득 여성과의 차이는 있지만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으므로 논의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항상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토론자는 항상 이상적으로 토론하도록 되어있다. 제언내용은 토론자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한계를 넘어 확대 논의된 부분도 있을 것이며 연구결과가 가지는 중요한 가치를 간과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물론 토론자도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고민되어야 할 지점이라 지적한 것이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김경민·정익중(2009). 위탁아동의 친가족 경험의 심리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 pp.93-120.
- 노충래·정익중·전종설(2012).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학대 발생방지 방안. 법무부.
- 유혜령 역(2002). *유아교육이론 해체하기: 비판적 접근*. 서울: 창지사.
- 정익중(2011). 방임, 과보호, 사교육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2011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pp. 68-103.





제 3 주제 후속출산

1. 첫자녀를 둔 가구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발표: 정미라(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박수경(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홍소영(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시간강사)

토론: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2. 어머니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종단관계 연구: 후속출산 의도 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 집단 간의 비교

발표: 이영환(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토론: 정현숙(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첫자녀를 둔 가구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ed Having
a Second Child among Families with One Child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정미라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박수경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시간강사 홍소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중 만 2세의 첫자녀를 둔 가구 중 둘째자녀 출산을 한 177가구와 그렇지 않은 555가구를 대상으로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 자녀를 둔 가구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의 취업여부와 부의 결혼만족도 순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후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특성 등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I. 서론

2011년 우리나라 여성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인구 대체수준은 물론 OECD국가의 평균 출산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2). 우리나라 여성합계출산율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지났고, 2005년 최저점 1.08명을 기록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인구증가 정책에 힘입어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최근 많은 학자들은 우리사회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개인이나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이삼식, 2010).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 ‘새로마지플랜 2010’에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고, 2011년부터는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5’를 확정하면서 결혼, 출산,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취업여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만 5세 아 전면 무상교육에 이어 0~2세 보육료의 무상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으나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박석희, 2007). 결국 출산여부 및 자녀수의 결정은 다양한 원인과 현상이 서로 맞물려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측면과 같은 거시적인 관점 뿐 아니라, 각 가정의 경제적인 특성 및 부모와 자녀의 특성 등과 같은 미시적인 관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원인과 연관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가족구조의 변화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남아선호사상 등이 있다. 전통적 대가족 구조나 부모와의 동거는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최은영, 2011), 가족 내 성평등 문화(McDonald, 2006)에 따른 남편이나 사회적 지원도 후속출산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농경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이되면서 자녀에 대한 효용가치가 저하되거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보다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고 남편이 가정의 주된 생계자라는 의식이 약할수록 출생자녀수가 적어지는 경향도 있다(이삼식, 2006).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자녀에 대한 소비욕구를 증가시킴으로써 후속출산을 기피하게 하기도 한다(박수미, 2008; 차경옥, 2005). 이와 같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가치관은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후속출산 의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자녀가치관, 즉 자녀에 대한 선호요인이라고 밝혔다(박찬화, 2012; 송영주, 이주옥, 김준경, 2011; 이성용, 2009; 이정원, 2006). 더구나 둘째 아 이상의 출산은 첫째아와는 달리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좀 더 다양한 현실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으며(김정석, 2007; 박정희, 장영애, 2003) 전통적 가족관이나 자녀관이 후속출산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주택 소유여부,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여부, 자녀양육비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 또한 출산율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1997년 말 이후 우리사회가 경험한 급격한 경기침체와 경제적 불안이 자녀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켜 출산율이 저하되었으며(김승권, 2004), 30대 이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초혼 연령을 증가시켰다. 그 결과 첫 출산 뿐만 아니라 후속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출산 자녀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김현숙, 2007; 민현주, 김은지, 2011; 손승영, 2007; 신혜원, 최명섭, 김의준, 2009). 반면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후속출산 계획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거나(도남희, 2011), 남편의 육아참여 수준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후속출산에 대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정혜은, 진미정, 2008). 스웨덴, 프랑스 등과 같이 출산휴가, 근무시간의 유연성, 질 높은 보육시설의 보장 등으로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이 함께 높은 경향을 보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취업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출산율과 취업률이 모두 낮은 경향을 갖는다(Brewstin & Rindfuss, 2000).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의지에 긍정적이며 기대자녀수 또한 더 많다는 결과도 있으나(공선영, 2006; 류연구, 2005; 안윤숙, 이상호, 2010; 이미란, 2010), 반대로 소득수준의 향상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신연수, 2003). 교육수준 향상이나 소득 수준의 증가는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높임으로써 자녀수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김현숙, 2007). 게다가 자녀에 대한 수요는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과 어머니의 시간 비용 등을 합한 상대적 자녀비용과 총 지원 제약 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Becker(1993)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비용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자녀수는 감소한다고 밝혔다. 도남희(2011)의 연구에서도 가구 총지출이나 아동 총 소비성 지출이 많을수록 후속출산 계획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구소득 및 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요인과 저출산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인구학적 요인이나 특성도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자녀의 성별과 관련한 영향은 주로 남아선호사상과 같이 특정 성(gender)에 대한 선호가 뚜렷한 사회일수록 크다(Pollard & Margan, 2002). 우리나라에서는 첫째아가 남아보다 여아인 경우 후속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박수미, 2008), 최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점차 약화되거나(이삼식 외, 2005; 최은영, 2011) 둘째아 출산보다 셋째아 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용, 2009). 결혼 연령의 증가로 인한 여성의 만혼도 두 번째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혜영, 선보영, 김상돈, 2010; 민현주, 김은지, 2011; Kohler, 2001; Wong, Tang, Ye, 2011). 부모의 교육 수준 또한 출산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공선영, 2006; 윤소영, 2005; 천혜정, 2005),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자체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한다고 밝하고 있다(김현숙, 2007).

그 외에도 가족 내의 심리적 요인 중 가족 관계와 그 질이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강유진, 2007; Friedman, Hechter, & Kanazawa, 1994),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갈등이 낮으며 부부가 자녀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있을 때 후속출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남희, 2011; 송영주, 이주옥, 김춘경, 2011). 모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부부갈등(최은영, 2011), 부모의 첫째아 출산 및 양육 경험(김정석, 2007; 박정

희, 장영애, 2003)이 후속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저출산 현상이 우리사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저출산 관련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김승권, 2001; 박석희, 2007; 방경숙, 2007, 이삼식 외,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최근 들어 후속출산과 관련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후속출산 계획 및 의도, 이상적인 자녀 수 등과 같이 실제 출산 행위보다는 출산에 대한 계획 및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들이다(강유진, 2007; 공선영, 2006; 김정석, 2007; 서문희, 2010; 서미정, 2011; 이인숙, 2005; 이형민, 2012). 게다가 출산은 주로 여성의 일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 어머니 변인을 중심으로 취업유무, 연령,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가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어, 아버지 관련 변인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하여 2008년 아동패널에 참여한 시점에 첫째아를 둔 가구 중 2010년 조사 시점에 이르기까지 후속출산을 한 가정과 후속출산을 하지 않는 가정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별 후속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 연구가 대부분 부부의 후속출산 계획이나 의도를 밝히고 있는 점과 달리 실제 출산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사회 문화적, 경제적, 부모 및 자녀 특성을 비교해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후속출산 가구와 비출산 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 2) 후속출산 여부와 사회문화적, 경제적, 부모 및 아동의 특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3) 후속출산 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2008년 한국아동패널 일반조사 최종표본인 2,078 가구 중에서 출생순위가 첫째인 가구 983명을 선정하였고 이 중 1, 2, 3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798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66명의 패널을 제외하였으나, 각 변인별 분석 인원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최종적으로 3차년도까지 둘째아를 출산한 가구와 둘째아를 출산하지 않은 가구 총 732가구이다(표 1 참조).

<표 1> 연구대상

분류	n	%
둘째아 출산 유	177	24.2
둘째아 출산 무	555	75.8
합계	732	100.0

주: 각 변인별 사례수는 결측치를 제외한 총 사례수로서 전체 사례수보다 작은 경우가 있음.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둘째아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기 위하여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부모 및 자녀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3차년도의 출산이 각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출산이 이루어지기 전인 2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각 요인에 따른 주요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자녀가치, 사회적 지원, 부의 자녀양육참여,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가구원수, 조부모 동거여부, 기대자녀 성별 등의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사용하였다.

자녀가치는 Wollett(1991)의 도구를 사용하여 부모 각자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등의 정서적 가치,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등의 도구적 자녀가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원은 이재림과 옥선희(200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의 자녀양육참여는 강의경(1998)의 도구를 사용하여 어머니가 응답하였으며 ‘남편은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 준다.’,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 등 총 4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육아지원정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10개 항목(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에 대해 인식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우 불필요(1점)’부터 ‘매우 필요(5점)’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총 문항 수 및 문항 내적합치도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사회문화적 요인의 총문항 수 및 문항내적합치도

도구	총문항수	문항내적합치도(α)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치		
모의 자녀에 대한 가치	7	.755
부의 자녀에 대한 가치	7	.737
모가 인식하는 부의 양육참여 정도	4	.801
모의 사회적 지원 인지 정도	12	.935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	10	.920

2) 경제적 요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 월 평균 가구소득, 가구 총 소비성 지출(식비, 주거비 등), 아동 총 소비성 지출(패널 대상 영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사용하였다.

3) 부모 및 자녀 요인

부모 및 자녀 요인으로 부모의 결혼만족도, 모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부모의 연령, 학력, 취업여부, 첫째아 성별, 이상 자녀수와 기대성별, 결혼 유지 기간 관련 응답 결과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Chung(2004)의 도구를 사용하여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의 질문에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으로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4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모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86)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등의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

모의 자기효능감은 PSID-CDS의 Pearlin Self-Efficacy Scale(Mainieri, 2006)를 신나리 외(2007)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개의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을 의미하므로 역점수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모의 양육스타일은 Bornstein 외(1996)가 사용한 PSQ(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5점 척도로 총 6문항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스타일을 의미한다.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를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신나리 외(2007)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부모 요인에 대한 총 문항 수 및 문항 내적합치도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 부모 요인의 총 문항 수 및 문항 내적합치도

도구	총문항수	문항내적합치도(α)
부모의 결혼만족도		
모의 결혼만족도	4	.921
부의 결혼만족도	4	.914
모의 자아존중감	10	.856
모의 자아효능감	4	.828
모의 양육스타일	6	.834

3. 자료 분석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차분석,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후속출산 여부와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후속출산 유무를 준거변인, 후속출산 유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변인을 설명변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승산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부모 및 자녀 특성 요인에 대하여 교차분석 및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1) 사회문화적 요인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사회문화적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치, 사회적 지원, 부의 자녀양육참여, 육아지원정책, 가구형태에 대하여 교차분석 및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부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t=2.609, p<.01.$), 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t=2.023, p<.01.$)에서 후속출산 유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와 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후속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자녀가치의 차이

구분	후속출산 유			후속출산 무			t	
	<i>n</i>	<i>M</i>	<i>SD</i>	<i>n</i>	<i>M</i>	<i>SD</i>		
부	정서적 가치	171	4.52	.56	539	4.49	.49	.773
	도구적 가치		3.41	.75		3.23	.77	2.609**
모	정서적 가치	177	4.41	.51	554	4.31	.59	2.023**
	도구적 가치		2.96	.76		2.81	.79	1.727*

** $p<.01$

<표 5>와 같이 사회적 지원, 부의 자녀양육참여 및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에서는 후속출산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후속출산은 사회적 지원, 부의 자녀양육참여, 육아지원정책 인식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5>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부의 사회적 지원, 자녀양육참여, 육아지원정책 인식 차이

구분	후속출산 유			후속출산 무			t
	<i>n</i>	<i>M</i>	<i>SD</i>	<i>n</i>	<i>M</i>	<i>SD</i>	
사회적 지원	176	3.88	.64	554	3.88	.64	.075
부의 양육참여	177	3.78	.90	553	3.89	.64	.510
육아지원정책 인식	177	4.49	.65	554	4.52	.60	-.660

<표 6>과 같이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조부모 동거여부와 부부와 자녀를 제외한 가구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후속출산이 조부모 동거여부 및 기타 가족 구성원의 수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6>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가구 형태의 차이

단위: 명(%)

구분	후속출산 유	후속출산 무	df	χ^2
조부모 동거여부				
조부모 동거	14(8.0)	56(10.1)	1	.704
조부모 비동거	162(92.0)	499(89.9)		
전체	176(100.0)	555(100.0)		
부부와 자녀를 제외한 가구원수				
2명 이하	161(91.0)	492(88.6)		
3명 이상-4명 이하	13(7.3)	53(9.5)	2	.813
5명 이상	3(1.7)	10(1.8)		
전체	177(100.0)	555(100.0)		

2) 경제적 요인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경제적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월 평균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 총 소비성 지출, 아동 총 소비성 지출, 주택 소유여부에 대하여 교차분석 및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7>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경제적 특성의 차이

단위: 명(%)

	구분	후속출산 유	후속출산 무	df	χ^2
월평균소득	300만원 미만	91(51.4)	234(42.2)	1	4.652*
	300만원 이상	86(48.6)	321(57.8)		
가구소득	월평균 소비성지출 100만원 미만	31(17.5)	79(14.2)	2	1.147
	100만원 이상-149만원 이하	45(25.4)	144(25.9)		
	150만원 이상	101(57.1)	332(29.8)		
아동총소비성지출	50만원 이하	130(73.4)	368(66.3)	2	3.638
	51만원 이상-99만원 이하	30(16.9)	130(23.4)		
	100만원 이상	17(9.6)	57(10.3)		
주택 소유여부	주택 소유	65(36.7)	208(37.5)	1	.033
	주택 비소유	112(63.3)	347(62.5)		
	전체	177(100.0)	555(100.0)		

* $p<.05$

<표 7>과 같이, 경제적 특성에서는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가구의 월평균 소득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4.652$, $p<.05$)가 발견되었다. 즉 후속출산 집단은 그

령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월 평균 가구 소득이 후속출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속출산 집단의 51.4%가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었으며, 48.6%가 300만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후속출산이 없는 집단의 42.2%가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었으며, 57.8%가 300만원 이상이었다.

3) 부모 및 자녀 요인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부모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연령, 학력, 취업 여부, 결혼만족도, 결혼 유지기간, 모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교차분석 및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후속출산 유	후속출산 무	df	χ^2
연령	부 30세 이하	56(31.6)	110(19.9)	1	10.531**
	부 31세 이상	121 (68.4)	443(80.1)		
	전체	177(100.0)	553(100.0)		
	모 30세 이하	109(61.6)	257(46.3)	1	12.526**
	모 31세 이상	68(38.4)	298(53.7)		
	전체	177(100.0)	555(100.0)		
학력	부 고졸 이하	94(53.1)	251(45.4)	2	3.205
	부 대졸 이상	83(46.9)	302(54.6)		
	전체	177(100.0)	553(100.0)		
	모 고졸 이하	100(56.5)	289(52.1)	1	1.055
	모 대졸 이상	77(43.5)	266(47.9)		
	전체	177(100.0)	555(100.0)		
취업	부 취업	174(98.3)	546(98.7)	1	.235
	부 비취업	3(1.7)	7(1.3)		
	전체	177(100.0)	553(100.0)		
	모 취업	48(27.1)	212(38.2)	1	7.193**
	모 비취업	129(72.9)	343(61.8)		
	전체	177(100.0)	555(100.0)		

** $p<.01$

후속출산 유무에 따라 부모의 연령($\chi^2=12.526$, $p<.01$)과 모의 연령($\chi^2=10.531$, $p<.01$)과 모의 취업 여부($\chi^2=7.193$,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후속출산

집단의 경우, 부모의 연령이 30세 이하인 집단의 비율이 높았으나, 후속출산이 없는 집단의 경우에는 부모의 연령이 31세 이상인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연령이 후속출산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한편 후속출산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비취업모의 비율이 높은 반면, 후속출산이 없는 집단은 취업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모의 취업 여부가 후속출산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후속출산 여부에 따라 모의 취업여부의 비율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후속출산 집단에서의 취업모 비율은 27.1%, 비취업모의 비율은 72.9%인데 비하여, 후속출산이 없는 집단에서는 취업모 비율이 38.2%, 비취업모의 비율이 61.8%로 후속출산 집단의 비취업모 비율과 후속출산이 없는 집단에서의 취업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부모의 결혼 및 양육 관련 변인 차이

구분	후속출산 유			후속출산 무			<i>t</i>
	<i>n</i>	<i>M</i>	<i>SD</i>	<i>n</i>	<i>M</i>	<i>SD</i>	
결혼만족도 부모	171	4.50	.59	534	4.36	.68	2.572**
	177	4.01	.74	554	3.95	.83	1.010
결혼 유지기간	172	2.13	1.33	545	2.53	1.80	-2.729**
모의 자아존중감	176	2.42	.21	555	2.43	.21	-1.706
모의 자기효능감	176	3.70	.76	555	3.71	.76	-.331
모의 양육스타일	177	3.90	.49	555	3.95	.50	-1.091
모의 양육스트레스	177	3.30	.62	555	3.34	.64	-.810

***p*<.01

한편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후속출산 유무 집단 간에 부의 결혼만족도(*t*=2.572, *p*<.01)와 결혼 유지기간(*t*=-2.729, *p*<.01)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결혼 유지기간이 짧은 집단에서 후속출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자녀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아 성별, 이상 자녀 수, 기대자녀 성별에 대하여 교차분석 및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첫째아 성별, 이상적인 자녀수, 이상 자녀의 기대 성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10>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자녀 요인 차이

단위: 명(%)

구분		후속출산 유	후속출산 무	df	χ^2
첫째아 성별	남아	94(53.1)	292(52.6)	1	.013
	여아	83(46.9)	263(47.4)		
	전체	177(100.0)	555(100.0)		
부 이상 자녀수	2명 이하	5(2.9)	35(6.5)	1	3.142
	3명 이상	166(97.1)	502(93.5)		
	전체	171(100.0)	537(100.0)		
모 이상 자녀의 기대성별	2명 이하	5(2.8)	17(3.1)	1	2.185
	3명 이상	171(97.2)	535(96.9)		
	전체	176(100.0)	552(100.0)		
부 이상 자녀의 기대성별	딸, 아들 구분없이	78(48.8)	278(56.5)	1	2.929
	딸, 아들 구분해서	82(51.2)	214(43.5)		
	전체	160(100.0)	492(100.0)		
모	딸, 아들 구분없이	94(55.6)	292(56.0)	1	.009
	딸, 아들 구분해서	75(44.4)	229(44.0)		
	전체	169(100.0)	521(100.0)		

2.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관계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1) 부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 (2) 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 (3) 월 평균 가구소득, (4) 모 연령, (5) 부 연령, (6) 모 취업여부, (7) 결혼 유지기간, (8) 부의 결혼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들 간의 상관은 <표 11>과 같다. 이를 후속출산 유무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후속출산 유무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는 부의 결혼 만족도 ($r=.097, p<.01$), 부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r=.074, p<.05$), 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r=.098, p<.01$), 모의 취업여부($r=.099, p<.01$)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가 높을수록, 모의 자녀에 관한 정서적 가치가 높을수록, 모가 비취업 상태일수록 후속출산이 일어남을 시사한다. 또한 후속출산 유무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변인은 모 연령($r=-.133, p<.01$), 부 연령($r=-.138, p<.01$), 월 평균 가구소득($r=-.088, p<.01$), 결혼 유지기간 ($r=-.102, p<.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결혼 유지기간이 짧을수록 후속출산이 일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후속출산에 영향을 주는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 변인은 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r=.175$, $p<.01$), 부의 결혼만족도($r=.144$, $p<.01$)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부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는 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높을수록, 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는 부의 결혼만족도 변인($r=.135$, $p<.01$), 모 취업여부($r=.113$, $p<.01$)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는 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모가 비취업 상태일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월 평균 가구소득은 부 연령($r=.119$, $p<.01$), 모 연령($r=.134$, $p<.01$), 모의 취업여부($r=-.321$, $p<.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월 평균 가구소득은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모가 비취업 상태일수록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의 연령 변인은 부 연령($r=.704$, $p<.01$), 결혼 유지기간 ($r=.415$, $p<.01$), 월 평균 가구소득($r=.134$, $p<.01$)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모의 연령과 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 평균 가구소득과 결혼 유지기간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3. 후속출산 유무에 영향을 주는 변인

첫째아 가구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부모 및 자녀 관련 특성이 후속출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그것을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표 11>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상호상관

	1	2	3	4	5	6	7	8	9
1	1								
2	.175**	1							
3	-.006	-.031	1						
4	-.035	-.057	.134**	1					
5	-.049	-.046	.119**	.704**	1				
6	-.013	.113**	-.321**	-.007	.049	1			
7	-.052	-.054	.017	.415**	.362**	.073	1		
8	.144**	.135**	-.011	.017	.022	.044	-.068	1	
9	.074*	.098**	-.088*	-.133**	-.138**	.099**	-.102**	.097*	1

주: 1. 부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 2. 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 3. 월 평균 가구소득 4. 모 연령 5. 부 연령, 6. 모 취업여부 7. 결혼 유지기간 8. 부의 결혼만족도 9. 후속출산 유무

* $p<.05$ ** $p<.01$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준거변수가 이분반응(0, 1)이고, 설명변수가 동간, 서열, 혹은 명목 변수일 때 준거변수와 설명변수 간 관계를 추정하는 통계적 방법이다(Howel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속출산 유무를 준거변인, 후속출산 유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변인을 설명변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기 회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log\left[\frac{p}{1-p}\right] = \beta_0 + \beta_1\chi_1 + \beta_2\chi_2 + \beta_3\chi_3 + \beta_4\chi_4 + \beta_5\chi_5 + \beta_6\chi_6 + \beta_7\chi_7 + \beta_8\chi_8$$

p : 후속출산 확률

χ_1 : 모연령, χ_2 : 부연령, χ_3 : 월평균가구소득, χ_4 : 모취업여부, χ_5 : 부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

χ_6 : 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 χ_7 : 결혼유지기간, χ_8 : 부결혼만족도

후속출산 유무의 초기 로지스틱 모형에는 총 8개의 설명변수가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 모 취업여부와 부의 결혼만족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후속출산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계수 및 유의도 검증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i>B</i>	<i>S.E.</i>	<i>Wald</i>	<i>df</i>	<i>sig</i>	Exp(<i>B</i>)	95% C.I.	
							하한	상한
부_자녀 도구적 가치	.182	.126	2.080	1	.149	1.200	.937	1.537
모_자녀 정서적 가치	.212	.171	1.529	1	.216	1.236	.883	1.729
월평균소득	.000	.001	.706	1	.401	1.000	.998	1.001
모 연령	-.034	.038	.817	1	.366	.966	.897	1.041
부 연령	-.063	.035	3.272	1	.070	.939	.877	1.005
모_취업여부	-.451	.220	4.213	1	.040	.637	.414	.980
결혼 유지 기간	-.093	.072	1.630	1	.202	.912	.791	1.051
부_결혼만족도	.314	.155	4.085	1	.043	1.368	1.010	1.854
constant	-.432	1.341	.104	1	.747	.649		
$\chi^2(df)$						40.788(8)***		

주: 모의 취업여부는 범주형 변수임.

*** $p < .001$.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후속출산 유무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수는

모의 취업여부이고, 다음으로 부의 결혼만족도로 나타났다. 즉 모가 비취업 상태일수록, 그리고 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후속출산에 더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를 Wald 검증으로 실시한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귀계수가 정적이어서 $\text{Exp}(B)$ 값도 1 이상이었는데, 이는 부의 결혼만족도가 후속출산에 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의 결혼만족도의 경우 $\text{Exp}(B)$ 값이 1.368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의 결혼만족도 점수가 1점 증가함에 따라 후속출산을 할 승산은 1.368배 만큼 증가하고, 승산의 변화백분율은 $36.8\% = (100 * (1.369 - 1))$ 로 증가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모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Negelkerke R^2 , 회귀에 의한 분류율, Hosmer-Lemeshow 적합도와 같은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우선 Negelkerke R^2 은 실제로 설명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대단히 작은 값을 가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는 여러 모형들의 설명력을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할 때 보충적인 통계량으로 사용되어진다. 본 연구의 모형을 통해 산출된 Negelkerke R^2 은 8.6%이었다.

회귀에 의한 분류표에 따르면 전체의 76%가 정확히 분류되었으며, 전체 표본 집단을 순서대로 일정 수로 분할하여 실제 관측수치와 예측수치를 비교하는 분할표에 근거하여 모형이 적합한지 검증하는 Hosmer-Lemeshow 적합도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13은 실제 관측치와 모형에 의한 기대치의 차이가 거의 없어 이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 13> 후속출산 유무에 대한 Hosmer-Lemeshow 적합도

χ^2	df	p
9.570	8	.296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를 둔 영아가구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부모 및 아동 특성이 후속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출산 유무에 따른 사회문화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부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와 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높은 집단에서 후속출산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속출산 계획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 이형민(2012)의 연구와 취업모의 자녀가치관 변인이 취업모의 둘째아 출산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박찬화(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정혜은과 전미정(2008)도 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높다고 하였다.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며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주고 노년에 덜 외로울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어머니일수록, 그리고 자녀의 존재로 인하여 노후의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할수록 후속출산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자녀가치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김승권, 2004)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치가 출산의도 뿐 아니라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원, 부의 자녀양육참여,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에서는 후속출산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양육지원정책이 둘째아 출산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김종백, 유은영, 2010; 박찬화, 2012; 이정원, 2009)와는 맥을 같이 하지만 직접적인 양육지원제도의 이용경험이 둘째아 출산계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박승희, 김사현, 2008)도 있기 때문에 양육지원정책과 후속출산과의 관련성을 실제적 수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후속출산 유무에 따라 경제적 요인과 부모 및 자녀의 특성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월 평균 소득가구, 모 연령, 부 연령, 모의 취업여부, 결혼 유지기간, 부의 결혼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실제적으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적은 경우, 부부의 연령이 낮거나 결혼 유지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남희(2011)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소득이 높은 집단, 가구 총지출이나 아동 총소비성 지출이 많을수록 후속출산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지만,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후속출산 계획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후속출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최은영, 2011)와 일치한다. 따라서 후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특성을 제고하여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후속출산 유무를 준거변인, 후속출산 유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8개의 설명변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 자녀를 둔 가구의 후속출산 유무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수는 모의 취업여부이고, 다음으로 부의 결혼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후속출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구학적 변인보다는 모의 취업여부나 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이

었다. 하지만, 출산이라는 행위는 부모의 연령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출산을 위해서는 공적인 양육정책의 성공적인 안착도 필요하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지원하는 출산정책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패널이 만 2세 영아임을 고려할 때 부모가 첫째아 양육에 집중함으로써 둘째아 출산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계점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증적 연구가 후속출산 계획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후속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특성들(사회문화적, 경제적, 부모 및 자녀 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후속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특성들(사회문화적, 경제적, 부모 및 자녀 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출산율 저하는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문화적, 가치관적 요인 및 각 가정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임을 인식하여 후속출산 관련 연구는 다양한 요인들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예측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진(2007).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4), 639-653.
- 공선영(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 119-149.
- 김승권(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27(2), 1-34.
- 김승권(2001).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의 변화 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석(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 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3), 97-116.
- 김종백·유은영(2010). 기혼여성의 후속출산 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제 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81-394.
- 김현숙(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결정 요인에 관한 Count 모형 분석 및 경제적 함의. *한국인구학*, 30(3), 107-135.
- 김혜영·선보영·김상돈(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도남희(2011). 만 1세 영아가구의 후속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 5차 육아 지원정책 포럼, 15-29.
- 류연규(2005). 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 사회보장연구, 21(3), 233-261.
- 민현주·김은지(2011). 출산 순위별 출산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학*, 45(4), 198-222.
- 박석희(200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현안분석 제 14호*.
- 박수미(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 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5-73.
- 박승희·김사현(2008). 여성노동자의 저출산 원인과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정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페러다임센터.
- 박정희·장영애(200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31-44.
- 박찬화(2012). 10개월 이하 영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체계, 자녀가치관 및 심리적 안녕감이 둘째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1), 95-111.
- 방경숙(2007). 미취학아동 어머니의 모자보건관련 특성, 양육부담감, 사회적지지에 대한 사회계층별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13(4), 390-398.
- 서문희(2010).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이 추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5(1), 127-148.
- 서미정(2011).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5(1), 127-148.
- 손승영(2007). 한국 사회 저출산의 단계별 분석과 젠더 논의. *담론* 201, 10(1), 207-243.
- 송영주·이주옥·김춘경(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후속출산 계획 관련 심리 사회적 요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185-206.
- 신연수(2003). 한국의 지역별 출산율 수렴과 외부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11, 95-118.
- 신혜원·최명섭·김의준, (2009). 서울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미치는 가구 특성의 요인분석. *서울도시연구*, 10(2). 33-47.
- 안윤숙·이상호(2010). 공보육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3, 227-258.
- 윤소영(2005).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56-166.
- 이미란(2010). 기혼 여성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99-121.
- 이삼식·정윤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신인철·도세록·조숙경·강주희(2005). 2005년

- 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삼식(2010). 2010년도 저출산 대응정책의 과제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66-73.
- 이성용(2009).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분석. *한국인구학*, 32(1), 51-70.
- 이인숙(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37(4), 67-90.
- 이정원(2006).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 합리적-가치적 선택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원(2009).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 결정 경로분석: 가치관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1), 323-351.
- 이형민(2012). 후속출산 계획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 영아기 자녀를 둔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70, 1-31.
- 정혜은·진미정(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47-164.
- 차경숙(2005). 저출산 가계와 출산 계획이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37-148.
- 천혜정(2005).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간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25-33.
- 최은영(2011). 후속출산의도 관련 변인 판별분석. 제 5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1-12.
- 통계청(2012). 2011년 출생잠정통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 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 정책 2009-60.
- Brewsttin, K., & Rindfuss, R. R. (2000). Fertility and woma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271-296.
- Howell, D. C. (2007). *Statistical Methods for Psychology*(6th Ed.). Australia: Thomson/Wadsworth.
- Kohler, H. P. (2001). Progression ratios with continued fertility posrponement: 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delayed childbearing for fertility in Sweden, the Netherlands and Spai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Working Group on Low Fertil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ow Fertility- Trends, Theories and Policies*, Toyko: Mauldin.
- McDonald, P. (2006). La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3), 427-439.
- Pollard, M. S., & Margan, P. (2002). Emerging parental gender indifference? Sex composition of children and the third bir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4), 600-613.
- Wong, C., Tang, K., & Ye, S. (2011). The perceived importance of family-friendly policies to childbirth decision among Hong Kong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0(4), 381-392.

“첫 자녀들을 둔 가구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에 대한 토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이삼식

우선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축하한다. 벌써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내실 있게 역사를 쌓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본 자료를 이용한 논문들도 깊이를 더해가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제가 토론을 맡은 논문은 “첫 자녀들을 둔 가구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만혼화(비혼화)와 기혼여성의 출산 축소에 기인 한다. 기준의 많은 자료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평균출생아수는 1.5명과 2.0명 사이에 있다. 물론 완결출산력(completed fertility)의 개념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거의 2.0명에 근접한다. 첫 자녀를 둔 부부가 둘째자녀로 얼마나 이행하는가는 기혼여성들 사이에 완결출산력이 2.0명에 도달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더 나아가서 비혼화 경향을 감안한다면 첫 자녀에서 둘째자녀로 이행 비율 즉 parity progression ratio($1 \rightarrow 2$) 수준은 완결출산력을 2명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현재 아주 낮은 수준의 출산율(기간합계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첫 자녀에서 둘째자녀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논문은 전반적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료된다. 문제제기가 명료하고,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의 목적을 명료화하고 있다. 이후 논문의 구성은 매우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만,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본 논문은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관계로 이용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독자를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에 대한 필요한 설명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본 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상이나 변인들과 연관하여 한국아동패널의 성격은 물론 분석에의 적합성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논문은 첫 자녀에서 둘째자녀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t -검증, 상관계수(r), 위계적 로지스틱 등 세 가지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영역을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부모 및 자녀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여부는 다른 경제적 요인들을 감안하면 부모 및 자녀 요인으로보다 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석 및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영역 분류가 가지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분석 상 영역 분류는 자체적으로 목적이 분명하여야 하고, 분석 결과로도 도출될 필요가 있다.

셋째, t -검증 분석 결과로서 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후속출산이행) 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변량분석에서 지나치게 단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이후 다변량분석 결과와 모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실제 t -검증 결과 8개 독립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두 개의 변인들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

넷째, 상관계수 분석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다변량분석을 실시할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t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보인 8개 변수와 종속변인들과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이를 8개 변수 모형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상관계수 역시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t -검증과 마찬가지로) 각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섯째,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위계적 로지스틱 분석 결과 2개의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앞서 t -검증과 상관분석의 결과와 아주 다르게 나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위계적 로지스틱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은 변인들에 대한 해석 내지 원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후 주요 변인 각각이 첫 자녀 이후 출산이행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본 논문의 주제로서 영향요인 탐색에 매우 중요하다. 세 가지 분석방법을 적용한 결과로서 분석방법 간 서로 다른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함께 학술적 및 정책적 시사점들이 충분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결론 부문에서도 각 분석방법의 적용 결과가 다소 뒤범벅되어 논의되고 있다. 각 분석방법을 적용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각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시사점들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곱째, 다변량분석 결과 모의 취업여부와 부의 결혼만족도만이 첫 자녀 출산 후 후속 출산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혹시 t -검증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변인들을 위계적 로지스틱 모형에 포함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다. 본 분석결과로 보면 너무나 한정적인 변수만이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정책

적인 관점에서 많은 고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한편, 각각 변인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이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항들은 연구자들이 추후 본 논문을 학술지 등에 게재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검토할 사항들에 불과하다. 토론자가 제시한 고려사항들은 별도의 실증적인 작업 없이 논문을 읽고 주관적인 생각한 것으로서 혹시 옳지 않다면 연구자들의 넓은 아량을 구한다.

어머니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종단관계 연구

: 후속출산 의도 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 집단 간의 비교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 Multigroup Analysis across Additional Birth Plan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영환

본 연구 목적은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우울 간의 종단 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후속출산 의도 집단 577명과 후속출산 비의도 집단 1079명 등 총 1656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3회 측정한 종단자료에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 ARC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우울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변인간의 관계성은 후속출산 의도 집단명과 후속출산 비의도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통계를 통하여 인식하기 시작한 저출산 현상이 실제 생활 속에서 감지되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시작하였음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출산장려는 이제 대중적, 학문적, 정책적 관심을 받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현상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 아래, 그동안 저출산의 인구학적 요인, 경제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과 함께 최근에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까지 논의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및 자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상적인 자녀수는 2.3명 정도로 나타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관적이어서 한국아동패널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이상 자녀수가 2명이라는 응답자는 56.9%, 3명은 29.6%, 그리고 4명이상이라는 응답자도 9.9%인 반면에 이상 자녀수가 1명이라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이정림,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이예진, 2010). 사실 첫째아 출산은 결혼한 부부의 선택이기보다 사회적으로 기대되어지는 자연스런 행동이지만, 둘째아 이후의 출산은 부부의 선택의 문제, 즉 개인적인 가치와 경험에 따라 출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이정원, 2007; 정혜은, 진미정, 2008). 이러한 측면에서 첫째자녀 이후 출산계획을 알아볼 수 있는 후속출산의 경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구학적·경제학적 관점 뿐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출산 관련 생각이나 가치관, 정서특성과 같은 문화적 측면과 심리적 이유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임현주, 이대균과 조향준(2011b)은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부특성, 출산관련 정서, 어머니 정서특성을 분석한 결과¹⁾ 부부특성과 출산 관련 정서가 어머니 정서를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후속출산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정적 상태의 부부특성은 어머니의 정서특성에 그대로 반영되어 강한 부정적 작용을 하게 되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머니가 후속출산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특성 변인으로서 많이 거론되는 변인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요인이다. McDonald(2000; 박수미 2008, 재인용)의 출산율 감소이론은 성형평성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경제 활동참여율, 임금, 고등교육에서의 성별차이와 같은 개인대상 제도와 가정에서의 성별에 따른 분업과 같은 가정대상 제도에서 불평등의 정도와 갈등이 높을수록 저출산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여성의 가정 내에서 가사와 양육의 책임을 모두 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불평등한 삶을 택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양육, 가사일의 2중 3중 부담을 택하기보다는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가정내 성형평성 문제는 후속출산계획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박수미(2008)는 여성은 출산으로 파생되는 여러 추가되는 부담을 혼자 떠맡기 보다는 출산하지 않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안정과 편안함을 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후속출산 관련 선행연구들(서미정, 2010; 이형민, 2012; 임현주, 이대균, 조향준, 2011a)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후속출산계획을 갖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성역할 평등의식을 가지고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1) ‘부부특성’은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및 부부갈등, ‘출산관련 정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 우울 및 자녀 기대성별, 그리고 ‘어머니 정서특성’에는 자기 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였다.

때 어머니의 부담이 줄어들며, 이로 인하여 자녀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이형민, 2012). 임현주, 이대균, 최향준(2011a) 연구에서도 남편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부부갈등과 같은 부부특성과 출산전후의 정서는 여성의 정서특성(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후속출산계획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 즉 남편의 양육참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부부갈등이 높아지며 이러한 부정적 부부특성은 여성의 정서특성에 반영이 되어 후속출산에 부정적 영향을²⁾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 정서특성이 후속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한 방안으로서 아버지 양육참여를 적극적으로 높여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송영주, 이주옥과 김춘경(2011) 역시 저출산 관련 요인을 고찰한 연구들이 대부분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요구되어 왔을 뿐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변인 관계는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아동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모 및 부부역할 변인이 후속출산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어머니는 후속출산이 계획이 없는 어머니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더 높고 부부갈등이 적으며, 부모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양육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수준의 신생아 패널을 구축함으로써 단일연령 집단의 횡단적 자료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수행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병원에서 대상자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후속출산 의도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아동패널의 특성을 살려 후속출산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후속출산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으로서 결혼만족도와 우울 변인을 선택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부부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후속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형민, 2012 ; 임현주, 이대균, 최향준, 2011a), 부부관계가 개선된다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도 경감되어 후속출산계획으로 이끌 수 있을 것(서주현, 김진경, 2010)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를 선택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정서특성은 부부특성과 출산율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임현주, 이대균, 최향준, 2011a), 특히 우울은 전업주부의 경우 후속출산 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2) 아동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였으며, 부모 및 부부역할 변인으로는 부모됨의 태도와 양육관련 스트레스,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변인을 포함하였다.

있다(송영주, 이주옥 외, 2011)는 점에서 우울 변인을 선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특성을 살리고자 종단연구모형을 선택하였다. 즉 2008년부터 2010년 3회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관계가 시간에 걸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후속출산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 집단 간에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후속출산 의도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우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후속출산 의도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결혼만족도의 우울에 대한 영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는 후속출산 의도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우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는 후속출산 의도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 1~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전국 6개 권역별(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로 충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2008년 4~7월에 표집 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서 조사 참여에 동의한 표본 중, 패널 참여의사가 있는 2,078명의 신생아 가구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추출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은 2008년도 한국에서 출생한 신생아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다(조복희 외, 2009).

후속출산계획이란 현재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의 이후 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를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후속출산계획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머니에게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라는 질문에 ‘낳겠음’, ‘낳지 않겠음’, ‘잘 모르겠음’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 아동패널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낳

겠음(임신 중인 경우 포함)과 ‘낳지 않겠음’으로 응답한 사례만을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후속출산 의도 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례와 ‘기타’에 응답한 사례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후속출산 의도집단 577명과 후속출산 비의도집단 1079명 등 총 1656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2. 측정 도구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Chung(2004)이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Schumm, Nicois, Schectman & Grigsby, 1983)를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한 RKMSS를 사용하였다. KMSS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차원 척도로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고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 범위는 4~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만족도 측정 문항은 다음과 같다.

결혼만족도	문항1.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항2.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항3.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항4.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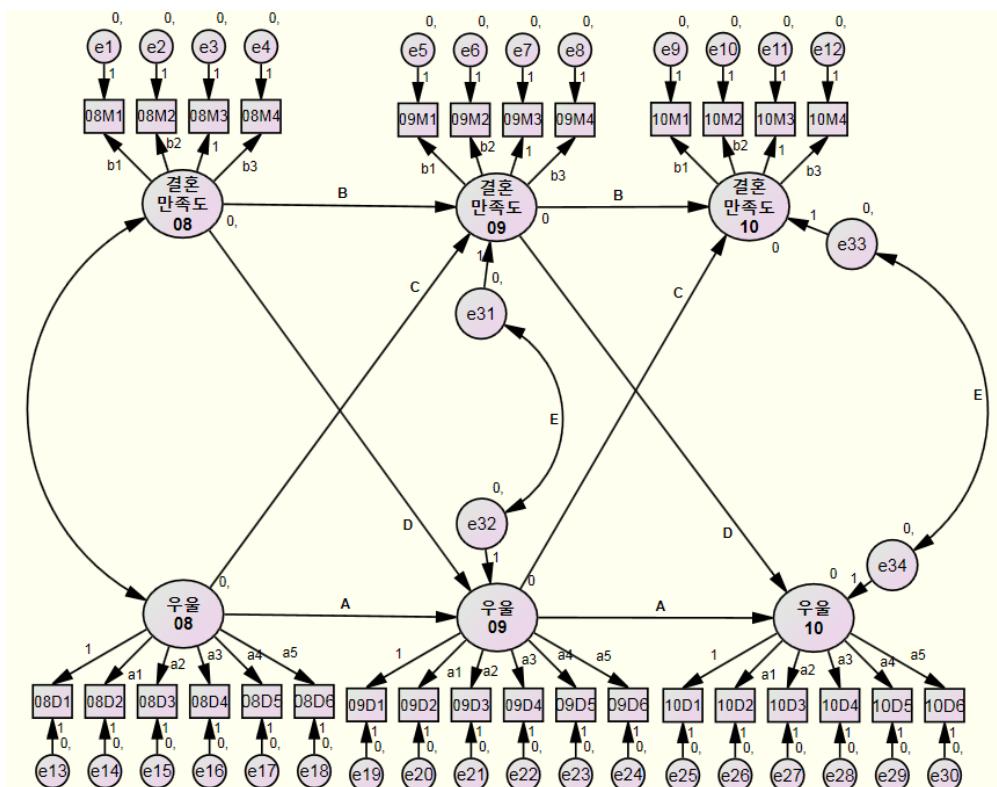
2) 우울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된 우울 척도는 'K6'로 미국 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Kessler, Andrew, Cople, Hiripi, Mroczek, Normand, Walters와 Zaslavsky(2002)에 의해 간편형으로 제작된 도구이다. 지난 30일 동안 어머니가 느끼는 우울한 느낌을 측정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안 느낌(1점)부터 ‘항상 느낌(5점)’중에서 평정하는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	문항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문항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문항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문항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문항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문항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3. 분석 모형과 방법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우울간의 종단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실시하고 그 종단관계에서의 후속출산 의도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핵심은 한 시점의 $\text{값}(t)$ 이 이전 시점의 $\text{값}(t-1)$ 에 의해 설명되어진다는 것에 있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을 다변량으로 확장시켜 두 변인 간의 상호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를 추정하기 위해본 연구에서 검증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경로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자기회귀교차지연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에서 결혼만족도와 우울을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측정오차를 통제한 후, 측정하려는 이론적 개념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데 있다. 또 다른 장점은 잠재변수의 개념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측정 불변성(metric invariance)의 가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

다는 점이다. <그림 1>에서 08, 09, 10은 각각 2008년, 2009년, 2010년에 측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과 경로동일성 그리고 오차 공분산동일성(error covariance invariance)이 성립해야 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동일한 모형이 후속출산 의도 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 집단에 모두 적절해야만 추정치 비교가 가능하므로 형태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9개의 경쟁모델을 설정하였다. A, B, C, D, E는 동일화 제약을 가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측정동일성 → 경로동일성 → 오차 공분산 동일성’의 순서로 동일성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용 프로그램인 AMOS 18을 이용해서 분석되었다. 구조 방정식 모형의 추정방법으로 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이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자료의 결측치(missing values)로 인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했거나(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TR),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Missing At Random: MAR)에 listwise 또는 pairwise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 보다 정확하게 미지수 추정을 한다(Arbuckle, 1996). 따라서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그 변수 값에 자체에 의해 결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으며, FIML을 이용하면 결측치가 있는 자료라도 분석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위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χ^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본 연구는 CFI와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모형의 적합도 뿐만 아니라 복잡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는 모형의 복잡성이 다른 (통계적으로는 자유도가 다른) 모형을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CFI와 TLI의 경우 .90 값 이상일 때, RMSEA의 경우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배병렬, 2011).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변인들에 대한 평균은 <표 1>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의 결혼만족도는 1차년도 3.04, 2차년도 3.11, 3차년도 3.07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높아지다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다시 하향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우울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감소하지만 3차년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1>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1차년도(2008년 조사)		2차년도(2009년 조사)		3차년도(2010년 조사)	
	M	SD	M	SD	M	SD
결혼만족도	3.04	.60	3.11	.62	3.07	.62
우울	2.33	.85	2.29	.84	2.36	.84

1. 형태동일성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결혼만족도와 우울 간의 종단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모형이 후속출산의도 집단과 비의도 집단 모두에 적절해야 추정치 비교가 가능하므로 모형비교를 실시하였다. 형태동일성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비교한 9개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1: <그림 1>의 모형에서 오차 사이의 공변량을 제외한 기본모형

모형 2: 모형1에 e31과 e32 사이, e33과 e34사이에 공분산을 추가한 모형

모형 3: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울’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 적재치(a1, a2, a3, a4, a5)를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4: 모형3에 추가하여 ‘결혼만족도’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 적재치(b1, b2, b3)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5: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성립된 경우 ‘우울’의 자기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성 제약(A)을 가한 모형

모형 6: ‘결혼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성 제약(B)을 가한 모형

모형 7: 시점 $[t-1]$ 의 우울이 시점 $[t]$ 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효과와 시점 $[t]$ 의 우울이 시점 $[t+1]$ 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동일한지, 즉 교차지연효과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해 결혼만족도에 대한 ‘우울’의 교차회귀계수(C)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8: 시점 $[t-1]$ 의 결혼만족도가 시점 $[t]$ 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효과와 시점 $[t]$ 의 결혼만족도가 시점 $[t+1]$ 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동일한지, 즉 교차지연효과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해 우울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교차회귀계수(D)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9: e31과 e32 사이, e33과 e34사이에 공분산(E)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형태동일성, 즉 동일한 모형이 두 집단 모두에게 적절해야만 추정치 비교가 가능하므로 9개 모형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기저모형인 모형1과 모형2의 비교, 모형2와 모형3의 비교 순으로 모형1에서 모형9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모형의 비교는 동일화제약을 가하여 CFI, TLI, RMSEA가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9개의 모형에 대한 후속출산 의도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집단에 대한 최종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 후속출산 의도 집단의 결과

모형	χ^2	df	TLI	Δ TLI	CFI	Δ CFI	RMSEA	Δ RMSEA
Yes1	1198.100	396	.919		.931		.060	
Yes2	1143.808	394	.924	.005	.935	.004	.059	-.001
Yes3	1156.373	404	.925	.001	.935	.000	.058	-.001
Yes4	1159.618	410	.927	.002	.935	.000	.057	-.001
Yes5	1160.489	411	.927	.000	.935	.000	.057	.000
Yes6	1196.985	412	.924	-.003	.932	-.003	.059	.002
Yes7	1199.311	413	.924	.000	.932	.000	.059	.000
Yes8	1199.487	414	.924	.000	.932	.000	.058	-.001
Yes9	1205.416	415	.924	.000	.932	.000	.059	.001

주: $N = 557$, 54.29%

<표 3> 후속출산 비의도 집단의 결과

모형	χ^2	df	TLI	Δ TLI	CFI	Δ CFI	RMSEA	Δ RMSEA
No1	1919.945	396	.922		.934		.060	
No2	1800.722	394	.928	.006	.939	.005	.058	-.002
No3	1818.359	404	.929	.001	.939	.000	.057	-.001
No4	1831.079	410	.930	.001	.938	-.001	.057	.000
No5	1831.435	411	.930	.000	.938	.000	.057	.000
No6	1948.494	412	.925	-.005	.933	-.005	.059	.002
No7	1953.990	413	.925	.000	.933	.000	.059	.000
No8	1954.520	414	.925	.000	.933	.000	.059	.000
No9	1956.792	415	.925	.000	.933	.000	.059	.000

주: $N = 1079$

9개 모형에 대한 후속출산 의도 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 집단의 검증 결과 <표 2>, <표 3>에서 보듯이 기저모형인 모형(1)과 오차 공분산을 추가한 모형(2)를 비교한 결과 TLI와 CFI 및 RMSEA가 좋아져서 공분산을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동일성 가정에 따라 동일 측정변수의 요인계수를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3)과 모형(4)의 적합도는 모형(2)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서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대한 자기회귀 계수에 대해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5)은 모형(4)의 적합도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자기회귀계수는 시간에 따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전 시점 $[t-1]$ 이 이후 시점 $[t]$ 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는 시점 $[t]$ 가 시점 $[t+1]$ 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와 같다. 모형(6)의 적합도는 모형(5)에 비해 나빠졌지만 그 차이는 매우 근소하며, 모형 적합도 지수 역시 수용할 수준이어서 결혼만족도 역시 자기회귀 계수는 시간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 시점의 교차지연 효과의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7)과 모형(8)의 적합도가 이전 모형의 적합도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이 효과는 시간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9)를 평가한 결과 모형(7)과 모형(8)과 비교해 볼 때 모형 적합도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모형(9)를 후속출산 의도 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 집단 모두에 대해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모형(9)에 대한 후속출산 의도 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 집단의 구조계수 추정치는 <표 4>와 같다.

<표 4> 모형 9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미지수		후속출산 의도집단		후속출산 비의도집단	
		표준화 추정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 추정치	추정치 (표준오차)
결혼만족도09	← 결혼만족도08	.261	.286***(.031)	.292	.323***(.024)
우울09	← 우울08	.583	.557***(.028)	.563	.567***(.021)
결혼만족도09	← 우울08	-.211	-.232***(.034)	-.204	-.230***(.025)
우울09	← 결혼만족도08	-.011	-.011 (.028)	-.016	-.016 (.020)
결혼만족도10	← 결혼만족도09	.323	.286***(.031)	.332	.323***(.024)
우울10	← 우울09	.562	.557***(.028)	.568	.567***(.021)
결혼만족도10	← 우울09	-.228	-.232***(.034)	-.210	-.230***(.025)
우울10	← 결혼만족도09	-.012	-.011 (.028)	-.018	-.016 (.020)

2. 출산후속 의도집단과 비의도집단의 측정동일성 및 구조 동일성 검증

후속출산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집단간에 형태동일성이 성립하였으므로 두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과 구조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 모형의 순서대로 8개의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 모형 A: 두 집단을 동시에 분석하지만 집단 사이에 동일화 제약은 가하지 않은 기저 모형
- 모형 B: 집단에 따른 측정 동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한 측정변수의 요인 계수를 후속출산 의도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 집단 사이에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모형 B에서는 잠재변수 ‘우울’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 계수만을 동일하게 제약하였다.
- 모형 C: ‘결혼만족도’의 측정동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결혼만족도에 대한 요인 적재치를 두 집단 사이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D: ‘우울’의 자기회귀계수가 집단에 따라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해 두 집단 사이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E: ‘결혼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B)가 집단에 따라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해 두 집단 사이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F: 시점 $[t]$ 의 ‘우울’이 시점 $[t+1]$ 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효과가 집단에 따라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해 두 집단 사이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G: 시점 $[t]$ 의 ‘결혼만족도’가 시점 $[t+1]$ 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효과가 집단에 따라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해 두 집단 사이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H: 오차 공분산 E가 집단에 따라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해 두 집단 사이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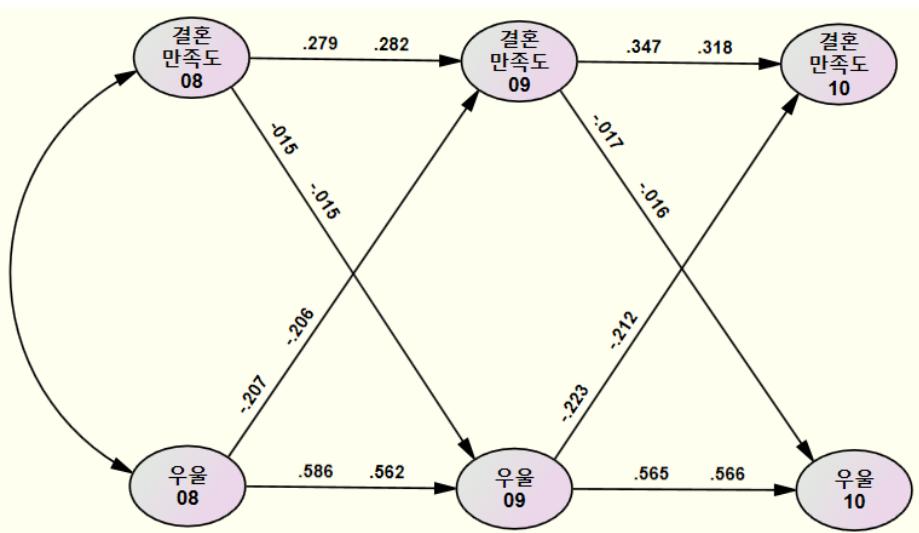
<표 5> 후속출산 의도 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 집단 간의 동일성 검증

	χ^2	df	TLI	ΔTLI	CFI	ΔCFI	RMSEA	ΔRMSEA
모형 A	2944.653	788	.926		.938		.041	
모형 B	2979.572	813	.928	.002	.937	.001	.040	.001
모형 C	2996.082	828	.930	.002	.937	.000	.040	.000
모형 D	2997.335	831	.930	.000	.937	.000	.040	.000
모형 E	3151.864	834	.933	.003	.935	-.002	.041	.001
모형 F	3159.616	837	.925	-.008	.933	.007	.041	.000
모형 G	3160.342	840	.926	.001	.933	.000	.041	.000
모형 H	3169.712	843	.926	.000	.933	.000	.041	.000

위 8개 모형을 모형 A에서부터 모형 H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앞에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모형 A와 모형 B의 비교, 모형 B와 모형 C의 비교의 순으로 비교를 진행하면서 TLI, CFI, RMSEA가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동일화 제약을 계속 추가해도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화 제약이 가장 많이 가해진 모형인 모형 H를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모형 H에서 추정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왼쪽 값은 후속출산 의도집단의 표준화 추정치이며, 오른 쪽 값은 후속출산 비의도집단의 표준화추정치이다.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다른 계수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2> 후속출산 의도집단과 후속출산 비의도집단의 최종 추정 결과

IV. 결론

첫째, 2008년, 2009년, 2010년의 세 시점에 걸쳐 어머니가 지각하는 우울을 측정한 결과 이전 시점의 우울이 이후 시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의 우울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임을 보여주었다. 시간에 따른 어머니의 우울의 지속 현상은 후속출산 의도집단과 비의도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 역시 시간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시점에 걸쳐 결혼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이전 시점의 결혼만족도가 이후 시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의 지속적인 시간에 따른 변화는 후속출산 의도집단과 비의도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결혼만족도와 우울을 비교해 본 결과, 시간에 따른 안정성에 있어서 결혼만족도가 우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의 자기회귀가 우울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우울은 자신의 내적 감정에 대한 평가인데 반해서 결혼만족도는 남편을 비롯한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측정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전 결혼만족도가 이후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출산이 경과하면서 결혼생활에 점차 적응해가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셋째, 우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나타나,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 때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에 따라 안정적이었으며 후속출산 의도집단과 비의도집단 간에 동일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 또한 2009년도 우울이 2010년도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계수는 2008년도 우울이 2009년도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계수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시간이 경과해 가면서 우울은 결혼만족도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넷째,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후속출산 의도집단과 비의도집단 간에 동일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

참고문헌

- 김은설·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 박수미(2008). 둘째 출산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 내 성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5-73.
- 배병렬(2011).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서미정(2010). 유자녀 여성의 후속 출산계획에 대한 양육관련 요인의 영향. 제1회 한국아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179-198.
- 서주현·김진경(201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 탐색. 제1회 한국아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331-362.
- 송영주·이주옥·김춘경(2011).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185-206.
- 이정립·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이예진(2011).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2007).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 의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형민(2012). 후속출산계획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영아기 자녀를 둔 가족을 중심으로 -. *한국영유아보육학*, 70, 1-31.
- 임현주·이대균·최항준(2011a). 부부 특성, 출산관련 정서, 어머니의 정서 특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변인 탐색 - 구조방정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1(5), 183-202.
- 임현주·이대균·최항준(2011b). 친지의 사회적 지원, 부모특성,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변인 탐색. *유아교육연구*, 31(5), 183~202.
- 정혜은·진미정(2008). 취업 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47-164.
- 조복희·신나리·안재진·이정립·최윤경·송신영 외(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세희·박민선·김원정(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어머니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종단관계 연구”에 대한 토론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정현숙

본 연구는 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자료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으로 분석하여 아동패널 자료의 다양한 분석기법 활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고급통계 분석기법에 우선하는 것은 분석의 모형에 대한 이론적 틀이며, 이러한 탄탄한 이론에 기반한 연구 결과가 이론적, 연구방법적, 그리고 적용적인 면에서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연구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이 좀 더 고려된다면 학술적인 면에서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첫째,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방안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저자도 서론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볼 때 부정적 부부관계 특성이 후속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양육참여요인과 같은 성형평성요인이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 변인이 모델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결혼만족도와 우울만을 선택한 점은 이론적인 면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변수들을 통제한 이론적 틀,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부부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의 부정적 특성(즉, 부부갈등이나 폭력 등)과 긍정적 특성(즉, 결혼만족도 등)은 같은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두 개의 각기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관계가 개선된다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도 경감되어 후속출산계획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를 선택하였다”는 연구자의 주장은 지나친 일반화로 이론적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만족도라기 보다는 부부갈등과 같은 부정적 특성이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의 결과이다.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요인들이 중재적인 역할을 하여 그 결과

우울로 나타난다는 점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왔으므로 현재의 이론적 모델은 이론적인 점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 우울과 결혼만족도, 우울이 결혼만족도 혹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후속출산 의도집단과 비의도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저출산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도 명확히 논의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울과 결혼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지속적이라는 의미는 우울과 결혼만족도의 수준을 기초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표 1>에서 결혼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3.04-3.11로 같은 척도를 이용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면 약간 낮은 수준이다. 우울증의 경우는 비교 가능한 연구는 없으나, 5점 척도에서 2.29-2.36의 분포로 낮은 수준이며 variation도 매우 적다. 지금까지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결혼기간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점차 낮아지며, 특히 첫 자녀 출산 후 급격히 감소하며 우울증은 그 반대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내용인 어머니의 우울과 결혼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지속적인 이유와 이러한 결과가 갖는 함의가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면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론적인 변수들이 모델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패널데이터의 가치는 같은 자료를 활용한 많은 연구들과 비교를 통한 이론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의 목적은 과학의 목적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서술, 설명, 예측, 적용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들은 어떠한 결과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서술과 설명을 통해 향후 행동을 예측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되어야 한다. 타 분야의 학자들이 아동가족분야의 연구는 결과만 있고 논의가 없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동가족학분야는 적용학문으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가 연구의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적용시켜 현장에서 활용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





제 4 주제 육아지원기관 이용

1.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어머니의 특성 비교

발표: 이경옥(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토론: 김은영(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계획과 실제 이용간의 관계

발표: 안재진(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토론: 문혁준(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어머니의 특성 비교

The Use of Childcare Service and Maternal Variables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경옥

본 연구에서는 2009-2010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취업과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나타나는 변화를 비교해보았다. 또한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어머니의 취업 및 가정의 소득수준이 어머니 특성(어머니 관련 변인, 양육 관련 변인, 부부 관계 관련 변인, 사회지원 관련 변인)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그리고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제안하였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육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교육·보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육아 및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04년에는 영유아 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매년 보육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2011년에는 5세 누리과정을 제정하여 만 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내용을 통합하고 학비와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산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올 7월에는 만 5세에 이어 만 3-4세 유아에게도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3-4세 누리과정’을 고시하였다(육아정책 연구소, 2012).

이러한 육아지원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각 가정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육아지원기관과 관련한 정책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기초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모와 비취업모,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실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모의 증가, 근무시간의 증가, 여성 취업의 다양화와 양극화 등 취업여성의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가족관에 대한 변화, 육아에 대한 책임 소재, 보다 나은 육아환경을 위한 각 가정의 요구 등과 같은 가정, 직업, 자녀, 육아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다변화하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육아는 어머니의 몫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노성향, 2010; 변용찬, 2002; 이미화, 2005; 이성림, 2011)이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실태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은 육아지원기관이용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나 요구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김현정, 최인수, 2003; 문영경, 정지나, 이영, 2008, 전상민, 2011; 황혜경, 2008),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육아지원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도 하였다(김현정, 최인수, 2003; 백은주, 한선아, 강민정, 2011; 안재진, 김은지, 2010; 윤홍식, 2010; 임유경, 2008, 조은진, 1998). 이러한 연구들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학적 변인과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직접적인 만족도나 요구도에 초점을 두고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손경화(2010)와 임유경(2008)의 연구에 따르면, 취업모일수록 육아지원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일찍 육아지원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손경화(2010)의 연구에서는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취업신념이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취업에 대한 긍정적일수록 육아지원기관을 더 빨리 이용하게 되며 부정적일수록 어머니 자신이 보육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부모 특성, 특히 어머니와 관련 변인뿐만 아니라 양육과 관련한 변인, 부부관계와 관련한 변인, 나아가 사회지원과 관련한 변인을 보다 광범위하게 살펴봄으로써 수요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육아지원기관의 이용과 이를 이용하는 어머니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에

충분한 자료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만 2세가 되는 가정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아동패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어머니의 특성과 관련한 변인을 활용하여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에 따른 어머니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2-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가 만 2세로 진입하면서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어머니 관련 변인(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감), 양육 관련 변인(양육스타일,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 부부관계 관련 변인(결혼만족도, 부부 갈등), 사회지원 관련 변인(아버지 참여, 사회적 지원) 등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비교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이나 가정의 소득수준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어머니의 취업과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육아지원기관 이용이 어머니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어머니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지원정책 수립에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 및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2.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어머니의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과 2010년에 실시된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와 3차년도 조사에 참여했던 어머니 1802명 중 무응답자를 제외한 177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자료에 포함된 자녀의 평균 월령은 2010년 현재 25.71개월($SD = 1.32$)이었다. 응답자의 2010년도(3차년도)의 취업상태를 분석한 결과, 취업모는 596명(33.65%)이고 비취업모는 1175명(66.35%)으로 취업모가 전체 응답자의 1/3이었다. 취업모 중 육아지원기

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부모는 370명(62.08%)이고 부모가 양육하거나 양육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226명(37.92%)이었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406명(34.55%)인 반면, 부모가 직접 양육하거나 양육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769명(65.45%)으로 전체 비취업모의 2/3이었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평균이 360.39만 원($SD = 281.40$, 중간값 = 300.00만원)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구성

단위: 명(%)

변수	구분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N= 1771)		
		이용 안함	이용	계
자녀의 월령(개월)	$M(SD)$	25.61(1.27)	25.84(1.37)	25.71(1.32)
	취업모	226 (37.92)	370 (62.08)	596 (33.65)
	비취업모	769 (65.45)	406 (34.55)	1175 (66.35)
어머니의 취업 상태	전체	995 (56.18)	776 (43.82)	1771 (100.00)
	$M(SD)$	360.45(284.780)	360.33(277.19)	360.39(281.40)
	≤300만원	551 (56.45)	551 (43.55)	976 (55.14)
가정의 월 소득수준(만원)	> 300만원	444 (55.92)	350 (44.08)	794 (44.86)
	전체	995 (56.21)	775 (43.79)	1770 (100.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에 포함된 여러 가지 변인들 중 어머니 특성과 관련하여 어머니 관련 변인(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감), 양육 관련 변인(양육스타일,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 부부관계 관련 변인(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사회지원 관련 변인(양육참여, 사회적 지원) 등을 사용하였다.

1) 어머니 관련 변인

(1) 자기효능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PSID-CDS 2차년도 조사(Mainieri, 2006)에서 사용한 'Perlin 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4-20점의 점수분포를 이룬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을 의미하며, 산출된 신뢰도는 Chronbach $\alpha=.826$ 이다.

(2)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86)의 자아존중감(self-Esteem)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을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5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범위는 1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hronbach $\alpha=.867$ 이다.

(3) 우울감

어머니의 우울감은 Kessler(2002)의 Kessler 우울 척도(K6)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개의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6-30점의 점수분포를 이룬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으며, 6-13점은 정상수준, 14-18점은 경도/중증도 우울, 19-30점은 중도 우울로 분류되며, 신뢰도는 Chronbach $\alpha=.969$ 이다.

2) 양육 관련 변인

(1) 양육스타일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은 Bornstein 외(1996)의 양육스타일(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6-30점의 점수분포를 이룬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스타일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hronbach $\alpha=.880$ 이다.

(2)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MacPhee(2001)의 양육지식(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KIDI)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양육행동’, ‘발달원리’, ‘건강과 안전’, ‘발달 규준 및 지표’에 대한 13문항 중에 정답 수로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의 분포는 0-13점이다.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5)의 PSI와 Crnic과 Greenberg(1990)의 PDH, Mann과 Thornberg(1987)의 MGS를 수정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10-50점의 점수분포를 이룬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hronbach $\alpha=.864$ 이다.

(4) 자녀가치(부모됨의 동기)

어머니의 자녀가치는 부모됨의 동기, 즉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등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하는 동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삼식 외(200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7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7-35점의 점수분포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녀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hronbach $\alpha=.754$ 이다.

3) 부부관계 관련 변인

(1) 결혼 만족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Chung(2004)의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정된 KMSS는 총 4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4-20점의 점수분포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hronbach $\alpha=.915$ 이다.

(2)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 2001)의 부부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총 8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8-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간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hronbach $\alpha=.911$ 이다.

4) 사회지원 관련 변인

(1)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강희경(1998)과 홍성혜(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참여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어머니가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도구는 총 4개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4-20점의 점수분포를 이룬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hronbach $\alpha=.803$ 이다.

(2) 사회적 지원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은 이재림과 옥선희(2001)와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과 정현숙(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한국아동패널연구를 위해 자체 제작된 도구이다. 총 12개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12-60점의 점수분포를 이룬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hronbach $\alpha=.931$ 이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9.0을 사용하였으며 각 연구문제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3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참여한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 및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및 χ^2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취업과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어머니 특성과 가정의 소득수준과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어머니의 특성은 각각 2-way M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가정의 소득수준은 중간값($Md=300.00$ 만원)을 기초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2009-2010년도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2010년도에 자녀가 만 2세인 취업모의 62.08%(370명)와 비취업모의 34.55%(406명)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자녀가 만 2세인 어머니의 43.82%(776명)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취업모의 경우 2009년에 59명(9.90%)에서 2010년 70명(62.08%)으로 7배 정도 증가하였고, 비취업모의 경우 2009년 130명(11.06%)에서 2010년 406명(34.55%)으로 3배 정도 증가하여 2009년에 비해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표 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2009-2010년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

단위: 명(%)

육아지원기관 이용구분	년도별 이용현황		취업모(n = 596)	비취업모(n = 1175)	전체(n = 1771)
	2009년	2010년			
미이용	미이용	미이용	213 (35.74)	685 (58.30)	898 (50.71)
	이용	이용	13 (2.18)	769 (65.45)	995 (56.18)
이용 중단	미이용	미이용	324 (54.36)	360 (30.64)	684 (38.62)
	이용	이용	46 (7.72)	406 (34.55)	776 (43.82)
신규 이용	미이용	미이용	370 (62.08)	46 (3.91)	92 (5.19)
	이용	이용			

주: $\chi^2(3)=126.141$, $p=.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한 경우(이용자)는 취업모가 7.72%(46명)이고 비취업모가 3.91%(46명)로, 취업모의 경우에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을 지속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았다. 2009년 육아지원기관 이용하지 않다가 2010년에 새로 이용하게 된 경우(신규이용자)도 유사한 경향으로 보였다. 취업모 중 신규이용자는 54.36%(324명)이었으나 비취업모 중 신규이용자는 30.64%(360

명)로 2010년 새롭게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2009년 육아지원기관 이용자 중 2010년에 더 이상 육아지원기관을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이용중단자)를 살펴보면, 취업모는 2.18%(13명)에 그쳤으나 비취업모는 7.15%(84명)로 비취업모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미이용자)도 취업모는 35.74%(213명)이고 비취업모가 58.30%(685명)로 취업모의 1/3과 비취업모의 1/2이상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육아지원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취업모의 경우에는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지속되거나 새롭게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즉 취업모에 있어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취업모에 비해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이 완만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3>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2009-2010년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

단위: 명(%)

육아지원기관 이용구분	년도별 이용현황		가정의 소득 수준		전체(n = 1770)
	2009년	2010년	≤300만원(n = 976)	>300만원(n = 794)	
미이용	미이용		493 (50.51)	405 (51.01)	898 (50.71)
	이용	미이용	58 (5.94)	551 (56.45)	995 (56.21)
이용 중단	미이용		373 (38.22)	310 (39.04)	684 (38.62)
	이용	미이용	425 (43.55)	350 (44.79)	775 (43.79)
신규 이용	미이용		52 (5.33)	40 (5.04)	92 (5.20)
이용 지속	이용				

주: $\chi^2(3)=1.018$, $p=.797$

다음으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2009-1910년의 육아지원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반적으로 2010년 육아지원기관의 전반적인 이용률은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43.55%, 425명)이나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44.79%, 350명)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육아지원기관 이용의 변동을 나타내는 육아지원기관 이용중단자(5.48%, 97명)나 육아지원기관 신규이용자(38.62%, 684명)의 비율은 두 집단 모두 유사하였다. 즉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큰 차이가 없었다.

2.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과 일반적 특성

2009-2010년도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4> 2009-2010년의 유아교육기관 이용 현황에 따른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유아교육기관 이용(2009-2010)				계
		미이용	이용중단	신규이용	이용지속	
가정의 소득수준	≤300만원	493(54.90)	58(59.79)	373(54.61)	52(56.52)	976(55.14)
	>300만원	405(45.10)	39(40.21)	310(45.39)	40(43.48)	794(44.86)
	전체	898(100.00)	97(100.00)	683(100.00)	92(100.00)	1770(100.00)
		$\chi^2(3) = 1.018, p = .797.$				
가구 형태주 ¹⁾	부부+ 자녀	801(89.20)	85(87.63)	598(87.43)	84(91.30)	1568(88.54)
	조부모+ 부부+ 자녀	70(7.80)	10(10.30)	63(9.20)	5(5.43)	148(8.36)
	부부+ 자녀+ 친척	27(3.01)	2(2.06)	23(3.36)	3(3.26)	55(3.11)
	전체	898(100.00)	97(100.00)	684(100.00)	92(100.00)	1771(100.00)
$\chi^2(6) = 3.067, p = .800.$						
자녀의 성별	남자	456(50.78)	51(52.58)	353(51.61)	42(45.65)	902(50.93)
	여자	442(49.22)	46(47.42)	331(48.39)	50(54.35)	869(49.07)
	전체	898(100.00)	97(100.00)	684(100.00)	92(100.00)	1771(100.00)
$\chi^2(3) = 1.265, p = .738.$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437(48.66)	46(47.42)	297(43.42)	43(46.73)	823(46.47)
	둘째	368(40.98)	43(44.33)	297(43.42)	41(44.57)	749(42.29)
	셋째 이상	93(10.36)	8(8.25)	90(13.16)	8(8.70)	199(11.24)
	전체	898(100.00)	97(100.00)	684(100.00)	92(100.00)	1771(100.00)
$\chi^2(6) = 7.264, p = .297.$						
어머니의 학력	고졸이하	205(24.55)	25(27.47)	234(36.73)	27(31.03)	491(29.76)
	전문대졸	198(23.71)	22(24.18)	168(26.37)	24(27.59)	412(24.97)
	대학	379(45.39)	40(43.96)	209(32.81)	30(34.48)	658(39.88)
	대학원졸	53(6.35)	4(4.40)	26(4.08)	6(6.90)	89(5.39)
	전체	835(100.00)	91(100.00)	637(100.00)	87(100.00)	1650(100.00)
$\chi^2(9) = 38.855, p = .000.$						
어머니 동거	예	847(96.14)	92(95.83)	650(97.16)	90(100.00)	1679(96.72)
	아니오	34(3.86)	4(4.17)	19(2.84)	-	57(3.28)
	전체	881(100.00)	96(100.00)	669(100.00)	90(100.00)	1736(100.00)
$\chi^2(3) = 4.625, p = .201.$						

주1: ‘부부+ 자녀+ 기타 친척’은 ‘부부+ 자녀+ 친척’과 ‘조부모+ 부부+ 자녀+ 친척’을 포함.

2: 무응답자는 제외함.

* $p < .05$ ** $p < .01$ *** $p < .001$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은 어머니의 학력($\chi^2(9)=38.855$, $p=0.000$)을 제외하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졸 이하의 어머니 중 육아지원기관의 신규이용자가 47.66%(234명)였고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지속자는 5.50%(27명)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미이용자(41.75%, 205명)나 이용중단자(5.09%, 25명)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문대졸자의 경우에도 유사하였다. 반면 대졸자의 경우에는 육아지원기관의 미이용자의 비율이 57.60%(379명)이고, 이용중단자의 비율은 6.08%(40명)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신규이용자(31.76%, 209명)나 이용지속자(4.568%, 30명)의 비율은 다소 낮았다.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집단은 자녀의 연령이 1~2세일 때 육아지원기관을 덜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는 2010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가정의 소득수준은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 훨씬 높았다. 가정의 소득수준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집단의 취업모의 육아지원기관 이용률(58.35%, 241명)보다는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하인 집단의 취업모가 육아지원기관 이용률(70.49%, 129명)이 더 높았다. 이는 가정 소득이 높은 가정의 취업모는 육아지원기관이 아닌 개인적인 대리양육자에 의존한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다($\chi^2(1) = 7.937$, $p = .005$). 반면 미취업모의 경우에는 가정의 소득수준이 300만 원 이하인 집단의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은 37.33%(296명)로, 가정이 소득수준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집단의 육아지원기관의 이용률 28.61%(109명)보다 더 높았다($\chi^2(1) = 8.655$, $p = .003$). 전반적으로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 육아지원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육아지원기관의 이용률이 더 높았다.

가구형태에 있어서도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에 차이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취업과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무관하게 부부+자녀의 가구형태가 두드러졌다. 취업모의 경우 가구형태에 따라 기관이용률에 차이가 존재하였는데($\chi^2(2)=7.415$, $p=.025$), 특히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취업모의 경우, 조부모+부부+자녀의 가구유형(51.28%, 40명)이 기관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조부모+부부+자녀의 가구유형(48.72%, 38명)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취업에 따른 자녀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업모의 경우 육아지원기관과 더불어 조부모와의 동거를 통해 육아문제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취업모는 첫째 자녀인 경우에는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이

54.12%(151명)로 둘째 자녀의 육아지원기관을 이용률(68.71%, 176명)보다 낮았다. 셋째 이상 자녀의 이용률은 70.49%(43명)로 가장 높았다($\chi^2(2)=14.178$, $p=.001$).

<표 5>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유아교육기관 이용 현황에 따른 일반적 특성

단위: 명(%)

변수	구분	취업모		비취업모		계
		기관미이용	기관이용	기관미이용	기관이용	
가정의 소득수준	≤300만원	54(23.89)	129(34.86)	497(64.63)	296(73.09)	976(55.14)
	>300만원	172(76.11)	241(65.14)	272(35.37)	109(26.91)	794(44.86)
	전체	226(100.00)	370(100.00)	769(100.00)	405(100.00)	1770(100.00)
$\chi^2(3) = 231.421$, $p = .000$.						
가구 형태주 ¹⁾	부부+ 자녀	174(76.99)	316(85.41)	712(92.59)	366(90.15)	1568(88.54)
	조부모+ 부부+ 자녀	40(17.70)	38(10.27)	40(5.20)	30(7.39)	148(8.36)
	부부+ 자녀+ 친척	12(5.31)	16(4.32)	17(2.21)	10(2.46)	55(3.11)
	전체	226(100.00)	370(100.00)	769(100.00)	406(100.00)	1771(100.00)
$\chi^2(6) = 17.484$, $p = .008$.						
자녀의 성별	남자	102(45.13)	197(53.24)	405(52.67)	198(48.77)	902(50.93)
	여자	124(54.87)	173(46.76)	364(47.33)	208(51.23)	869(49.07)
	전체	226(100.00)	370(100.00)	769(100.00)	406(100.00)	1771(100.00)
$\chi^2(3) = 5.518$, $p = .138$.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128(56.64)	151(40.81)	355(46.16)	189(46.55)	823(46.47)
	둘째	80(35.40)	176(47.57)	331(43.04)	162(39.90)	749(42.29)
	셋째 이상	18(7.96)	43(11.62)	83(10.79)	55(13.55)	199(11.24)
	전체	226(100.00)	370(100.00)	769(100.00)	406(100.00)	1771(100.00)
$\chi^2(6) = 48.025$, $p = .000$.						
어머니의 학력	고졸이하	32(15.38)	92(26.51)	198(27.58)	169(44.83)	491(29.76)
	전문대졸	44(21.15)	99(28.53)	176(24.51)	93(24.67)	412(24.97)
	대학 대졸	107(51.44)	131(37.75)	312(43.45)	108(28.65)	658(39.88)
	대학원졸	25(12.02)	25(7.20)	32(4.46)	7(1.86)	89(5.39)
	전체	208(100.00)	347(100.00)	718(100.00)	377(100.00)	1650(100.00)
$\chi^2(9) = 99.180$, $p = .000$.						
어머니 동거	예	205(94.47)	351(97.50)	734(96.58)	389(97.49)	1679(96.72)
	아니오	12(5.53)	9(2.50)	26(3.42)	10(2.51)	57(3.28)
	전체	217(100.00)	360(100.00)	760(100.00)	399(100.00)	1736(100.00)
$\chi^2(3) = 4.949$, $p = .176$.						

주1: ‘부부+ 자녀+ 기타 친척’은 ‘부부+ 자녀+ 친척’과 ‘조부모+ 부부+ 자녀+ 친척’을 포함.

2: 무응답자는 제외함.

* $p<.05$ ** $p<.01$ *** $p<.001$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첫째인 경우에는 이용률에 차이가 없었으나($\chi^2(2)=2.349$, $p=.309$), 둘째 자녀의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이 32.86%(162명)로 첫째의 자녀의 육아지원기관 이용률(34.74%, 189명)보다 낮아 취업모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있어 다른 태도를 보임을 의미한다. 즉 취업모

의 경우에는 첫째 자녀인 경우에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반면 둘째 자녀인 경우에 훨씬 더 자유롭게 육아지원기관에 접근함을 알 수 있고,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둘째 자녀인 경우에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훨씬 더 신중한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이유와 경제적 부담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2009-2010년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유사하였다. 다만 취업모의 경우에도 학력이 높은 집단의 육아지원기관을 이용률(대출자의 이용률: 55.04%, 대학원졸업자의 이용률: 74.19%)이 고졸 이하(74.19%, 92명)나 전문대졸(69.23%, 99명)의 육아지원기관 이용률보다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났다($\chi^2(3)=18.984$, $p=.000$). 비취업모의 경우에도 고졸 이하(46.05%, 169명) 와 전문대졸(34.575%, 93명) 어머니의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이 높았고, 대졸과 대학원졸(17.95%, 7명) 어머니의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은 낮았다($\chi^2(3)=40.774$, $p=.000$). 학력이 높은 취업모보다 학력이 낮은 취업모의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이 높은 것은 학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3.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어머니의 특성

1)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어머니 취업에 따른 어머니 특성 비교

어머니의 취업과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라 어머니의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way M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multivariate test* 결과,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주 효과는 *Wilks' λ*=.953 ($F(11,1705)=7.711$, $p=.000$)이고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주 효과는 *Wilks' λ*=.985 ($F(11,1705)=2.370$, $p=.0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어머니의 취업의 상호작용효과는 *Wilks' λ*=.993 ($F(11,1705)=1.024$, $p=.42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육아지원기관 이용의 주효과에 대해 *univariate test* 결과,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어머니의 특성은 어머니 관련 변인 중 자아존중감($F(1,1715)=4.49$, $p=.034$)과 우울감($F(1,1715)=4.42$, $p=.036$), 그리고 사회지원 관련 변인 중 사회적 지원($F(1,1715)=15.71$, $p=.000$) 등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어머니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M=29.86$, $SD=4.15$)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어머니 ($M=29.70$, $SD=4.13$)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반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어머니($M=12.01$, $SD=4.36$)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M=11.71$, $SD=4.08$)

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 ($M=46.78$, $SD=7.49$)는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어머니 ($M = 45.57$, $SD = 7.76$)보다 사회적 지원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적 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우울감을 덜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의 주 효과에 대한 *univariate test* 결과, 어머니 관련 변인 중 자아존중감($F(1,1715)=39.10$, $p=.000$)과 우울감($F(1,1715)=9.02$, $p=.003$), 양육 관련 변인 중 양육스트레스($F(1,1715)=19.06$, $p=.000$), 사회지원 관련 변인 중 아버지의 양육참여($F(1,1715)=7.16$, $p=.008$) 등 부부관계 관련 변인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어머니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모의 자아존중감($M=30.61$, $SD=4.03$)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인식($M=15.20$, $SD=3.39$)이 비취업모의 자아존중감($M=29.38$, $SD=4.14$)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인식 ($M=14.67$, $SD=3.4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취업모의 어머니의 우울감($M=11.48$, $SD=4.16$)과 양육스트레스($M=29.73$, $SD=6.62$)는 비취업모의 우울감 ($M=12.02$, $SD=4.22$)이나 양육스트레스($M=31.15$, $SD=6.9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즉 육아지원기관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모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나 비취업모는 높은 우울감과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어머니 특성 비교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way MANOVA*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multivariate test* 결과를 살펴보면,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주효과는 *Wilks' λ*=.984($F(11,1704)=2.488$, $p=.004$)이고,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효과는 *Wilks' λ*=.967($F(11,1704)=5.294$, $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가정의 소득수준의 상호작용효과는 *Wilks' λ*=.994($F(11,1704)=.875$, $p=.56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육아지원기관 이용의 주효과에 대한 *univariate test* 결과, 육아지원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어머니의 특성은 부부관계 관련 변인 중 부부갈등($F(1,1714)=4.98$, $p=.026$)과 사회지원 관련 변인 중 양육참여($F(1,1714)=4.05$, $p=.044$) 및 사회적 지원($F(1,1715)=10.26$, $p=.001$) 등이었다.

<표 6>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어머니 특성 비교

어머니 특성	기관 미이용		기관 이용		취업률		취업여부		취업기관		univariate F					
	취업률 (n=219)		비취업률 (n=751)		취업률 (n=970)		비취업률 (n=354)		취업률 (n=749)		비취업률 (n=573)		비취업률 (n=1146)		기관이용 (n=1719)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어머니 관련 특성	자기효능감 [*]	9.26 (2.76)	9.21 (2.86)	9.22 (2.84)	9.19 (2.86)	9.49 (2.98)	9.35 (2.93)	9.22 (2.82)	9.30 (2.91)	9.28 (2.88)	.52	.62	1.33			
	자아존중감	30.82 (3.89)	29.59 (4.10)	29.86 (4.15)	30.49 (4.11)	29.00 (4.02)	29.70 (4.13)	30.61 (4.03)	29.38 (4.14)	29.79 (4.14)	4.49*	39.10***	.35			
	모우울감	11.19 (3.95)	11.86 (4.11)	11.71 (4.08)	11.66 (4.28)	12.32 (4.41)	12.01 (4.36)	11.48 (4.16)	12.02 (4.22)	11.84 (4.21)	4.42*	9.02**	.00			
양육 특성	양육스타일	34.04 (4.55)	34.23 (4.61)	34.19 (4.59)	34.14 (4.64)	33.79 (4.68)	33.95 (4.66)	34.10 (4.60)	34.08 (4.63)	34.09 (4.62)	.51	.10	1.21			
	양육지식	3.73 (1.16)	3.88 (1.25)	3.85 (1.23)	3.75 (1.22)	3.83 (1.25)	3.79 (1.39)	3.74 (1.11)	3.86 (1.20)	3.82 (1.30)	.03	2.79	.29			
	양육스트레스	29.35 (6.09)	30.92 (6.88)	30.56 (6.74)	29.97 (6.93)	31.58 (7.17)	30.82 (7.10)	29.73 (6.62)	31.15 (6.62)	30.68 (6.90)	3.17	19.06***	.00			
사회적 지원	자녀기자	24.40 (4.00)	24.51 (3.91)	24.48 (3.93)	24.27 (4.20)	24.61 (4.28)	24.45 (4.24)	24.32 (4.13)	24.54 (4.04)	24.47 (4.07)	.00	1.05	.27			
	결혼민족도	15.45 (3.35)	15.41 (2.93)	15.42 (3.03)	15.29 (3.16)	15.31 (3.23)	15.30 (3.20)	15.35 (3.23)	15.38 (3.04)	15.37 (3.10)	.65	.00	.03			
	부부갈등	16.58 (6.21)	16.21 (6.00)	16.30 (6.04)	16.98 (6.14)	17.03 (6.46)	17.00 (6.30)	16.83 (6.16)	16.49 (6.17)	16.61 (6.17)	3.42	.24	.41			
사회지원 관련 특성	양육참여	15.14 (3.43)	14.58 (3.43)	14.70 (3.44)	15.24 (3.37)	14.83 (3.37)	15.03 (3.37)	15.20 (3.39)	14.67 (3.41)	14.84 (3.41)	.98	7.16**	.18			
	사회적 지원	47.88 (7.53)	46.46 (7.45)	46.78 (7.49)	45.55 (8.00)	45.59 (7.55)	45.57 (7.76)	46.44 (7.90)	46.16 (7.49)	46.25 (7.63)	15.71 (7.63)	2.90	3.26			

주1: Multivariate test(기관이용): Wilks' $\lambda = .985, F(11,1705) = 2.370, p = .007$.

2: Multivariate test(취업여부): Wilks' $\lambda = .953, F(11,1705) = 7.711, p = .000$.

3: Multivariate test(취업·기관이용): Wilks' $\lambda = .993, F(11,1705) = 1.024, p = .422$.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육아지원기관 이용여부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어머니 특성 비교

어머니 관련 특성	기관 미이용			기관 이용			전체			univariate F		
	$\leq 300\text{만원}$		$>300\text{만원}$	$\leq 300\text{만원}$		$>300\text{만원}$	$\leq 300\text{만원}$		$>300\text{만원}$	$\leq 300\text{만원}$		$>300\text{만원}$
	$n=540$	$n=430$	$n=970$	$n=414$	$n=334$	$n=748$	$n=954$	$n=764$	$n=1718$	$M(SD)$	$M(SD)$	$M(SD)$
어머니 관련 특성	자기효능감	9.36 (2.87)	9.04 (2.79)	9.22 (2.84)	9.56 (3.03)	9.07 (2.76)	9.34 (2.92)	9.45 (2.94)	9.06 (2.78)	9.27 (2.88)	.72	8.09** .39
	자아존중감	29.48 (4.22)	30.35 (4.02)	29.86 (4.15)	29.11 (4.01)	30.44 (4.16)	29.71 (4.13)	29.32 (4.13)	30.39 (4.08)	29.80 (4.14)	.47	30.00*** .25
	모유율감	11.97 (4.20)	11.37 (3.92)	11.71 (4.08)	12.37 (4.43)	11.55 (4.24)	12.00 (4.36)	12.14 (4.30)	11.45 (4.06)	11.84 (4.21)	1.97	11.92** .31
양육 관련 특성	양육스타일	34.07 (4.57)	34.34 (4.63)	34.19 (4.59)	33.48 (4.78)	34.56 (4.43)	33.96 (4.65)	33.81 (4.67)	34.43 (4.54)	34.09 (4.62)	.67	8.89** .37
	양육지식	3.86 (1.29)	3.83 (1.16)	3.85 (1.23)	3.79 (1.30)	3.80 (1.34)	3.79 (1.31)	3.83 (1.29)	3.83 (1.24)	3.82 (1.27)	.65	.05 .11
	양육스트레스	30.91 (6.78)	30.13 (6.68)	30.56 (6.74)	30.34 (7.29)	30.17 (6.82)	30.82 (7.10)	31.09 (7.00)	30.15 (6.74)	30.67 (6.90)	.50	8.29** .34
사회 관련 특성	자녀가치	24.66 (4.10)	24.25 (3.69)	24.48 (3.93)	24.50 (4.41)	24.38 (4.04)	24.45 (4.25)	24.59 (4.24)	24.31 (3.84)	24.47 (4.07)	.01	1.71 .56
	부부관계	15.41 (3.05)	15.44 (3.00)	15.42 (3.03)	14.97 (3.34)	15.72 (2.95)	15.30 (3.19)	15.22 (3.19)	15.56 (2.98)	15.37 (3.10)	.26	6.68** .570**
	부부갈등	16.35 (6.14)	16.23 (5.92)	16.30 (6.04)	17.26 (6.55)	16.66 (5.98)	17.00 (6.30)	16.75 (6.34)	16.42 (5.95)	16.60 (6.17)	4.98*	1.41 .64
사회지원 관련 특성	양육참여	14.43 (3.56)	15.05 (3.25)	14.70 (3.44)	14.68 (3.41)	15.46 (3.27)	15.03 (3.37)	14.54 (3.50)	15.23 (3.27)	14.85 (3.41)	4.05*	17.97*** .21
	사회적 지원	46.11 (7.44)	47.62 (7.48)	46.78 (7.49)	44.80 (8.05)	46.56 (7.27)	45.59 (7.76)	47.15 (7.73)	46.26 (7.40)	46.26** (7.63)	10.26** .11	19.33*** .11

주1: Multivariate test(기관이용): Wilks' $\lambda = .984, F(11,1704) = 2.488, p = .004$.

2: Multivariate test(가계소득): Wilks' $\lambda = .967, F(11,1704) = 5.294, p = .000$.

3: Multivariate test(취업·기관이용): Wilks' $\lambda = .994, F(11,1704) = .875, p = .565$.

* $p < .05$ ** $p < .01$ *** $p < .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어머니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어머니($M=17.00$, $SD=6.30$)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M=16.30$, $SD=6.04$)보다 부부갈등을 더 느끼고 있었으나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어머니($M=15.03$, $SD=3.37$)는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M=14.70$, $SD=3.44$)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M=46.78$, $SD=7.49$)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어머니($M=45.59$, $SD=7.76$)보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결과적으로 가정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가 부부갈등을 덜 느끼고 사회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가정의 소득수준 주효과에 대한 *univariate test* 결과, 어머니 관련 변인 중에는 부정적 자기효능감($F(1,1714)=8.09$, $p=.005$), 자아존중감($F(1,1714)=30.00$, $p=.000$), 우울감($F(1,1714)=11.92$, $p=.001$)등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양육 관련 변인 중 양육스타일($F(1,1714)=8.89$, $p=.003$)과 양육스트레스($F(1,1714)=8.29$, $p=.004$), 부부관계 관련 변인 중 결혼만족도($F(1,1714)=6.68$, $p=.010$), 사회지원 관련 변인 중 양육참여($F(1,1714)=17.97$, $p=.000$)와 사회적 지원($F(1,1714)=19.33$,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univariate test*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어머니 특성을 살펴보면, 가정의 소득수준이 300만 원 이하인 집단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효능감($M=9.45$, $SD=2.94$)과 우울감($M=12.14$, $SD=4.30$)이 소득수준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집단의 부정적 자아효능감($M=9.06$, $SD=2.78$)과 우울감($M=11.45$, $SD=4.06$)보다 높았고,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소득수준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집단($M=30.39$, $SD=4.08$)이 소득수준이 300만 원 이하인 집단($M=29.32$, $SD=4.13$)보다 높았다. 양육 관련 특성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집단의 양육스타일($M=34.43$, $SD=4.54$)이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하인 집단($M=3.81$, $SD=4.67$)보다 긍정적이었고,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하인 집단($M=31.09$, $SD=7.00$)의 양육스트레스가 소득수준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집단($M=30.15$, $SD=6.74$)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부관계 관련 변인 중 결혼만족도는 소득수준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집단($M=15.56$, $SD=2.98$)이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하인 집단($M=15.22$, $SD=3.19$)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지원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집단의 양육참여($M=15.23$, $SD=3.27$)와 사회적 지원($M=47.15$, $SD=7.40$)에 대한 인식이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하인집단의 양육참여($M=14.54$, $SD=3.50$)나 사회적 지원($M=45.55$, $SD=7.73$)에 대한 인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과적으로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부정적 자기효능감,

우울감, 양육스트레스 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도 낮았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양육스타일이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IV. 결론 및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2009-2010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육아지원 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고, 어머니의 취업과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나타나는 변화와 어머니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우선, 한국아동패널 2-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가 만 1세에서 만 2세로 성장함에 따라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이나 가정의 경제수준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육아지원기관 이용이나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일반적 배경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또한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어머니의 취업 및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어머니 특성(어머니 관련 변인, 양육 관련 변인, 부부관계 관련 변인, 사회지원 관련 변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2009-2010년도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2009년에 비해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육아지원기관의 이용률이 3~7배 정도 증가하여 자녀가 만 2세 된 연구대상자의 43.84%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율은 취업모의 경우에 더 높았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에는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지속되거나 새롭게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는 자녀의 성장하여 만2세가 되면서 취업모의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을 의미한다.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육아지원기관 이용의 증가폭이 다소 주춤하였다.

둘째,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집단은 육아지원기관을 덜 이용하며,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취업모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가정의 소득수준이 훨씬 더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취업모 집단의 경우에는 육아지원기

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즉 취업모의 경우 육아지원기관이 아닌 개인적인 대리양육자에 의존한 결과는 아닌지 조심스레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은 미취업모 집단의 경우에도 육아지원기관의 이용률이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안재진, 김은지, 2010)가 지적했던 것처럼, 보육료 지원이 비취업모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있어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여 저소득층의 비취업모의 이용률을 높인 결과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의 가정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였으나 조부모+부부+자녀의 가구유형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에 따른 자녀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부모의 동거를 선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취업모는 첫째 자녀인 경우에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반면,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는 훨씬 더 자유롭게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였다. 반면 비취업모는 둘째 자녀인 경우에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훨씬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둘째 자녀의 경우에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이유와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따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정선옥, 2005)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어머니의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이며 우울감을 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육아지원기관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모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나 비취업모는 높은 우울감과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취업모의 경우 육아에 대한 역할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양육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은주, 서영희, 2012)와 일치한다.

넷째,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가정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가 부부갈등을 덜 느끼고 사회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이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부정적 자기효능감, 우울감, 양육스트레스 등을 더 많이 경험하며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양육스타일이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가정의 소득수준이 육아지원기관 이용이나 어머니의 취업보다 어머니의 특성을 결정짓는데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은 여러 가지 요인과 복잡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

위이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취업은 육아지원기관 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 밖에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소득수준 등도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어머니의 취업, 학력, 가정의 소득수준은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이를 단순히 파악하기에 힘든 점이 있다. 그 밖에 자녀의 출생순위나 가족유형 또한 육아지원기관의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가정과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다양한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이들의 육아지원에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수요자의 실질적인 욕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어머니의 학력이나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실태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기관의 역할에 있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과 무관하게 만 2세부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은 보육비 지원과 같은 육아지원 정책이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욕구가 없는 비취업모의 보육지원기관 이용을 무리하게 유인한 결과는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과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어머니 관련 변인, 양육관련 변인, 부부관계 관련 변인, 사회지원 관련 변인에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어머니보다는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 비취업보다는 취업모가 어머니 특성에 있어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특히 비취업모 집단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우울감은 주의 깊게 논의 되어야 할 부분이다. 비취업모의 경우 육아에 대한 과중한 부담과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 부모역할이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위축감을 경험하고 있다(김은주, 서영희, 2012). 따라서 비취업모가 긍정적인 자아를 발견하고 육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나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기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머니의 사회적, 심리적 안녕은 건강한 유아의 양육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심리적 안녕은 육아지원기관에서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된다.

셋째,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어머니 관련 변인, 양육관련 변인, 부부관계 관련 변인, 사회지원 관련 변인 등 모든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모든 어머니의 특성에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특히 어머니의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감과 같은 어머니 관련변인, 양육스타일이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양육관련 변인,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사회적 지원과 같은 지원 관련 변인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와 같은 부부관련 변인에 있어서 가정의 소득수

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결과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어머니의 취업을 매개로 가정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도미향, 2002)에 기초하여 볼 때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은 가정의 소득수준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책적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육아지원기관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가 만 2세에 들어서면서 어머니의 취업이나 가정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육아지원기관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육아지원기관의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은 취업모의 경우에 육아지원기관보다는 개인적 육아 방안도 많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육아지원기관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의 향상을 통해 취업모들이 안심하고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취업모를 위한 직장보육 시설을 확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육아지원기관과 육아지원인력을 양성하는 등 취업모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고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비취업모 가정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볼 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와 미래 어머니를 대상으로 육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선불리 실시되는 무상보육이 자칫 부정적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무분별하게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기보가는 가정에서 육아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도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 연령의 자녀들이 보다 친숙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육아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갖도록 육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육아지원기관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보다 육아지원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이었고, 우울감이나 부부갈등과 같은 부정적 요소는 더 높게 나타났다. 육아지원기관은 단순히 자녀양육을 대신하는 기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가 건강한 사회적, 심리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의 사회적, 심리적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육아지원기관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프로그램이나 부모참여 수업 등을 통하여 부

모와 밀접한 관계를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육아지원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도 부모교육이나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나 네트워크 구축 등 각 가정의 육아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 우울감이나 양육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도 높았고 양육스타일이나 사회지원 관련 변인들도 긍정적이었으며, 부정적 효능감, 우울감, 양육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즉 육아가 주는 사회적 심리적 부담은 비취업모와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에게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비취업모와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저소득가정의 경우, 질 높은 육아지원기관의 제공과 더불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비취업모의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어머니의 취업을 매개로 가정의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통한 분석으로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관련한 몇 가지 특성에 초점을 두고 거칠게 분석하였기에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육아지원기관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이용 실태나 어머니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2008년부터 실시한 데이터를 종단적으로 검토하여 육아지원기관이용의 변화과정이나 이러한 변화가 어머니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역할 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은주·서영희(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육아 경험 연구. 육아지원연구, 7(1), 93-114.
- 김현정·최인수(2003).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선택사유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6, 99-117.
- 노성향(2010). 취업여성의 영아 보육 현황과 육아지원 방안 -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정규직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회, 33, 111-128.

- 도미향(2002). 보육서비스와 영유아를 둔 모(母)의 취업 및 가정소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28, 83-103.
- 문영경·정지나·이영(2008). 민간보육시설 이용자의 영아보육 만족도 및 요구도. *한국영유아보육학*, 54, 163-187.
- 백은주·한선아·강민정(2011).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선호 유형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209-232.
- 변용찬(2002). 보육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보육수요. *도시문제*, 37(5), 22-34.
- 손경화(201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신념과 보육선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재진·김은지(2010). 미취학아동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연구*, 79, 5-36.
- 윤홍식(2010). 가구특성과 취학 전 아동양육형태의 자유선택. *사회과학연구*, 26(1), 1-25.
- 이미화(2005).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1-67.
- 이삼식·정윤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립(2011). 영유아 자녀 가계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 소비 실태.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4, 117-134.
- 이재림·옥선희(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 임유경(2008). 영유아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상민(2011).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2), 77-101.
- 정선숙(2005). 학령전기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가구의 육아 서비스 이용 경험. *사회복지연구*, 28, 5-33.
- 조병운·서동인·신화용·정현숙(1998).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 13-21.
- 조은진(1998).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소비자로서 학부모의 목적과 기관 선택기준. *한국영유아보육학*, 15, 191-208.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경(2008). 강원도 보육시설에 대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이용실태 · 만족도 · 보육

- 서비스에 대한 욕구 차이. *한국영유아보육학*, 53, 199-218.
- 육아정책연구소(2012).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자료집.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PSI) manual* (3rd ed.).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Cli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MacPhee, D. (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s & manual* (2nd ed). Colorado State University.
- Mainieri, T.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for CDS-II. *The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1-136.
- Mann, M. B., & Thornbe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cation.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cation.
-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Rosenberg, Morris(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어머니의 특성 비교”에 대한 토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은영

본 연구는 2009-2010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과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어머니의 취업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육아지원 정책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매우 흥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자료가 뒷받침되는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본 토론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1. **취업모의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미취업모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취업 모에 비해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자녀가 만 2세가 되면서 모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가정양육이나 개인 대리양육을 이용하던 부모들도 자녀가 만 2세가 되면 자녀를 보낼 기관을 찾게 된다. 그러나 취업모의 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였다는 것은 취업모의 어쩔 수 없는 기관 대리양육의 선택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미취업모의 경우에는 본인이 자녀 양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기관 선택을 하게 되므로 기관 이용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여기서 연구자는 만 2세의 이용률이 증가하므로 육아지원기관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이보다는 기존 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의 공급은 이미 수요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2. **어머니의 학력이 높으면 자녀의 연령이 1-2세일 때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낮았다.**

여기서의 육아지원기관이라 함은 만 1, 2세 대상이므로 어린이집을 일컫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학력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누가 돌보고 있는 것인가? 본인이

직접 돌보거나 친인척을 활용하거나 비용이 높은 개인 대리양육을 이용하고, 이와는 별도로 다양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이 높은 어머니가 어린 이집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게 분석될 문제는 아니지만,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 부재’의 인식이 그 원인이 아닌지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3. 가정의 소득이 낮은 경우에 육아지원 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정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는 개인 대리양육을 비롯한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가정의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으로 보다 손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 계층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집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영아가 친인척, 베이비시터에 의해 보육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부모나 베이비시터를 이용해서 자녀를 보육하는 이유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는 선행연구결과(노성향, 2010)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취업모의 대리양육 선택을 위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어린이집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4. 취업모의 경우에 첫째 자녀는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반면, 둘째 자녀는 더 자유롭게 육아지원기관에 접근하였으며, 미취업모의 경우에는 둘째 자녀의 경우에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문제에 있어 첫째 자녀보다는 둘째 자녀 때에 보다 손쉬운 선택을 한다. 대리양육이 필수적인 취업모 또한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 가운데 고민을 했을 수 있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믿을 수 있는’ 개인 대리양육이나 사교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다. 미취업모 또한 비용 문제로 인해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볼 수 있다. 연구자가 지적한 것처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2010년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가정 0-1세 아동에게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10-20만원이라도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직접 양육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5.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우울감을 덜 느끼고 있다. / 가정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가 부부갈등을 덜 느끼고 사회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아를 지원해 줄 사회적, 개인적 인프라를 그만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한 육아 인프라가 존재할 때 어머니는 육아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그리고 사회적 지원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부부갈등을 덜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그에 대응하는 다른 개인적, 사회적 지원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6. 육아지원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모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나, 미취업모는 높은 우울감과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취업모는 육아에만 매달리지 않고 일정 부분 바깥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취업모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양육을 전적으로 취업모에게 맡길 수 없는 형편이 되고, 일정 부분 육아를 분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취업모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육아를 담당하고 책임을 지며, 그에 대한 부담으로 우울감이 높고, 실제로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월등히 높다는 보고도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2). 전업주부의 경우 내적인 의지보다는 외적인 상황으로 육아를 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전업주부로 육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사회와의 단절 및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다중적 역할 요구 및 가족의 도움 부족으로 인한 육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은주, 서영희, 2012). 따라서 미취업모의 문제는 종일 보육료 지원의 단일한 방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제 보육지원센터, 육아나눔터와 같은 다른 사회적 인프라의 접근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연구자가 제안한 육아지원기관 이용 미취업모의 취업 지원을 통한 가정의 소득수준 향상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인다.

7.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부정적 자기효능감, 우울감, 양육스트레스 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도 낮았다. 뿐만 아니라 양육스타일이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모든 특성에 있어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물론 연구자가 마지막에 밝히고 있듯이 어머니의 취업, 학력, 가정의 소득 수준은 서로 관련이 있어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포함한 분석이 요구된다.

현대사회에서의 육아는 상당히 복합적인 영역의 문제이다.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극복되어야 하는 여성문제의 하나이며, 경제 성장을 위해 여성노동력을 유인하고자 해야 하는 선결과제의 하나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미래노동력의 문제이며,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구조가 가져올 미래의 경제사회적 후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 인구문제의 하나이고, 아동의 권리 시대에 가족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다(백선희, 조성우, 2005).

이러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육아의 문제는 획일화된 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똑같은 정책으로는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육아지원정책의 다양화를 통해 정책수요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부모교육의 강화이다. 연구자가 지적했듯이 육아지원기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건강한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고 양육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갖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땅의 어머니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적절한 지원을 받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은주·서영희(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육아 경험 연구. *육아지원연구*, 7(1), 93-114.
- 노성향(2010). 취업여성의 영아 보육 현황과 육아 지원 방안: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정규직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33, 111-128.
- 백선희·조성우(2005).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과 결정 요인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1, 429-455.
- 육아정책연구소(2012). 육아정책 Brief 제 6호.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계획과 실제 이용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 to Use and Actual Use
of Child Care Arrangements for Infants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안재진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1년 후 보육서비스 이용계획이 실제 1년 후 조사한 보육서비스 이용실태를 비교하고,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모형에 포함시켜 영아기의 보육서비스 계획 및 실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는 이용계획과 실제 이용비율 간에 차이가 없으나, 개인 수준에서는 계획과 실제 이용 간의 불일치 비율이 31.8%에 달했다. 보육서비스 이용계획에는 모의 연령과 취업여부, 학력, 그리고 현재 양육자와 아동기질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실제 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육서비스 이용계획은 실제 어린이집 이용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학원 등 기타기관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이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어린 이집을 실제 이용할 확률이 낮았다. 연구결과를 통해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I. 서론

생애초기 경험은 아동의 전생애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는 영아기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전통적으로 영아기의 양육은 아동의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으로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 할 때에도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기관이용보다는 친인척 등에 의한 개인대리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2009)에서도 영아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선호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부모 외에 가장 바람직한 주 양육자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 만 1세 미만 아동의 경우 조부모가 66.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친인척 5.7%, 비혈연 2.7%로 개인대리양육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였다. 반면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으며, 부모 이외의 바람직한 주 양육자를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부모만’ 가능하다는 응답도 16.2%나 되었다. 이러한 개인대리양육에 대한 선호 현상은 영아기 내내 지속되어, 만 1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2.4%, 만 2세 아동은 27.2%이며, 기타 기관이용에 대한 선호도 0.5%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만 3세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을 포함한 기관서비스 이용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0% 이상을 넘어서면서 만 3세를 기점으로 기관이용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아기의 보육서비스로서, 개인대리양육에 대한 선호가 분명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영아를 위한 대표적 보육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영아기에 해당하는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등록률은 0세 아동의 경우 32.5%, 1세 아동의 경우 53.2%이며, 2세 아동의 경우 약 77%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이러한 수치는 2008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0세-22.2%, 1세-36.0%, 2세-55.2%)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것이며 전년도인 2010년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0세-27.9%, 1세-51.7%, 2세-71.2%)과 비교해보아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지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만 1세와 만 2세 영아의 경우 최연소자녀를 기준으로 한 모의 취업률¹⁾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모든 취업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몇 년 간 우리나라의 여성취업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²⁾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만 1세 이상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모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상당부분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증가에는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06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영아의 어린이집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아를 주로 보육하는 가정에

-
- 1)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최연소 자녀를 기준으로 한 모의 취업률은 만 0세 아동의 경우 24.7%, 만 1세 아동은 29.2%, 만 2세 아동의 경우 39.2%로 나타나고 있다(서문희 외, 2009).
 - 2) 201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0~30대 여성취업률은 2001년 55.3%에서 2011년 45.6%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여성취업률도 47.5%에서 47.9%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¹⁾. 비록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올해부터 0~2세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영아에 대한 양육지원 정책은 어린이집에 다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다른 보육 서비스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불합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영아에 대한 부모양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혹은 영아기에는 개인대리양육이 보다 바람직한 보육 서비스라고 생각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 없던 부모들이 생각보다 빨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아의 어린이집 조기이용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1년 후 보육서비스 이용계획이 실제 1년 후 조사한 보육서비스 이용실태를 비교하여,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부모들의 선택과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모형에 포함시켜 영아기의 보육서비스 계획 및 실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계획과 실제 이용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2.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계획과 실제 이용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배경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선택은 크게 부모양육, 개인대리양육, 기관이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중 유치원 등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은 실질적으로 영아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아를 위한 대표적인 보육기관은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정부정책과 같은 거시적 요인과 아동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같은 미시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2011년 말 현재 가정어린이집 개소수는 20,722개로 전체 어린이집(39,842)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다.

1.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 변화

정책은 수요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책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양육지원정책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점의 차이에 따른 양육지원정책의 변화가 어린이집 실제 이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양육지원정책은 아동 연령이나 부모의 취업상태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획일화됨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은 ‘무상보육’을 슬로건으로 삼아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보육서비스 이용을 예측했던 2009년과 2010년의 영아대상 양육지원정책을 비교해보면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영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다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육지원정책의 변화가 2009년 2차조사와 2010년 3차조사 시점에서 보육서비스 이용예측과 실제 이용 간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영아 기본보조금은 사실상 부모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등보육료 및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등이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아동 양육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정책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보육료 지원 금액에 비해 양육수당 금액이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정 내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

다음 <표 1>은 2009년과 2010년에 영아에게 제공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2009년과 2010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 비교

연령	차등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만 0세	1,2층: 383,000원 3층: 76,600원 3층: 306,400원 4층: 153,200원 4층: 229,800원 5층: 191,500원 5층: 114,900원		소득하위 50% 이하: 소득하위 60% 이하: 383,000원 153,200원 소득하위 60%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229,800원 268,100원 소득하위 70% 이하: 114,900원	

연령	차등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만 1세	1,2층: 337,000원 3층: 65,400원		소득하위 50% 이하: 337,000원	소득하위 60% 이하: 134,800원
	3층: 269,600원 4층: 130,800원		소득하위 60%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4층: 202,200원 5층: 164,000원		202,200원	235,900원
	5층: 101,100원		소득하위 70% 이하:	
만 2세	1,2층: 278,000원 3층: 55,600원		101,100원	
	3층: 222,400원 4층: 111,200원		소득하위 50% 이하: 278,000원	소득하위 60% 이하: 111,200원
	4층: 166,800원 5층: 139,000원		소득하위 60%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5층: 83,400원		166,800원	194,600원
			소득하위 70% 이하:	
			83,400원	

위 표에서 1층은 법정저소득층, 2층은 최저생계비의 120%이며, 3, 4, 5층은 각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 70%, 100%에 해당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약 418만원 정도이다. 이에 비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436만원으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는 소득범위가 다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던 보육료 전액지원이 4인 가구 기준 평균소득이 월 258만원인 가구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9년 조사 당시에는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전액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들이 2010년 조사 시에는 일부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 부모의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기존 연구에서는 부모 및 아동특성,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모의 취업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등이 보육서비스 이용 또는 보육서비스의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모 취업 관련 변수

보육서비스의 본래 목적이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의 취업과 관련된 변수는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모의 취업이 어린이집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김지경, 2004; 백선희, 조성우, 2005; 서문희, 임상현, 김유경, 2001), 모의 노동 시간 역시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모의 경우 노동 시간이 길면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고(Ahn & Shin, 2011), 모의 노동시간이 길수록 어린이집보다는 친인척 보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안재진, 김은지, 2010). 즉 어린이집이 취업모를 위한 서비스이며 실제 취업모가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시간이 긴 취업모에게는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서문희(2011)의 연구에 따르면 취업모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 이용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반면 미취업모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취업모 가구의 영아가 미취업모 가구의 영아보다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모의 노동시간이 길어질 확률이 높으며, 그 경우 어린이집 외에 다른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가구특성 요인

가구특성 중에는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 등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가구소득은 보육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안재진, 김은지, 2010).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소득이 높아지면 유치원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안재진, 김은지, 2010; 이경선, 김주후, 2009; 김지경, 2004; 서문희 외, 2001). 이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차등보육료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반면 보육서비스에 대한 비용지불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은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무급의 친인척 보육을 이용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유급 보육, 그중에서도 기관보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arly & Burchinal, 2001; Leibowitz, Waite, & Witsberger, 1988; Sylva et al., 2007).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국가의 보육료 지원정책이 가구의 보육료 지불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모의 학력이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국내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문희, 임상현 외, 2001; Ahn & Shin, 2011).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모의 학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되지 못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인척보육보다는 기관보육서비스나 유급도우미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는 반면(Fuller, Holloway, & Liang, 1996; NICHD, 1997), 기관보육보다 가정보육(다른 이의 집에서 유급도우미에 의한 보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Johansen, Leibowitz, & Waite, 1996). 모의 연령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Ahn과 Shin(2011)의 연구에서는 모의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에 비해 30~34세인 경우 어린이집 이용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5세 이상인 경우는 30세 미만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Singer, Fuller, Keiley와 Wolf(1998)의 연구에서는 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자녀수 또한 가구 내 인적 및 경제적 자원과 관련되어 보육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내 연구의 경우 미취학아동수가 많을수록 기관이용이 많아진다는 연구결과(백선희, 조성우, 2005; Ahn & Shin, 2011)와 가구 내 자녀수는 기관이용과 무관하다는 결과(김지경, 2004)가 함께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녀수가 많으면 기관보육보다는 가정 내 보호와 친인척 보호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Johansen et al., 1996; NICHD, 1997), 이는 자녀가 많을 경우 기관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 명의 양육자가 여러 명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안재진, 김은지, 2010). 본 연구는 2008년 출생한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2009년과 2010년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가구 내 자녀수는 아동의 출생순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가구 내 자녀수 대신 아동의 출생순위를 투입하고 2009년의 경우 추가 출산계획을, 2010년의 경우는 2009년 조사 이후 출산여부를 변수에 포함시켰다.

한편 가구 내 동거하는 성인 수도 친인척 보육의 이용가능성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가구 내 성인 수가 많을수록(즉, 부모 외에 동거하는 성인이 있는 가정인 경우) 기관이용 대신 친인척 보육을 이용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안재진, 김은지, 2010; 서문희, 임상현 외, 2001; Ahn & Shin, 2011; Leibowitz et al., 1988; NICHD, 1997). 본 연구에서는 2009년 현재 이용 중인 보육서비스를 모형에 포함시켰으므로 친인척 보육의 이용가능성이 이미 통제되었다고 여겨져 가구 내 성인 수는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 아동특성 요인

아동의 특성도 선행연구를 통해 보육서비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과 출생순위 등이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아동의 연령은 보육서비스 선택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이는 영아의 경우 집단보호보다는 개인적인 일대일 돌봄이 더 적합하다는 믿음이 있으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들이 보육서비스의 돌봄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안재진, 김은지, 2010). 따라서 영아의 경우 친인척보육이나 가정보육을, 그리고 유아의 경우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 자료는 신생아 패널의 특성상 모든 아동이 동일한 연도에 출생하였으며, 출생월도 4월~8월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아동의 연령은 변수에서 제외되었다. 아동의 성별은 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기관보육 또는 비혈연 보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와 낮다는 연구, 그리고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안재진, 김은지, 2010).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에 비해 둘째나 셋째 이상의 아동들이 기관보육을 이용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재진, 김은지, 2010; Sylva et al., 2007).

한편 기존 연구에서 아동의 기질과 보육서비스 이용 간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아동의 기질도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져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사회성 발달(36.4%) 및 전인적 발달(35.4%)을 들고 있으며, 취업모의 경우에도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비율이 절반에 가까웠다(서문희 외, 2009). 따라서 부모가 인식하기에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거나, 아동이 지나치게 활동적이어서 돌보기에 힘든 경우 어린이집을 일찍부터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기질과 보육서비스 이용과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일부 외국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특성도 보육서비스 이용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 규모 및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지역별 기관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나타난다(Kisker, Hofferth, Phillips, & Farquhar, 1991; Peyton, Jacons, O'Brien, & Roy, 2001, 재인용; Leibowitz et al., 1988). 이는 지역별로 서비스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추어졌는지 여부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동일한 변수를 포함하여 국내 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안재진, 김은지, 2010; Ahn & Shin, 2011)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의 간결성을 위해 최종모형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보육서비스의 이용계획과 실제 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자료와 동일한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계획 및 부모의 이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본 Park, Lee, Kim, & Park(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이 2~7세가 되었을 때

보육·교육서비스 이용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의 학력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이 2~4세인 시기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계획에는 모의 취업/학업 상태와 소득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취업 중이거나 학업 중인 경우 어린이집 이용을 계획하는 확률이 낮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용계획과 실제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가구이며, 충화 2단계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전국의 의료기관을 1단계로 추출하고, 2단계에서는 표본 의료기관별로 패널 모집기간 중 출생하는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총 2,562가구를 예비표본으로 구축하였다. 이 중 최종 2,078명이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각각 1,904명, 1,80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를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변수의 결측치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2차년도의 어머니 조사와 면접조사, 그리고 3차년도의 면접조사에 모두 참여한 사례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또한 2010년도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에 조사가 이루어진 1사례를 제외한 1,703 사례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 보육서비스 이용관련 변인

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변인은 크게 3가지로 2009년 2차 조사 당시 보육서비스 이용형태와 2009년 조사 시 계획 중인 2010년 기관 이용계획, 그리고 2010년 3차 조사 당시 어린이집 이용여부이다. 즉 아동의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0세일 때의 보육서비스 이용현황과 1세일 때 기관 이용계획, 그리고 1세 때 어린이집 이용현황이 각각의

변수가 된다. 각각의 조사에 대한 응답범주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교의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각 질문에 대한 응답범주를 통일하고자 하였다.

(1) 2차 조사 당시 보육서비스 이용현황

2차 조사 당시 보육서비스 이용현황은 낮 시간 주 양육자와 낮 시간 주이용 육아지원 서비스 유형의 두 변수를 결합하여 재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낮 시간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와 아버지인 경우를 결합하여 1. 부모양육 범주를 생성하였으며, 부모외의 대리양육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 2. 개인대리양육으로 범주화하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개인대리양육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 3. 어린이집 이용으로 범주화하여 재코딩하였다.

(2) 2차 조사 당시 1년 후 기관 이용계획

2차 조사 당시 1년 후 기관 이용계획은 월별로 조사한 2010년 육아지원기관 이용계획 중 3차년도 조사당시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 변인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조사가 월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동일한 연도에 대해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원 자료에는 기관 유형을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영어유치원, 4. 놀이학교, 5. 선교원, 6.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7. 기타, 8. 미이용, 9. 잘 모르겠음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범주를 결합하여 1. 이용계획 없음(미이용과 잘 모르겠음을 포함), 2. 어린이집 이용, 3. 학원 등 기타(2~7번까지의 범주 결합) 서비스 이용으로 재범주화 하였다.

(3) 3차 조사 당시 어린이집 이용여부

먼저 2차 조사 당시 보육서비스 이용현황과 마찬가지로 3차 조사 자료의 낮 시간 주 양육자와 낮 시간 주이용 육아지원 서비스 유형의 두 변수를 결합하여 3차 조사 당시 보육서비스 이용현황을 재코딩하였다. 그 결과 1. 부모양육, 2. 개인대리양육, 3. 어린이집 이용, 4. 학원 등 기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원 등 기타서비스는 이용 가구의 사례가 극히 적어(8사례)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육서비스 이용계획과 비교해보기 위해 1. 부모양육과 2. 개인대리양육을 결합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계획의 범주 중 하나인 1. 기관 미이용으로 재범주화 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집 이용여부를 기준으로 1. 미이용(기관 미이용 및 학원 등 기타서비스 이용) 2. 어린이집 이용 두 가지 범주를 구성하였다.

2) 가구특성 변인

모의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된 것을 29세 이하, 30세~34세, 35세 이상으로 범주

화하여 재코딩 하였다. 모의 학력은 8개 범주(1. 무학~8. 대학원 박사)의 서열변수로 측정된 것을 응답비율이 낮은 범주를 통합하여 1. 고졸이하, 2. 전문대졸, 3. 대졸, 4. 석사이상으로 재범주화 하였다. 가구소득은 만원 단위로 측정된 연속변수를 비정상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그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모의 취업여부는 현재 취업/학업상태를 묻는 변인에서 1. 취업 중과 2. 학업 중 범주를 통합하여 취업/학업 중과 미취업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2년 이내 출산계획 여부는 후속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출산계획 시기가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 혹은 1년~2년 이내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향후 2년 내 출산 계획이 있음’으로 범주화하고, 그 외에는 ‘향후 2년 내 출산계획 없음’으로 범주화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또한 동생 출산 여부는 2010년도 조사 자료에서 가구원과 아동간의 관계가 아동의 동생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조사 이후 가구원 변동사유가 출산인 경우를 선택하여 ‘지난 조사 이후 동생출산 여부’ 변수를 새롭게 생성하였다.

3) 아동관련 변인

아동의 성별은 남아를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출생순위는 1. 첫째~5. 다섯째 이상으로 측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기질은 EAS 기질척도: 부모용(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 The EAS)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AS는 정서성과 활동성, 사회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각각 5개, 5개, 10개의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2009년도 조사에서는 아동의 연령특성상 정서성과 활동성만을 조사하였으며, 2010년도 조사에서는 3개 하위영역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EAS의 각 하위요인별로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을 역 채점한 후 단순 합계하여 사용하였다. 이 경우 정서성에서 높은 점수는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하고, 활동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아동은 움직임이 많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니며, 사회성에서의 높은 점수는 아동이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함을 의미한다(이정림 외, 2011).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문제 1을 살펴보기 위해 2009년도에 이용 중인 보육서비스와 2009년 조사 당시 2010년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획, 그리고 2010년 조사 시에 밝혀진 보육서비스 이용 간의 관계에 대한 패턴분석(patter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2009년도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활용하여 2010년 보육서비스 이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연구문제 3은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2009년에 조사한 보육서비스 이용계획이 2010년도 실제 어린이집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요변수의 특성은 빈도분석 및 기술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보육서비스의 이용패턴

먼저 2009년과 2010년의 주 양육자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아동이 보육연령으로 만 0세인 2009년에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부모가 양육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반면, 2010년에는 부모가 양육하는 비율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2009년에는 개인대리양육이 56.3%로 과반수가 넘은 반면, 2010년에는 어린이집 이용이 80%를 넘어 서고 있다. 불과 1년 사이에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2009년과 2010년의 주 양육자 비교

단위: 명, %

09년도	빈도	비율	10년도	빈도	비율
어머니	1228	72.1	어머니	798	46.9
아버지	2	0.1	아버지	2	0.1
보육서비스	473	27.8(100.0)	보육서비스	903	53.0(100.0)
개인대리양육	265	(56.3)	개인대리양육	160	(17.7)
어린이집	199	(42.1)	어린이집	725	(80.2)
개인+ 어린이집	17	(6.4)	개인+ 어린이집	10	(1.1)
무응답	25	(9.4)	반일제이상학원	8	(0.9)

한편, 2009년도의 양육자 유형에 따른 2010년도 양육자의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009년도에 주 양육자가 부모인 경우와 개인대리양육자인 경우,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2010년도 양육자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각각 살펴보았다.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9년도에 부모가 양육하고 있던 경우에는 2010년도에도 가장 많은 수가 부모양육을 지속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개인대리양육

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던 경우에도 2009년도의 양육형태를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2009년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던 아동은 2010년도에도 어린이집 이용을 지속할 확률이 88%나 되어 매우 높았다. 2009년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던 아동은 2010년도에 다른 형태의 양육으로 바뀌는 비율이 12%로 적은 반면, 부모가 양육하거나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다가 2010년도에 어린이집으로 양육형태를 바꾼 경우는 각각 36.9%, 45.7%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한 번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시작한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을 지속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양육이나 개인대리양육이 바람직하다는 신념으로 이러한 양육형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만, 일단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하게 되면 영아기에는 다른 양육형태로 변화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2009년과 2010년의 양육자 유형변화

단위: 명, %

09년도 양육자	10년도 양육자	빈도	퍼센트
부모양육	부모양육	739	60.0
	개인대리양육	30	2.4
	어린이집 이용	454	36.9
	학원 등 기타	7	0.6
개인대리양육	소계	1230	100.0
	부모양육	41	15.4
	개인대리양육	121	45.7
	어린이집 이용	103	38.9
어린이집 이용(병행이용 포함)	소계	265	100.0
	부모양육	16	8.7
	개인대리양육	6	3.3
	어린이집 이용	161	88.0
	소계	183	100.0

다음으로 2009년도에 조사한 2010년도 기관 이용계획과 2010년의 실제 기관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2010년도 기관 이용계획을 조사할 때 가장 많은 응답자들(55.9%)이 ‘이용계획 없음’ 또는 ‘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실제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56.3%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계획과 실제 이용을 보면, 40.8%의 부모가 2010년도에 어린이집을 이

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10년도 실제 이용비율은 43.1%로 계획보다 약간 높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정책의 확대로 인해 영아들이 실제 계획보다 어린이집 이용을 더 빨리 시작하는 현상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2009년과 2010년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정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집단 전체로 보면 기관 이용계획이 없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부모들의 경우 이용계획과 이용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며, 다만 학원, 선교원 등 기타 기관에 대해서만 이들 기관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실제 이용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2010년도 기관 이용계획 및 2010년도 실제 이용 비교

단위: 명, %					
10년도 이용계획	빈도	비율	10년도 실제 이용	빈도	비율
미이용/잘 모르겠음	943	55.9	미이용/잘 모르겠음	951	56.3
어린이집 이용	688	40.8	어린이집 이용	729	43.1
학원, 선교원 등 기타	57	3.4	학원, 선교원 등 기타	8	0.5
계	1688	100.0	계	1688	100.0

그렇다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1년 전 계획한 대로 기관을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전체적인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집단구성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해 2010년도 기관 이용계획에 따른 2010년도 기관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5>를 보면, 부모들이 실제 계획과 달리 기관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도에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2010년도에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약 27%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부모들의 32.7%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다. 특히 학원이나 선교원 등 기타 기관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부모들 중 실제로 1년 후 그러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1.8%에 불과했으며, 이들 대다수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고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즉 전체적인 비율상으로는 기관이용계획과 이용실태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부모 개인의 차원에서는 1년 전의 이용계획과 1년 후 이용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31.8%에 달했다. 이러한 차이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데, 어린이집 이용을 계획했다가도 주변에 마땅한 어린이집이 없거나 모가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 없었으나 동생의 출산이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5> 2010년도 기관 이용계획에 따른 2010년도 실제 이용 차이

		단위: 명, %	
2010년도 기관이용계획	2010년도 실제 기관이용	빈도	퍼센트
미이용/잘 모르겠음	미이용	688	73.0
	어린이집 이용	252	26.7
	학원, 선교원 등 기타	3	0.3
어린이집 이용	소계	943	100.0
	미이용	221	32.1
	어린이집 이용	463	67.2
학원, 선교원 등 기타	학원, 선교원 등 기타	4	0.6
	소계	688	100.0
	미이용	42	73.7
학원, 선교원 등 기타	어린이집 이용	14	24.6
	학원, 선교원 등 기타	1	1.8
	소계	57	100.0

2.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계획 및 실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다항 및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았다.

우선 보육서비스 이용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도에는 부모가 양육하는 비율이 73.3%로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개인 대리양육과 병행이용도 포함)은 10.7%로 가장 낮았다. 2010년도 이용계획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거나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라는 응답도 40.8%로 크게 증가하였고, 실제로 43.3%가 2010년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 변인 중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30.4%, 전문대졸이 25.5%, 대졸이 39.1%, 대학원 석사 이상이 5%로 전체 응답자의 70% 가량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연령은 30~34세 사이가 5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35세 이상이 25.2%, 29세 이하는 22.6%로 30대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2009년과 2010년 모의 취업률은 각각 31.8%와 33.8%로 2009년에 비해 2010년의 취업률이 약간 높았다. 2009년 조사 당시 2년 이내에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현재 임신 중 포함)이 22.0%였으며, 실제로 2009년 조사 이후 2010년 조사 시까지 동생을

출산한 비율은 13%였다. 2009년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339만원이고 2010년에는 361만원으로 약 22만원 정도 증가하였다.

아동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0.8%, 여아가 49.2%로 성비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46.4%, 둘째가 42.1%이며, 셋째 이후부터는 그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기질 척도의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를 보면 아동의 정서성과 활동성은 5점~25점의 가능한 점수범위 가운데, 2009년에는 각각 13.52점, 19.59점을 나타냈고, 2010년도에는 정서성이 14.21점, 활동성이 19.55점으로 2009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2010년도 처음 조사된 아동의 사회성은 10~50점의 점수분포 가운데 35.92점이었다.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기에 앞서 변수들의 분포가 정상성을 띠는지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에서 왜도와 첨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¹⁾, 로그변환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한편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r=.50$ 미만으로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견진다.

<표 6>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단위: 명, %

	변수	사례수	비율 또는 평균(표준편차)
2009년도 양육자 유형	부모양육	1230	73.3
	개인대리양육	265	15.8
	어린이집	183	10.7
2010년도 기관이용계획	미이용/잘 모르겠음	943	55.9
	어린이집	688	40.8
	학원, 선교원 등 기타	57	3.4
모 학력	고졸이하	514	30.4
	전문대졸	431	25.5
	4년제 대졸	662	39.1
	대학원 석사이상	84	5.0
모 연령범주	29세 이하	385	22.6
	30세~34세	889	52.2
	35세 이상	429	25.2

1) 일반적으로 왜도 3, 첨도 10을 넘으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05).

	변수	사례수	비율 또는 평균(표준편차)
아동 성별	남아	865	50.8
	여아	838	49.2
아동 출생순위	첫째	790	46.4
	둘째	717	42.1
2010년도 어린이집 이용여부	셋째	176	10.3
	넷째	17	1.0
	다섯째 이상	3	0.2
2009년 모 취업여부		735	43.2
2010년 모 취업여부		537	31.8
2년 이내 출산계획 있음		575	33.8
지난 조사 이후 동생출산		374	22.0
2009년도 아동기질(정서성)		221	13.0
2009년도 아동기질(정서성)		1694	13.52(3.14)
2009년도 아동기질(활동성)		1691	19.59(2.89)
2010년도 아동기질(정서성)		1670	14.21(3.05)
2010년도 아동기질(활동성)		1667	19.55(2.92)
2010년도 아동기질(사회성)		1656	35.92(5.51)
2009년도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1692	338.64(276.37)
2010년도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1703	361.75(283.67)

3. 보육서비스 선택의 영향요인

1) 2010년도 보육서비스 이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에 조사한 2010년도 아동의 기관이용계획을 종속변수로 부모들이 계획하는 기관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한 범주를 기준으로 다른 범주가 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세 개의 범주(기관 미이용, 어린이집 이용, 학원, 선교원 등의 기타 기관 이용)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범주 간의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차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모형 1에서는 기관 미이용을 기준 변수로 어린이집 이용과 학원 등 기타 기관 이용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고 모형 2에서는 학원 등 기타 기관 이용을 기준으로 기관 미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보육형태를 각각 매칭하여 비교하지 않는 경우,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는 선택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안재진, 김은지, 2010). 즉 미이용을 기준변수로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우와 학원 등 기타 기관 대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우는 선택의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모형 2에서 학원 등 기타 기관을 기준으로 기관 미이용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것은 모형 1의 첫 번째 회귀식과 동일한 모형이므로(부호만 반대)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표 7>의 분석결과를 보면 세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모의 연령이었다. 모의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35세 이상의 모에 비해 미이용보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계획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원 이용을 계획할 확률은 낮았다. 또한 학원보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계획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연령이 30~34세인 경우에는 모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집단보다 기관 미이용보다는 어린이집 이용을 계획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7> 기관이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어린이집(미이용기준)		학원(미이용기준)		어린이집(학원 기준)	
	B	Exp(B)	B	Exp(B)	B	Exp(B)
모 연령(35세 이상 기준)						
29세 이하	.653**	1.921	-1.381*	.251	2.034**	7.643
30세~34세	.379*	1.461	.011	1.011	.368	1.445
모 학력	-.217**	.805	.131	1.139	-.347*	.707
모 취업여부	1.165**	3.207	-.450	.638	1.615*	5.030
가구소득(로그변환)	-.116	.890	.009	1.009	-.125	.882
현재 양육자(어린이집기준)						
부모양육	-2.763**	.063	-1.633	.195	-1.130	.323
개인대리양육	-3.191**	.041	-.972	.378	-2.219**	.109
2년 내 출산계획 여부	.202	1.224	.363	1.438	-.161	.851
아동기질(정서성)	.051**	1.052	.017	1.017	.034	1.035
아동기질(활동성)	.010	1.010	.037	1.037	-.027	.973
아동출생순위	.017	1.017	-.552*	.576	.569*	1.767
아동성별(남아기준)						
여아	.131	1.140	-.16	.848	.296	1.345

주: $N = 1618$, Nagelkerke's Pseudo $R^2 = .245$, McFadden's Pseudo $R^2 = .136$

* $p < .05$ ** $p < .01$

모의 학력과 취업여부는 미이용을 기준으로 한 어린이집 선택계획과 학원을 기준으로 한 어린이집 선택계획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모의 학력이 높고 미취업인 경우 어린이집 이용에 비해 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학원을 이용하려고 계획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보다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기로 계획할 확률이 높았으며,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기보다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학원을 이용하려고 계획하는 확률이 높았다.

아동의 특성 중에는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에 해당하는 변인과 아동의 출생순위가 기관 이용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출하는 경향이 있을 때 기관을 이용하지 않기보다는 어린이집 이용을 계획할 비율이 높았다. 또한 아동의 출생순위가 뒤로 갈수록 학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기보다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계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외 변수들은 기관 이용을 계획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2010년도 어린이집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보육서비스 이용계획과 실제 어린이집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2010년도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56.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43.1%)가 대부분이고 학원 등 기타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8사례(0.5%)에 불과했다. 따라서 다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위 <표 7>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원 등 기관을 이용하는 집단과 기관 미이용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모의 연령과 출생순위 외에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던 반면, 학원 등을 이용하는 집단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유의미한 변수들이 발견되었으므로, 학원 등을 이용하는 집단은 기관 미이용 집단과 통합하여 종속변수를 어린이집 이용여부로 재범주화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여부는 이분변수이므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앞서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더불어 기관 이용계획 변인을 변수로 투입하여,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용계획 여부가 실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들 중 모의 취업여부와 가구소득, 아동기질 등의 변수는 2010년도 조사 자료로 대체하였으며, 출산계획 대신 지난 조사 이후 출산여부를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표 8> 어린이집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B	Exp(B)
모 연령(35세 이상 기준)		
29세 이하	.623**	1.86
30세~34세	.300	1.35
모 학력	- .352**	.70
모 취업여부(2010년도)	1.431**	4.18
2010년도 가구소득(로그변환)	- .138	.871
2009년도 양육자(어린이집 기준)		
부모양육	-1.397**	.24
개인대리양육	-2.252**	.11
2010년도 기관이용계획(학원 기준)		
미이용	.113**	1.11
어린이집 이용	1.392**	4.02
지난조사 이후 동생출산여부	.678**	1.97
2010년도 아동기질(정서성)	.065**	1.06
2010년도 아동기질(활동성)	- .010**	.99
2010년도 아동기질(사회성)	.022**	1.02
아동출생순위	.020	1.02
아동성별(남아기준)		
여아	.299	1.348

주: $N = 1596$, Cox & Snell's Pseudo $R^2 = .257$, Nagelkerke's Pseudo $R^2 = .345$,
 $-2\text{Log Likelihood}=1705.379$ ($df = 15$, $p = .000$.)

* $p < .05$ ** $p < .01$

분석결과, 학원 등의 기관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준거집단에 비해 2009년도에 기관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 역시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 어린이집 이용 계획이 있던 부모들이 실제로 어린이집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을 이용할 계획이 아예 없던 부모들이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학원 등 기타 기관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부모들보다 어린이집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린이집 대신 학원 등의 기타 기관을 이용하려고 계획하는 부모들은

어찌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타 기관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면, 기관 이용계획이 없던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 정도가 덜했기 때문에 동생의 출산이나 보육료 지원 등의 이유로 상황이 변화하면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확률이 높아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의 연령과 학력, 취업여부 등 어머니의 특성은 기관 이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일하게 실제 기관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출산계획과 달리 실제 동생의 출산은 어린이집 이용에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9년도에 부모가 양육하고 있었거나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한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던 경우에 비해 2010년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확률이 낮았다.

한편, 기관 이용계획과 달리 실제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서는 아동의 기질의 세 하위 변인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출할 수록, 활동성이 높지 않고 사회성이 높은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아동의 기질은 어린이집 이용의 영향요인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 이용의 결과일 수 있으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즉 어린이집을 이용한 결과,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출하고, 사회성이 높고, 덜 활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9년도 조사 시에 조사당시의 양육자 유형을 통제한 후에도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는 아동의 부모들이 어린이집 이용을 계획할 확률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아동의 기질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성이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1년 후 보육서비스 이용계획과 실제 1년 후 조사한 보육서비스 이용실태를 비교하여,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부모들의 선택과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모형에 포함시켜 영아기의 보육서비스 계획 및 실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보육서비스 이용계획이 부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보육서비스의 선택이라면 실제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 차선책의 선택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두 차례에 걸친 보육서비스의 선택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패널아동이 보육연령으로 각각 만 0세, 만 1세인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보육서비스 이용을 살펴보면, 1년 사이에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어린이집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도의 양육형태를 2010년도에도 지속하고 있는 가정이 많기는 했으나, 부모가 양육하거나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가정 중에는 약 35~40%가 어린이집 이용으로 양육형태를 바꾼 반면, 2009년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던 아동은 2010년도에도 어린이집 이용을 지속할 확률이 88%나 되었다. 즉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부모양육이나 개인대리양육이 바람직하다는 신념으로 이러한 양육형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만, 아이가 점차 성장해가면서 영아기 내에서도 어린이집 이용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일단 어린이집을 이용한 영아는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조기화 될수록 영아에 대한 보육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10년도 기관 이용계획과 2010년도 실제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들(55.9%)이 ‘이용계획 없음’ 또는 ‘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실제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계획이 있다고 답한 부모(40.8%)보다 실제 이용 중인 부모(43.1%)가 많았는데,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아서 정부정책의 변화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조기 이용을 촉진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2009년도와 2010년도 사이에 보육료 지원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무상보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2년을 기점으로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학원, 놀이학원, 선교원 등 기타 기관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부모들(3.4%)의 경우 실제 이용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0.5% 수준이었다.

그러나 집단 전체로 보면 기관이용계획과 이용실태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부모 개인의 차원에서는 1년 전의 이용계획과 1년 후 이용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31.8%에 달했다. 즉 상당수의 부모들은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기관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 2010년도 보육서비스 이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의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이용>기관 미이용>학원 등 기관 이용 순으로 기관 이용을 계획하고 있었고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기관 미이용=학원 등 기관 이용>어린이집 이용 순으로 기관 이용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모인 경우 어린이집 이용>기관 미이용=학원 등 이용 순으로 기관 이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부모가 양육하거나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 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계획하는 확률이 상대

적으로 낮았다.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출할수록 기관을 이용하지 않기보다는 어린이집 이용을 계획할 확률이 높았으며, 아동의 출생순위가 뒤로 갈수록 기관 미이용=어린이집 이용>학원 등 기관 이용의 순으로 기관 이용을 계획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린이집을 이용할 확률이 낮고(서문희, 임상현 외, 2001; Ahn & Shin, 2011), 모 연령이 낮으면(Ahn & Shin, 2011) 그리고 취업여성이 어린이집을 더 많이 이용한다(김지경, 2004; 백선희, 조성우, 2005; 서문희, 임상현 외, 2001)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취업/학업 중인 여성이 어린이집 이용을 계획할 확률이 더 낮다는 Park 외(2011)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Park 외(2011)의 연구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준거기준을 전체 응답의 3.6%에 불과한 ‘잘 모르겠음’에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을 수 있다.

반면 가구소득은 어린이집 이용계획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아기에는 고가의 교육서비스 이용이 드물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높다고 해서 어린이집 외에 선택할 만한 다른 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어린이집이 저소득층만을 위한 보육서비스가 아닌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아동의 출생순위가 뒤로 갈수록 학원보다는 어린이집 이용이나 기관 미이용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은 아동의 출생순위가 뒤로 갈수록 기관보육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안재진, 김은지, 2010; Sylva et al., 2007)와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보육서비스 이용계획과 실제 어린이집 이용과의 관계를 보면, 분석결과, 학원 등의 기관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준거집단에 비해 2009년도에 기관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 역시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기관을 이용할 계획이 없던 부모들이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학원 등 기타 기관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부모들 보다 어린이집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고자 계획했던 부모들은 영아를 위한 이상적인 기관으로 ‘학원, 선교원, 놀이학교 등의 기타 기관’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한 기관의 이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보다는 아예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보육연령이 만 0에서 만 1세로 넘어갈 때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가 양육하고 있던 경우에도 어린이집 이용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미취업모의 영아도 보육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양육지원의 방향인지에 대

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영아의 가정 내 양육이 바람직하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부모가 아동에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료 지원정책의 확대로 인해 부모들이 실제 계획보다 어린이집을 조기 이용하는 현상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개인 수준에서는 이용 계획과 실제 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30% 이상이나 되었다. 이는 부모들이 원래 계획했던 혹은 이상적이라고 여겼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여러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 없었으나 이용하는 경우는 26.6%,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32.7%나 되었다.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지 않으나(즉 어린이집을 이상적 보육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경제적 이유나 동생의 출생 등으로 인해 하는 수 없이 이용하는 부모도 있는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었으나, 집 근처에 보낼만한 기관이 없거나, 어린이집에 여석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관을 이용할 계획이더라도 어린이집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대안적 서비스로서 학원, 놀이학교 등을 이용하려고 계획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들 대다수는 실제로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욕구는 다양하며, 각 가정이 처한 상황과 부모의 특성에 따라 개별 부모에게 적합한 이상적 서비스도 달라질 것이다. 실제로 모의 취업과 학력, 학력 등에 따라, 그리고 아동발달 초기에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이러한 가치는 현재 양육형태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부모들이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는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의 욕구 뿐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아동의 발달에 가장 적합한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은 아동의 연령이나 취업여부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보육료 지원’만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한 해답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영아의 부모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현재 엄청난 보육료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직접 양육을 원한다면 영아기 동안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개인대리양육을 원한다면 개인대리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변화된 육아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김지경(2004).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8), 65-76.
- 백선희·조성우(2005)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수준과 결정요인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1, 429-455.
- 보건복지부(2008).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09).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2011). 소득수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 차이 분석. 육아정책연구 소 편. 아동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욕구 -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심층분석- (pp. 5-25).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임상현·김유경(2001). 자녀양육실태와 미취학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pp. 221-265).
- 안재진·김은지(2010). 미취학아동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연구*, 79(2), 5-36.
- 이경선·김주후(2009). 여성의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 선택유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0), 464-473.
- 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정영혜(2011). *한국아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홍세희(2005). 이향 및 다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 Ahn, J., & Shin, N. (2011). The Use of Child Care Centers for Infants of Dual-working Families: A Korean Study. *A paper presented at KICCE International Seminar & Annual Conference of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435-451.
- Early, D. M., & Burchinal, M. R. (2001). Early childhood care: relations with family characteristics and preferred care characteristic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6, 475-497.
- Fuller, B., Holloway, S., & Liang, X. (1996). Family selection of child-care

- centres: The influence of household support, ethnicity, and parental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7, 3320-3337.
- Johansen, A. S., Leibowitz, A., & Waite, L. J. (1996). The importance of child-care characteristics to choice of ca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759-772.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eibowitz, A., Waite, L. J., & Witsberger, C. (1988). Child care for preschoolers: differences by child's age. *Demography*, 25(2), 205-220.
- Park, E., Lee, S., Kim, E., & Park, S. (2011). Analysis of factors to forecast parents' decision making on the plan to us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ttings. *A paper presented at KICCE International Seminar & Annual Conference of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 Peyton, V., Jacobs, A., O'Brien, M., & Roy, C. (2001). Reasons for choosing child care: associations with family factors, quality, and satisfac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6, 191-208.
- Singer, J. D., Fuller, B., Keiley, M. K., & Wolf, A. (1998). Early child-care selection: Variation by geographic location,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family structure. *Developmental Psychology*, 34(5), 1129-1144.
- Sylva, K., Stein, A., Leach, P., Barnes, J., Malmberg, L. E., & the FCCC-team. (2007). Family and child factors related to the use of non-maternal infant care: An English stud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 118-136.
-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Famili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nonmaternal care for infa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89-408.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계획과 실제 이용간의 관계”에 대한 토론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문혁준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1년 후 보육서비스 이용계획이 실제 1년 후 조사한 보육서비스 이용실태를 비교하고, 영아기의 보육서비스 계획 및 실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1년 12월말 현재 전국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1,348,729명의 영유아 중, 만 2세 이하 영아의 수는 686,256명으로 53.6%에 해당하고 있다. 이는 3년 전인 2008년의 44.2%에 비해 9.4%가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 과정인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만 0~2세 영아 보육료를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0~2세 영아의 보육료 지원을 늘리면서 만 0~2세 영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사례가 크게 늘었으며, 어린이집 이용률이 급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로 뛰어 올랐다. '보육료 권리'를 쟁기려고 상당수 여성의 가정양육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다.

OECD는 만 2세 미만 영아는 가정보육이 바람직하며 시설이용률은 30% 미만이 적정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만 2세 이하 영아 시설 이용률이 50%를 넘는 곳은 덴마크(83%), 스웨덴(66%) 두 곳 뿐이다. 두 나라는 영아의 어머니 취업률이 각각 72%, 76.5%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에는 29.9%에 불과해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상당수 가정이 영아를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영아기는 일생에서 발달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며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신체 기능은 물론,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등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영아기 자녀 양육에 대해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다. 일부에서는 영아기에 친부모와의 애착을 형성하며 가정에서 개별적인 양육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의 발달과 성장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부모에 의한 양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여러 현실적인 측면과 영아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질 높은 영아보육 체제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육아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 대해 몇 가지 논의점 및 제안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보육서비스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 중 몇몇 변인(모의 연령, 학력, 취업여부,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기질, 가구소득 등)을 주요 변인으로 선정한 근거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현재는 각 변인이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중요하다고 제시되어 있을 뿐 선정한 변인들이 영아의 보육서비스를 설명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변인들이라는 근거는 빈약하다. 또한 모의 내적 특성인 양육스트레스나 양육신념 등의 변인이 포함되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예상했던 내용들이 본 연구결과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즉, 모의 학이 높을수록 어린이집을 이용할 확률이 낮고, 모 연령이 낮으면 그리고 취업여성이 어린이집을 더 많이 이용하며, 가구소득은 어린이집 이용계획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출하는 경향이 있을 때 어린이집 이용을 계획할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한편, 기관 이용계획과 달리 실제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서는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출할수록, 활동성이 높지 않고 사회성이 높은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아동의 기질은 어린이집 이용의 영향요인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 이용의 결과일 수 있으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하며, 이들 관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셋째, 연구결과에서 집단 전체로 보면 기관이용계획과 이용실태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부모 개인의 차원에서는 1년 전의 이용계획과 1년 후 이용계획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30% 이상이나 되었다. 연구자가 나름 설명하였지만, 그 이유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이는 향후 육아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연구자가 밝혔듯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욕구는 다양하며, 각 가정이 처한 상황과 부모의 특성에 따라 개별 부모에게 적합한 이상적 서비스가 달라져야 하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에서도 모의 취업과 학력, 학력 등에 따라, 그리고 아동발달 초기에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부모들이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는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아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내용은 여성의 자아실현을 반영하기 위한 부모들의 욕구 또는 자녀 양육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아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한번

어린이집을 이용한 영아는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다. 이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조기화 될수록 영유아에 대한 보육수요는 점차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육료 지원 대상을 3월부터 모든 계층으로 확대해 실제적으로도 기관 이용률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은 획일적으로 ‘보육료 지원’만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또한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단일한 해답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영아의 부모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정부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세 이하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나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아가 모유를 먹고 모와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정책을 확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로 기관이용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영아기 보육은 양질의 서비스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공립 또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리는 등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개선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MEMO

제3회 한국아동페널 학술대회

발행일 2012년 8월

발행인 이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 7, 10,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313-7593
